

메인 기획 Main Propo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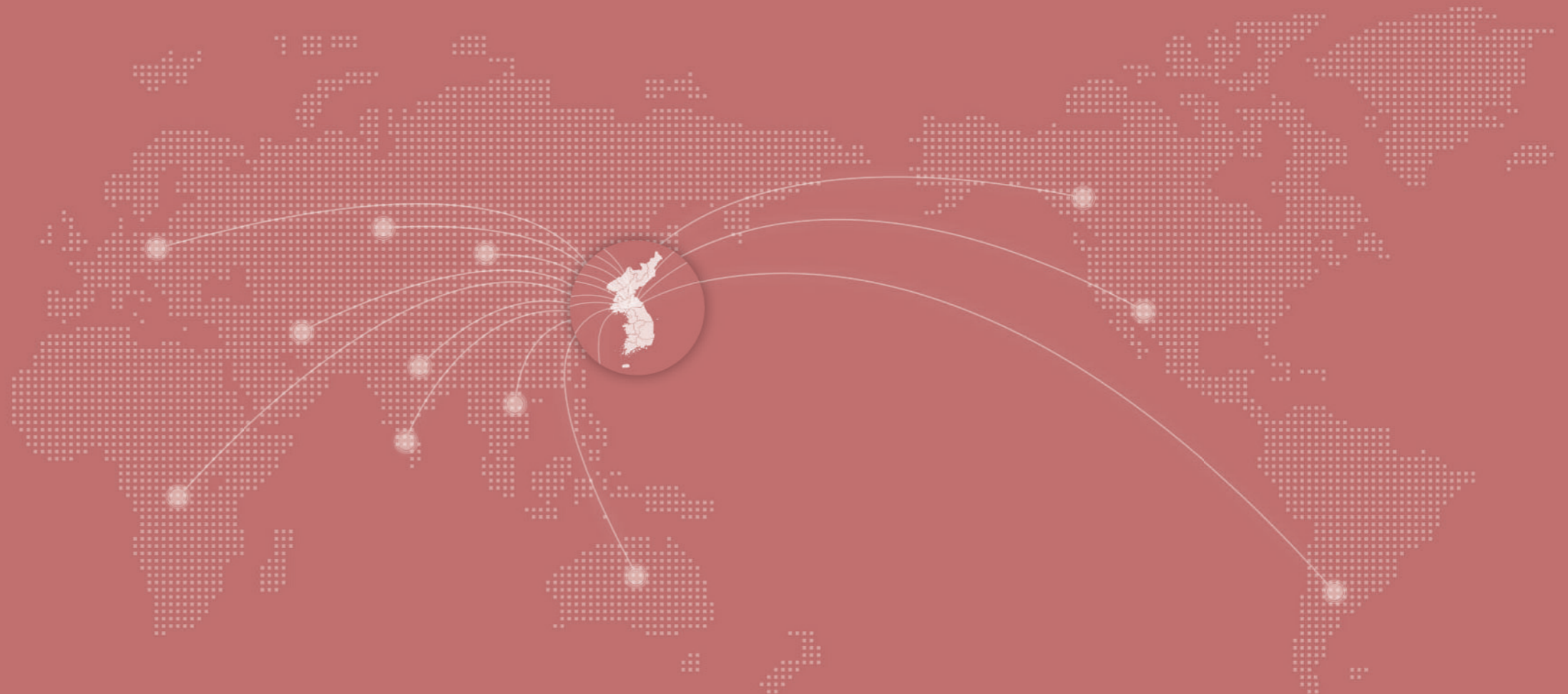
지역발전 플랫폼으로서의 거점 국립대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s the Platform of Regional Development

대한민국 거점 국립대학교 소식지

Vol.7 (Seventh Issue)
September 2019

Korea NU10 MAGAZINE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발 간 등 록 번 호

11-7000215-000019-08

ISSN 2635-411X

*Korea NU10 Magazine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 거점 국립대학교가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Korea NU10 Magazine is a newsletter issued by 10 national universities representing Korea.



06



10



15



18

인사말 Greetings

- 04 다가오는 지역 소멸 시대에 거점 국립대의 역할은
The Role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Era of Diminishing Regions

메인 기획 Main Proposal

지역발전 플랫폼으로서의 거점 국립대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s the Platform of Regional Development

- 06 왜 플랫폼인가? Why "platform"?
- 09 지역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전국 최초 산·학·연·관 협력모델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HuStar)
Fostering Talents Tailored for the Regional Corporate Demand The Nation's First Cooperation Model of "Industry, Academy, Research, and Public Institutions" HuStar : A Project to Foster Innovative Talents in the Daegu-Gyeongbuk Area
- 12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거점 국립대의 상생
Coexistence of the Public Institutions and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Innovation Cities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 15 정부출연연구소를 거점 국립대학과 공동운영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거점 국립대 정책이 필요하다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거점 국립대 소식 Korea NU10 News

- 18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2019년도 3차 협의회 개최
The 3rd Meeting of the 2019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eld
- 20 거점 국립대 세계대학평가 공동 심포지엄 개최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eld a Joint Symposium on World University Evaluation
- 22 거점 국립대 공동 대입설명회 개최
A Joint Presentation on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dmissions Held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회원대학 주요 이슈 Important Issues of Member Universities

- 26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28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30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32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34 경상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36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 38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40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42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44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NU10 소개 Introduction to Korea NU10

- 46 Introduction to Korea NU10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발행일 2019년 9월 25일(통권 제7호)
발행인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제작 굿디자인연구소 (Tel. 051-796-6600)

The date of issue 25/09/2019 (Vol.7)
Publisher The President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Production Good Design Institute (Tel. 051-796-6600)

다가오는 지역 소멸 시대에 거점 국립대의 역할은

The Role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Era of Diminishing Regions

2019년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 경상대학교 총장
Presiden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airman 2019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이상경 Sang-Gyeong Lee Ph.D.



교육부는 8월 6일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대학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2024년에 입학생 약 12만 4,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ICT, 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첨단·융합 기술의 진보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증가하고 직무능력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만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중 거점 국립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대학이 인적·물질·지적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혁신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의 비전과 과제와 관련하여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기반을 마련하여 지역혁신을 이끌라는 뜻입니다.

『Korea NU10 Magazine』 이번 호에서는 이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지역발전 플랫폼으로서의 거점 국립대'라는 주제를 다루기로 정한 뒤에 교육부의 정책발표가 나왔으니 '출타동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와 거점 국립대의 고민과 해법이 차이하지 않았습니. 대구·경북 지역 HuStar사업이나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등은 거점 국립대(또는 국립대)가 지역발전의 플랫폼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환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의 역할과 사명이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사회공헌 등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신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Start up 기업을 만들고 육성하여 지역민이 잘 사는 바탕을 제공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지역 소멸 시대에 대비하여 광역 자치단체가 수행할 혁신의 중심에 거점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 플랫폼으로서의 거점 국립대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s the Platform of Regional Development

'지역혁신(발전) 플랫폼'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대학 혁신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때 각 시도에 위치한 거점 국립대의 역할이 부각된다. 거점 국립대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여 R&D 혁신거점 및 지역 싱크탱크로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미 거점 국립대들이 수행 중인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초기 단계의 플랫폼이고, 대구·경북 지역의 휴스타(HuStar)사업은 플랫폼 사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발전 플랫폼으로서의 거점 국립대에서 거점 국립대들이 지역의 인적·물질·지적 자원의 핵심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The concept of regional innovation(development) platform is emerging. This means propelling "regional innovation" as well as boosting regional sustainability and regional university innovation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self-governing body and the universities in each region. At such time, the role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orea NU10s) located in the designated city and provincial areas will also be magnified.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Korea NU10s will be restructured to become the hub of R&D innovation and the think tank in each region. The initial stage of such platform is the project to foster the leading regional universities, which has already been being implemented by the Korea NU10s. Such platform projects are modeled after the HuStar project of the Daegu-Gyeongbuk area. In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s the Platform of Regional Development," the role of the Korea NU10s will be examined as to what responsibilities they will soon have to assume as the hub of the human, material, and intellectual resources in each region.

왜 플랫폼인가? Why "platform"?

플랫폼(platform)은 일반적으로 기차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곳을 말한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유럽의 고풍스러운 도시에도 어김없이 기차역이 있고 그 기차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있다. 이런 플랫폼의 개념은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도 적용되어 플랫폼 기반 사업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산업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홈쇼핑, 네이버, 아마존, 유튜브 등이 플랫폼 기반의 사업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들의 조합을 플랫폼이라고 칭한다. 즉, 플랫폼은 연결고리이다. 어쩌면 초(超)연결 사회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플랫폼은 필수적이다. 그럼 대학은 어떤 곳인가? 대학은 교육·연구·사회봉사라는 3가지 기본적인 가치 기준을 근간으로 각 대학마다 나름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근간이 되는 학문 후속세대와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거점 국립대학은 지역민에 의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해방 전후(1945~1950년)에 설립되었다. 그 이후 시대의 변화를 지역민들과 함께 겪으며 대학과 지역은 함께해 왔다. 그 결과, 거점 국립대학과 지역 사회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의 기반 마련에 기여해 왔다.

최근 우리나라는 학령인구의 급감과 산업 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대학 선호도의 수도권 편중화와 전공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심화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 자원과 경쟁력을 대학이 제공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미래 산업구조는 대량 생산을 넘어서 맞춤형 생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있다. 사회 구조 역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가치 창출보다는, 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는 다양성의 시대로 진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당면 과제이고 그 해결의 중심에 대학이 있다. 하지만, 인재 양성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 역시 다양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들은 가르치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의 대학 역시 인구 편중에 따른 반사 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기능과 대학이 추구하려는 가치가 상당한 부분 상충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바뀌면 모든 게 변한다. 대학 역시 그 변화를 거부할 수 없다. 거점 국립대학 또한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야 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국가나 사회에만 요구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시장의 수요에 맡겨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1950년대 국가 재건을 위해 지역인들의 노력으로 설립된 거점 국립대학들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으로 교육·연구·사회봉사의 3가지 가치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표 1). 하지만 기존의 단일, 지역적, 경쟁형 플랫폼으로는 급변하는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 특히 미래 산업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여야 한다. 거점 국립대학 역시 기존의 플랫폼을 과감히 벗어 버리고 지역과 새롭게 연계하여 시대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새로운 플랫폼(예: 연계형 융복합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통해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교육을 넘어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누구와, 어디서든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혁신도시 완성, 사회·문화적 지적 생활 공유를 통

한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적 소명도 거점 국립대학 중심의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야 한다(그림 1). 다시 기차역 플랫폼으로 돌아가 보자. 기차역이란 도시가 생성되면서 지어지는 첫 번째 시설 중 하나이고 플랫폼은 그 기차역의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유럽의 기차역과 플랫폼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 가며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도시문화의 중심이자 과거와 미래,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통로이다. 도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기차역과 플랫폼은 언제나 그 기능을 잘 수행할 것이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점 국립대학도 국가와 지역이 필요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그 지역 사회와 더불어 새로운 문화와 산업을 만들고 이끌 수 있도록 시대에 적합한 플랫폼을 만들고 시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노력의 주체는 우리 모두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지리적으로 잘 배분된 10개의 거점 국립대학이라는 기차역이 있다. 비록 오래되어 많이 낡았지만, 아직은 그 나름의 특색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그 특색을 유지하면서 시대에 부합하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거점 국립대학을 리모델링(플랫폼화)

하여, 초연결 시대의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나 연결되는 그런 미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A platform is a place where people wait for a train at a train station. There are train stations all over the country and in old cities in Europe. There are various types of platforms. These platforms are reappearing in the rapidly changing industries. Home-shopping, Naver, Amazon, and YouTube, which we know well, are platform-based businesses. The combination of hardware and software elements for developing a program is also called a platform. In other words, platforms are connections. Therefore, platforms are essential for us today, living in a highly connected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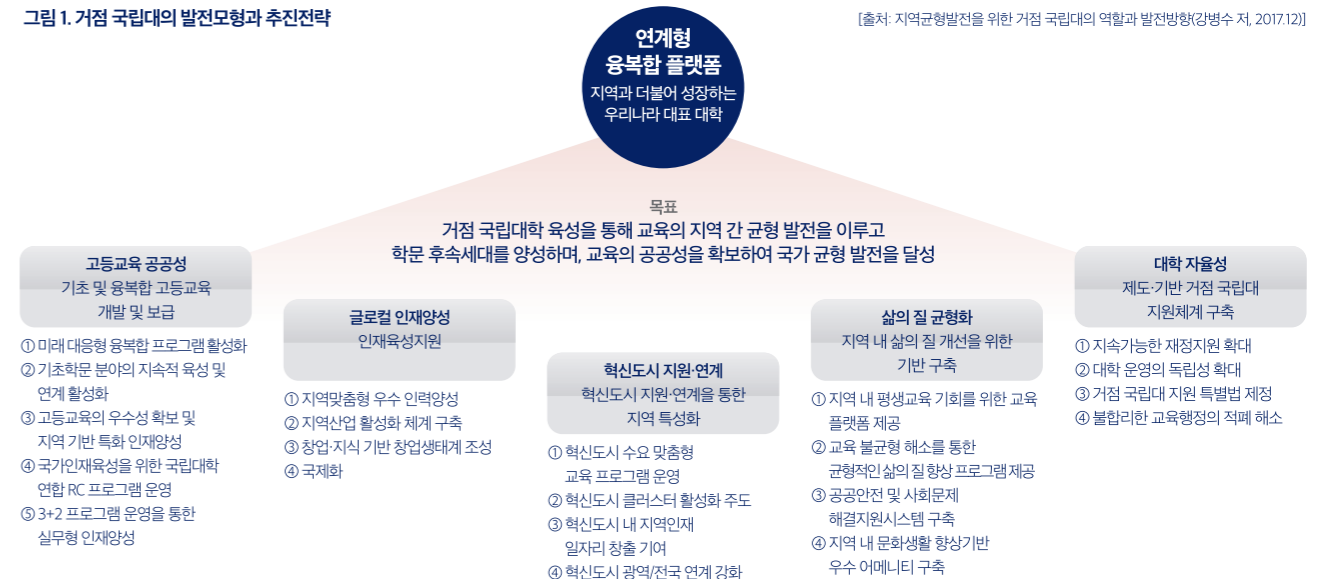
What about the Universities in Korea then? Universities have played an essential role, fostering scholars and workforces for the next-generation, building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community, with its vision and goals based on fundamental values of education, research, and public service. Among many universities, National Universities, established between 1945 and 1950 were funded by the local communities to foster human resources, necessary for the country and community. Since then, national universities and

표 1. 거점 국립대학교의 혁신 플랫폼 발전모형 [출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국립대의 역할과 발전방향(강병수 저, 2017.12)]

플랫폼 유형	과거	최근	미래
	지역독점형 단일 플랫폼	경쟁형 개별 플랫폼	연계형 융복합 플랫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 기회 제한적 (대학진학률 낮음) 졸업 이후 취업 기회 풍부 (산업계 일자리 다양화) 기초학문 중심의 전공 운영 공급자(교수) 중심의 지식 전달 (단일 전공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 기회 확대/보편화 (대학진학률 높음) 졸업 이후 취업 기회 감소 (안정적 일자리 선호) 실용주의적 전공 운영 교육수요 다양화 (복수전공, 전문대학원, 산업연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 기회 다양화(평생교육 연계) 졸업 이후 경력 선택 다양화 (안정 추구형vs도전형vs창작형) 기초학문 및 융복합형 전공 운영 수요자 선택형 교육수요 (MOOC, 실무교육형, 평생교육형 등)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선진연구 학습(개발연구) 연구 여건 미흡 (연구비, 대학원생, 연구시설 등) 전공단위 개발연구 중심 지역연계 특성화 분야 대학 단위 지원 (국립대, 공과대 특성화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선진연구 & 부분 기초연구 양적 기반 연구인프라 및 성과 추구 우수연구집단 육성 위한 지원 중심 (BK21, 연구중심대학 등) 경쟁기반 연구비 지원 (대학 단위, 연구집단, 개별단위 등) 지역특화산업연계형 산학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구 확대 및 유망 신기술 연구 다양한 융복합 연구 (인문/이공계 융합) 질적 연구성과 추구 협력적 연구네트워크 강화 (여러 전공, 타 대학 등) 기술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사회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와 제한적 연결 지역 이슈에 대한 리더 역할 (단체 기관 부재, 우수인력 집중화 등) 평생교육에 대한 제한적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평생교육 수요 증가 지자체 독자 전문기관 설립 운영 (발전연구원, 산업진흥원 등) 지역 내 경쟁관계 (지역 내 타 대학, 지역 전문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평생교육의 허브 역할 (평생교육원,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등) 지역 삶의 질 개선 인프라 공유 (도서관, 체육관, 문화시설 등) 지역 내 전문기관 협력 확대 (이슈별, 기관별 등)



그림 1. 거점 국립대의 발전모형과 추진전략



[출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국립대의 역할과 발전방향(강병수 저, 2017.12)]

왜 플랫폼인가? Why "platform"?

플랫폼(platform)은 일반적으로 기차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곳을 말한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유럽의 고풍스러운 도시에도 어김없이 기차역이 있고 그 기차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있다. 이런 플랫폼의 개념은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도 적용되어 플랫폼 기반 사업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산업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홈쇼핑, 네이버, 아마존, 유튜브 등이 플랫폼 기반의 사업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들의 조합을 플랫폼이라고 칭한다. 즉, 플랫폼은 연결고리이다. 어쩌면 초(超)연결 사회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플랫폼은 필수적이다. 그럼 대학은 어떤 곳인가? 대학은 교육·연구·사회봉사라는 3가지 기본적인 가치 기준을 근간으로 각 대학마다 나름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근간이 되는 학문 후속세대와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거점 국립대학은 지역민에 의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해방 전후(1945~1950년)에 설립되었다. 그 이후 시대의 변화를 지역민들과 함께 겪으며 대학과 지역은 함께해 왔다. 그 결과, 거점 국립대학과 지역 사회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의 기반 마련에 기여해 왔다.

최근 우리나라는 학령인구의 급감과 산업 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대학 선호도의 수도권 편중화와 전공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심화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 자원과 경쟁력을 대학이 제공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미래 산업구조는 대량 생산을 넘어서 맞춤형 생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있다. 사회 구조 역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가치 창출보다는, 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는 다양성의 시대로 진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당면 과제이고 그 해결의 중심에 대학이 있다. 하지만, 인재 양성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 역시 다양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들은 가르치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의 대학 역시 인구 편중에 따른 반사 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기능과 대학이 추구하려는 가치가 상당한 부분 상충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바뀌면 모든 게 변한다. 대학 역시 그 변화를 거부할 수 없다. 거점 국립대학 또한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야 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국가나 사회에만 요구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시장의 수요에 맡겨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1950년대 국가 재건을 위해 지역인들의 노력으로 설립된 거점 국립대학들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으로 교육·연구·사회봉사의 3가지 가치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표 1). 하지만 기존의 단일, 지역적, 경쟁형 플랫폼으로는 급변하는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 특히 미래 산업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여야 한다. 거점 국립대학 역시 기존의 플랫폼을 과감히 벗어 버리고 지역과 새롭게 연계하여 시대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새로운 플랫폼(예: 연계형 융복합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통해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교육을 넘어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누구와, 어디서든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혁신도시 완성, 사회·문화적 지적 생활 공유를 통

한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적 소명도 거점 국립대학 중심의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야 한다(그림 1). 다시 기차역 플랫폼으로 돌아가 보자. 기차역이란 도시가 생성되면서 지어지는 첫 번째 시설 중 하나이고 플랫폼은 그 기차역의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유럽의 기차역과 플랫폼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 가며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도시문화의 중심이자 과거와 미래,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통로이다. 도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기차역과 플랫폼은 언제나 그 기능을 잘 수행할 것이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점 국립대학도 국가와 지역이 필요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그 지역 사회와 더불어 새로운 문화와 산업을 만들고 이끌 수 있도록 시대에 적합한 플랫폼을 만들고 시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노력의 주체는 우리 모두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지리적으로 잘 배분된 10개의 거점 국립대학이라는 기차역이 있다. 비록 오래되어 많이 낡았지만, 아직은 그 나름의 특색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그 특색을 유지하면서 시대에 부합하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거점 국립대학을 리모델링(플랫폼화)

하여, 초연결 시대의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나 연결되는 그런 미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A platform is a place where people wait for a train at a train station. There are train stations all over the country and in old cities in Europe. There are various types of platforms. These platforms are reappearing in the rapidly changing industries. Home-shopping, Naver, Amazon, and YouTube, which we know well, are platform-based businesses. The combination of hardware and software elements for developing a program is also called a platform. In other words, platforms are connections. Therefore, platforms are essential for us today, living in a highly connected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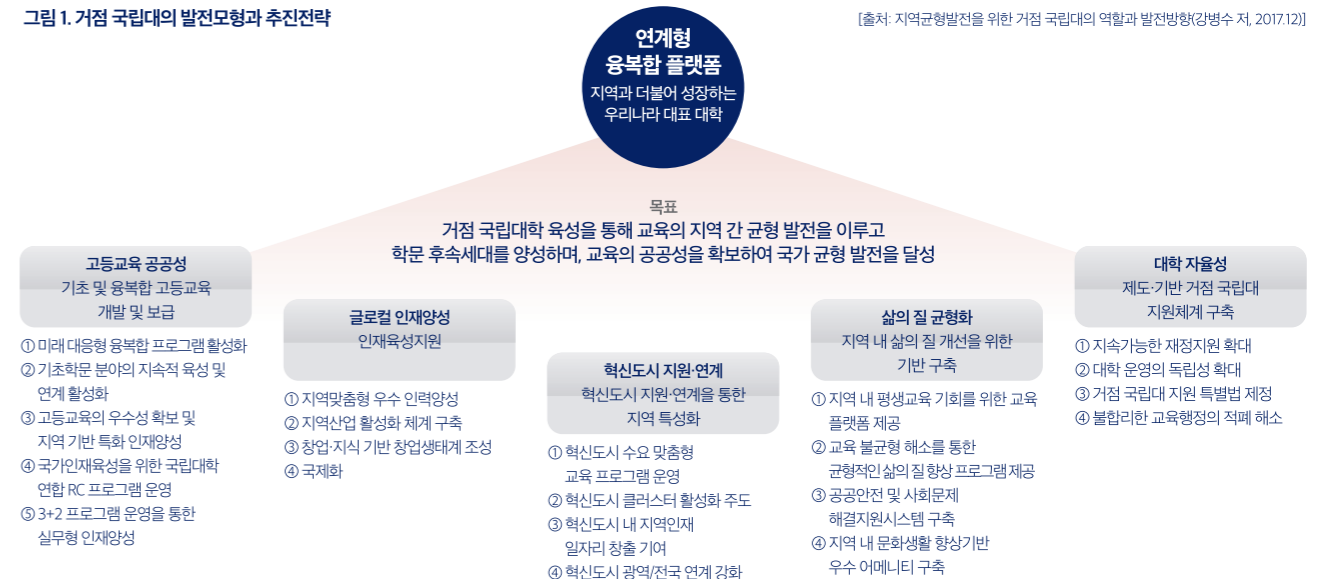
What about the Universities in Korea then? Universities have played an essential role, fostering scholars and workforces for the next-generation, building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community, with its vision and goals based on fundamental values of education, research, and public service. Among many universities, National Universities, established between 1945 and 1950 were funded by the local communities to foster human resources, necessary for the country and community. Since then, national universities and

표 1. 거점 국립대학교의 혁신 플랫폼 발전모형 [출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국립대의 역할과 발전방향(강병수 저, 2017.12)]

플랫폼 유형	과거	최근	미래
	지역독점형 단일 플랫폼	경쟁형 개별 플랫폼	연계형 융복합 플랫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 기회 제한적 (대학진학률 낮음) 졸업 이후 취업 기회 풍부 (산업계 일자리 다양화) 기초학문 중심의 전공 운영 공급자(교수) 중심의 지식 전달 (단일 전공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 기회 확대/보편화 (대학진학률 높음) 졸업 이후 취업 기회 감소 (안정적 일자리 선호) 실용주의적 전공 운영 교육수요 다양화 (복수전공, 전문대학원, 산업연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 기회 다양화(평생교육 연계) 졸업 이후 경력 선택 다양화 (안정 추구형vs도전형vs창작형) 기초학문 및 융복합형 전공 운영 수요자 선택형 교육수요 (MOOC, 실무교육형, 평생교육형 등)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선진연구 학습(개발연구) 연구 여건 미흡 (연구비, 대학원생, 연구시설 등) 전공단위 개발연구 중심 지역연계 특성화 분야 대학 단위 지원 (국립대, 공과대 특성화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선진연구 & 부분 기초연구 양적 기반 연구인프라 및 성과 추구 우수연구집단 육성 위한 지원 중심 (BK21, 연구중심대학 등) 경쟁기반 연구비 지원 (대학 단위, 연구집단, 개별단위 등) 지역특화산업연계형 산학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구 확대 및 유망 신기술 연구 다양한 융복합 연구 (인문/이공계 융합) 질적 연구성과 추구 협력적 연구네트워크 강화 (여러 전공, 타 대학 등) 기술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사회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와 제한적 연결 지역 이슈에 대한 리더 역할 (단체 기관 부재, 우수인력 집중화 등) 평생교육에 대한 제한적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평생교육 수요 증가 지자체 독자 전문기관 설립 운영 (발전연구원, 산업진흥원 등) 지역 내 경쟁관계 (지역 내 타 대학, 지역 전문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평생교육의 허브 역할 (평생교육원,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등) 지역 삶의 질 개선 인프라 공유 (도서관, 체육관, 문화시설 등) 지역 내 전문기관 협력 확대 (이슈별, 기관별 등)



그림 1. 거점 국립대의 발전모형과 추진전략



[출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국립대의 역할과 발전방향(강병수 저, 2017.12)]

Table 1. Chronicle models of the renovated platform of national universities
[Source: Prospective and role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in conjunction with regionally balanced development (B.S. Kang et al. 2017.12)]

Types	Past	Current	Future
	Localized Single Platform	Competitive Individual Platform	Connected convergence platform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mited opportunity for higher education (Low admission rate) - Abundant job opportunity after graduation (Diverse job market) - Limited academic majors (focused on basic studies) - One way knowledge transfer (Faculty oriented, Single major on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eralizing/ Expanding opportunities for higher (High admission rate) - Reducing job-market (limited opportunity, prefer stable jobs) - Operating pragmatic majors - Diversification of educational needs (multiple majors, specialized graduate schools, industry-linked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versifying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Connected to lifelong learning) - Diversifying career choices after graduation (Stabilization vs. Challenge vs. Innovation) - Operating of basic studies and convergence majors - Demean-oriented educational program (MOOC, practical education type, lifelong education, etc.)
Resea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arning overseas' advanced research subjects (Development Research) - Insufficient research environments (funding, students, infrastructure, etc.) - Focusing on individual research - Supporting personal program, related to the local industry (university basis specialized engineering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cused on overseas' advanced research program & Partially forced on a basic research program - Pursuing quantity based research infrastructure and performance evaluation - Focusing on fostering excellent research groups (BK21, research universities, etc.) - Supporting competition based research grant (university level, group, individual units, etc.) - Supporting local industry-university corporation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anding basic research & Investigating promising new technology - Research on various convergence field (humanity and engineering/science convergence) - Pursuing qualitative research achievements - Strengthening collaborative research network (multiple majors, other universities, etc.) - Promoting commercialization and entrepreneurship
Public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mited conne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 Demanding a leader role on local issues (lack of resources such as human, organization, etc.) - Limited supply of lifelong education - Increasing demand for lifelong lea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dependent agencies by local governments (Policy, Industrial Strategic Institute, etc.) - Competitive relationship among other local institution (other universities, local professional organizations,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le of regional lifelong education hub (Lifelong Education Center, online and offline media use, etc.) - Sharing local infrastructure to improve quality of life (library, gym, cultural facilities, etc.) - Expanding cooperation with local professional organizations (issue by issue and case by case)

communities have tied together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the country.

Recently, the steep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changes in the industrial ecosystem accelerated the biased academic preferences and metropolitan (in particular, Seoul and the suburb of Seoul) centralization. Also, there is anxiety about whether universities can provide enough human resources and competitiveness to sustain the growth momentum in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In particular, the future industrial structure is moving beyond mass production to a new paradigm of customized production. Social structures are also evolving into an age of diversity that respects individual personalities and characteristics, rather than creating core values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Raising talented young persons who can adapt to these changes is a significant challenge for the country, and the university is at the center of its solution. However, universities also face various challenges. In particular, some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are struggling to maintain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for education. On the other hand,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lso do not take full

advantage of the benefits of the population bias. This is because there are serious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the function of the university required by society and the value that the university seeks.

Everything changes by time. Universities cannot resist changes. National universities also need to find new functions and roles to meet these changes even though the government and community have a responsibility to provide equal opportunity for higher education among fellow citizens. Nonetheless, it is not advisable to leave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university to market demand. Founded by local people for the sake of rebuilding the country, National universities have made great efforts to cultivate workforces to the nation utilizing various platforms to meet the challenges while maintaining fundamental values of education, research, and public service (Table 1). However,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world, existing platforms such as isolated, localized, competition-based platforms can no longer be accommodated. In particular,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society, all possible resources and means must be utilized. Therefore,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remodel the

existing platforms to a new one connected convergence platforms, Figure along with local communities as they did in the 1950s to foster human resources that can lead the world. Through this new platform, the national universities can provide the opportunity to learn, communicate, and share knowledge and information without limitation of location, time to the people in Korea. Also, the new platform, initiated by the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be able to complete the missions such as balancing regional development, providing equal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completing innovative cities,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rough the sharing of sociocultural intellectual life.

Let's go back to the platform and the train station. The train station may be one of the first facilities to be built as a city was created. For example, train stations and platforms in Europe are continually evolving with time, and are the center of the city's culture. Furthermore, it was and is a passageway connecting the past and the future, regions, countries, and nations. Unless the city disappears, the train station should always be able to the job and to be able to work. National universities also need to make every effort to cultivate future human resources that the country and society needs like train stations. Furthermore, national universities and local communities should work together to create and lead the new cultures and industries. In Korea, there are already nine geographically well-distributed train stations (e.g., national universities). Although they are old and needed many works, it still functions and retains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Now let us remodel the national universities so that they can be playgroups to foster the next-generation human resources needed for us and the world. As a result, Korea will become a hyper-connected country in every aspect, such as education, culture, economy, etc.



지역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전국 최초 산·학·연·관 협력모델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HuStar)

Fostering Talents Tailored for the Regional Corporate Demand The Nation's First Cooperation Model of "Industry, Academy, Research, and Public Institutions"
HuStar : A Project to Foster Innovative Talents in the Daegu-Gyeongbuk Area



임기병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장(산학협력단장)
Lim, Kibyoung
Director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지역 인재를 지역에서 키우는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휴스타(HuStar) 사업이 제1기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하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지역기업이 함께 기업 수요에 맞는 혁신인재를 키우는 프로젝트다. 지역 고급 인력의 역외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휴스타 사업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지역이 주목한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 인재를 키우기 위해 2027년까지 1,600억 원을 투자하여 혁신지도자 50명과 인재 3,000명을 길러낼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휴스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난 1년간 기업과 대학 등 사업 주체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재양성 협업선포식을 개최하여 사업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키웠다. 또한 최종 공고 전 지역의 관계자 350여 명이 모인 공청회를 개최, 최종 논의를 거친 후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확정, 사업단을 선정했다. 기존의 인력양성 사업들이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 주도로만 이루어진 반면 휴스타 사업은 기업과 대학이 기획에서부터 교육생 선발, 교육과정 설계, 실습 등 교육과정 운영까지 함께 진행한다. 휴스타 사업은 최종적으로 취업과 연계하는 상호 협력 방식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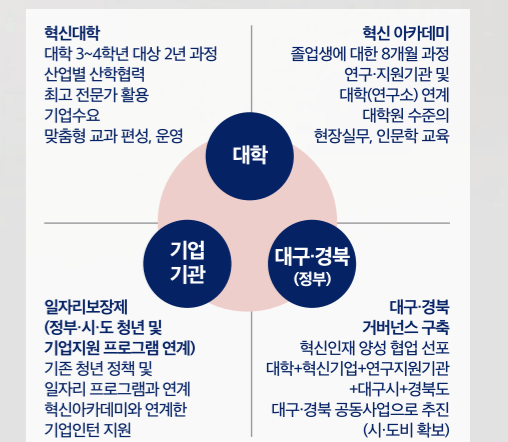


표 1. 프로그램별 교육과정 및 주요 내용

구분	교육과정(개강시기)	주요 내용
혁신대학	2년 과정 *학부 3-4학년 (20년 3월 개강)	•기업 맞춤형 커리큘럼 구성 운영 •기업 수요 대응 공동 프로젝트 추진 •분야별 40명 정도
혁신아카데미	8개월 과정 *졸업생 대상 과정 (19년 10월 개강)	•대학원 수준 현장실무교육(5개월) 및 기업 인턴(3개월) •참여기업 재직자 교육 포함 •분야별 50-60명 정도
일자리보장제	참여기업 및 취·창업자 인센티브	•아카데미 교육생 기업 인턴비 지원 •(참여기업) 사·도 지원정책 프로그램 연계한 인센티브 지원 •(취·창업자) 정규직 취업 기회 보장, 창업 프로그램 및 청년지원정책 연계

휴스타 사업은 혁신대학 사업과 혁신아카데미 사업으로 크게 구분지어 볼 수 있다. 혁신대학 사업은 5개 산업 분야에 학부생 3, 4학년 대상으로 하는 2년의 교육과정이고, 혁신아카데미 사업은 대구 4개 산업 분야, 경북 5개 산업 분야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8개월 교육과정(교육 5개월, 기업 인턴 3개월)으로 구성된다.

혁신아카데미는 숙련된 실력을 갖춘 청년이 지역 기업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현장실습 장비와 시설을 갖춘 16개 대구·경북 연구·지원기관과 대학 연구소가 채용수요가 있는 참여기업과 협약을 맺고 대학원 수준의 현장실습 교육을 5개월간 운영한 후 참여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 과정을 거친다.

혁신대학은 지역기업의 혁신인재 채용을 연계해 기업 수요 맞춤형 대학체계 개편과 협력 모델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로봇, 물, 미래차, 의료, ICT 등 5개 분야로 2020년부터 학부생(3-4학년) 대상 2년 과정으로 분야별 40명 정도를 선발해 교육이 진행된다.

산업별 최고의 전문지식을 가진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개의 중심학과와 2

개 이상의 관련학과 간 연합해 사업단을 구성한다. 또한 기업 요구에 부합하도록 대학 교과과정을 신설, 개편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기업 수요에 대응하는 대학교육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경북대학교는 혁신아카데미 ICT 분야 주관 기관으로, 로봇과 의료 분야 참여기관에 선정됐고, 혁신대학 로봇 분야 중심학부로 기계공학부, 참여학과로 정밀기계공학과 및 전자공학부, ICT 분야 중심학부로 전자공학부, 참여학과로 컴퓨터학부 및 소프트웨어 학과가 선정됐다. 현대로보틱스, 위니텍 등 로봇분야 24개 기업, ICT 분야 25개 기업들과 함께 인재를 키워나갈 예정이다.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청년이 머물러야 한다. 청년들이 많은 우리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기존 환경으로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대구·경북의 인재양성사업인 휴스타 사업은 지역산업을 성장·발전시키는 중요한 프로젝트임이 틀림없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금석

으로 기업체-대학-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협력을 통해서만이 성공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육성하여 공급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시발점이 되며, 그것이 지역 대학의 책무이자 소임이다. 대경혁신인재양성 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산업 현장 맞춤형 인력 공급을 주도해 외부로부터의 인력 공급에서 지역 중심의 우수 인력 공급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 선순환 구조가 지역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이 되리라 기대한다.

As it began the recruitment process for its first cohort of the Innovation Academy program, the recently launched project “HuStar” is now in full swing. HuStar is a project to foster innovative talents in the Daegu-Gyeongbuk area, aiming to cultivate local workforce within the region. HuStar is led by our regional government offices, and its objective is to produce innovative workers customized for local corporate demands together with regional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industrial corporations. We expect that this project, which is the first one of its kind in our nation, will establish a model of virtuous cycle to prevent quality local workforce from leaving the region and to attract talented young workers to settle down in the region to develop the local communities. Through HuStar, the Daegu city and G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plan to invest 160 billion Won to produce 50 innovative leaders and 3,000 quality workers by 2027. This is to produce workforce suitable for the current industrial revolution era in the

prospective industrial fields of new growth, which our region is seriously focusing on.

To make HuStar successful, the Daegu city and G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collected various opinions over the past year from corporations and universities by subprogram. And, these government offices recently held a ceremony to declare embarkation of their / cooperative project to foster regional workforce. They have been raising the local communities' interests in and affections for HuStar as well as their city and province. They also held a public hearing prior to this ceremony by inviting 350 community leaders so that they could have the final discussion to confirm their methods to properly cultivate talented individuals needed by their regions the most. The government offices of the Daegu city and Gyeongbuk province also formed the committees to implement these methods.

While existing projects to cultivate innovative workforce have exclusively been led by universities in charge of education and research, HuStar operates its programs together with the university and corporations for all tasks ranging from making plans, selecting students, as well as designing courses and practicums. In its final stage, HuStar mutually cooperates with the employers to connect students with their future jobs.

HuStar can be divided into two major programs of the Innovation University and of the Innovation Academy. The Innovation University program is a two-year educational course for third- and fourth-year undergraduate students in five different industrial fields. The Innovation Academy program is for recent graduates and is eight months long, consisting of a five-month coursework and a three-month internship in the four industrial fields in the Daegu area as well as five in the Gyeongbuk area.

The Innovation Academy program aims to help young skilled workers settle down in our city and province by finding permanent jobs at corporations in the area. To make this possible, an agreement was made by the university research centers; 16 research and support institutions equipped with practicum conditions and facilities; as well as participating corporations requiring new employees in the Daegu and Gyeongbuk region. In this program, students will receive a graduate school level practicum training

for five months and go through an internship at one of the participating corporations for three months.

The goal of the Innovation University program is to provide courses more specifically tailored for corporate demands by restructuring the university system and to firmly establish the cooperation model by connecting quality innovative workforce with the corporations requiring such manpower. In the five technological fields of robotic, hydraulic, future automobile, medical, and ICT, this two-year program will select and educate 40 of third- and fourth-year undergraduate students for each field starting in 2020.

To produce quality regional workforce with the best expertise, an advisory committee in each industrial field has been collaboratively formed with one core and at least two related academic disciplines. In addition, the program has newly established or restructured its university curricula to meet the corporate demands so that it can focus not only on fostering quality workers, but also on creating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to fulfill requirements of these corporation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as selected as the main body who will operate the Innovation Academy program in the field of ICT; and chosen as a participating organization in the fields of robotic and medical technologies. For the Innovation University program in the field of robotic technology, our university's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was selected as the core academic discipline; and our Department of Precision Mechanical Engineering and School of Electronics Engineering as its participating majors. In the ICT field, our School of Electronics Engineering was selected as the core academic discipline; as well as our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as a participating major along with the

Department of Computer Softwa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s planning to foster regional talents together with 25 corporations of ICT and 24 corporations of robotic technology, such as Hyundai Robotics and Winitech.

To revitalize a region, the youth workforce must stay. To increase the youth population in our regional communities, we have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will make young people want to settle down in our local area. If this is not possible with the existing environment, then we must create a new one. From this standpoint, there is no doubt that HuStar, which is designed to cultivate quality talents in the Daegu-Gyeongbuk area, is an important project to develop and improve the regional industries. Since HuStar is a crucial test to find out whether we can build the base described above to cultivate quality talents in the region, its success can be obtained only by true contemplation and cooperation in good faith among all related entities including regional industries, universities, and autonomous government offices.

The cornerstone that will lead our country to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to entrust our regional universities to cultivate and supply local workforce for the industries within our own region. This is not only a duty, but also a mission of our regional universities. HuStar will offer a chance to transform the existing system of recruiting talented workers from outside areas other than our own region to the self-sufficient system of fostering and supplying them within our region by taking the lead in providing the necessary manpower customized for each industrial field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We look forward to this virtuous cycle that will make our region healthier and our foundation stronger in order to further advance the regionally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Main Curriculum by Program

Category	Program(First Day of Class)	Description
Innovation University	2-year program *3rd-4th year undergraduate students (Mar 2020)	• Design and operate the curriculum customized for each corporation • Offer a joint program to meet corporate demands • Select about 40 students per field
Innovation Academy	8-month program *Recent graduates (Oct 2019)	• Offer a graduate school level practicum (5 months) and a corporate internship (3 months) • Open the program to the current employees of the participating corporations • Select about 50-60 students per field
Employment Security System	*Incentive for job seekers, venture owners, and employees of the participating corporations	• Offer financial support of corporate internship for students in the Innovation Academy • Provide incentives by connecting students with the support programs of the city and provincial government policies for participating corporations • Secure full-time job opportunities by connecting students with programs of venture and youth support policies for job seekers and venture owners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거점 국립대의 상생

Coexistence of the Public Institutions and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Innovation Cities

지역균형발전으로 대표되는 지방화 시대에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과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지역의 산업 생태계에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공급해야 하고, 지역의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화를 선도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에 따라 정부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시범사업을 통해 그 기반을 구축하였고, 2019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5년간 사업이 이루어지며, 예산은 매년 100억 원씩 총 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방대학이 지자체-지방 소재 공공기관-산업계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상호 연계해 지역인재를 공동 양성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2022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 30%를 달성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지자체(광역·기초)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스스로 역량과 특성을 분석하고 협업을 통해 운영모형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에 산·학·연·관 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배출인력에 대한 대학-공공기관 간 지역인재 채용의 매칭 역할을 이끌도록 하고 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역인재의 공동양성 및 취업 후 정주를 목적으로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 간 협력을 통한 지역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각 참여 주체에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이 부여된다. 지방대학은 공공기관, 산업계 인력 수요에 맞는 융합전공, 별도 트랙 운영 등 맞춤형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대학 간 동반성장을 위한 연계·협력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및 산업계는 수요 인력에 대한 직무능력 관련 정보를 지역대학에 제시하고,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며, 전·현직 임원을 교수요원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는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인력지원, 사업비 매칭), 지자체 발전 방안과 연계한 사업추진 방향 등을 제시하게 된다.

거점 국립대학이 선도하고 있는 각 지역별 컨소시엄의 구성 및 계획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원대 컨소시엄은 「지역균형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강원 초(超)융합 공공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컨소시엄 구축, 융합 교육과정 개발·운영, 수요

자 맞춤형 고등교육 지원,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대 컨소시엄은 공공분야 맞춤형 SW융합 교과과정을 비롯해 비교과 프로그램, 공공기관 특화 프로그램, 산업체 특화 프로그램, 산학관 네트워킹 강화 프로그램 등 5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경상대 컨소시엄은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융합전공(주택도시개발·전력에너지·산업경영지원·시험분석) 개설, 맞춤형 교과 교육과정 개발·운영, NCS 기초 교과목 운영, 취업역량 강화 비교과 교육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BRC(Busan Regional Consortium) 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혁신인재양성 및 혁신성장 생태계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부산지역 창의 혁신인재 공급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교과과 비교과 과정, 팀 프로젝트, 취업 교육, 현장실무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공기관 및 지역전략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대는 에너지, 스마트농업, 도시재생, ICT 등 지역사회를 선도할 스마트 융합인재를 집중 양성하게 된다. 전남대는 참여 주체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교과+비교과 교육, 현장실습 확대,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대 컨소시엄은 시범사업에서 농생명 분야에 적용하던 교육과정을 연극, 전기 안전, 공간 분야 등의 분야로 확대해 분야별 전문우수인재 양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대 컨소시엄의 사업 목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맞춤형 GREAT 인재양성'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맞춤형 트랙 및 산업연계 융합트랙 개설, 직무특화 교육 운영, 취업지원 비교과 교육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충남대 컨소시엄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 수요 맞춤형 융합 인재 양성'을 주제로, 지역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및 산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연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대 컨소시엄은 '충북혁신도시 20! 지역사회 맞춤형 우수인재 공동 양성'이라는 비전에 대해 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 연계 컨소시엄의 구축을 통해 공공서비스 ICT 인력, 정책분석 인력, 가스·에너지 안전 인력, 미식 관광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 유출 등으로 지역경제의 침체에 기반한 지역소멸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그간 추진한 지역투자자는 부처별, 사업별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성장을 위한 효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지자체, 대학, 지역산업체 등 다양한 지역의 혁신 주체가 연계·협력하는 지역 중심의 자율적 거버넌스의 구축·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자체, 지방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간 협력형 거버넌스 체계로서 이른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과 연계하여 거점 국립대학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사업이다.



In this era represented by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role and the statu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re becoming increasingly more imperative. As their main duty, thes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ave to foster and supply quality talents needed by the ecosystem of regional industries and also have to lead regional characterizations by forming a coalition with the public institutions in the innovation cities of their regions. According such needs in this era, the national government has been propelling its project of promoting the leading regional universities since July 2019. The national government built the foundation of this project through its demonstrative pilot in 2018 and is planning to continue to do so until February 2024. The national government is also planning to infuse its annual budget of 10 billion Won into this project, totaling 50 billion Won over this five-year period.

The project of fostering the leading regional universities plans to have a selected regional university in each province to act as the hub of regional development by creating a consortium of the autonomous government offices, public institutions, and industries in that region. It also plans to have these leading regional universities to jointly foster local talents by mutually connecting the capabilities of the communities in their regions and of themselves. By doing so, this project ultimately aims to help the public institutions relocated to the innovation cities meet their mandatory local hire rate of 30% by the year 2022. This is to support the regional government offices, universities, and public institutions to create a consortium to analyze their own capabilities and characterizations so that they can collaboratively develop a joint operation model. Especially, the project will allow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to take the lead in creating a cooperative network among the "regional industries, universities, research centers, and public institutions." This is also to help the autonomous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play a matchmaker between the regional universities and public institutions so that the first can produce quality talents whom the latter can employ.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of promoting the leading regional universities is to jointly foster local talents and support them to find jobs and settle down in their regions. Its objective is also to establish the system of producing quality manpower tailored for the regional demands through cooperation among the local universities, autonomous government offices, public institutions, and industries. To make this possible, all participants of such



민병익
경상대학교 기획처장
Min Byeongik
Director of Plann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nsortiums are expected to assume the following roles. The regional universities will push forward the cooperative coalition to grow together with other universities; design and operate customized educational curricula such as convergence majors suitable for the manpower demand of the public institutions and industries in their regions; and offer separate tracks in these particular fields. The local public institutions and industries will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job qualification of the required manpower to the regional universities; offer opportunities of field practicums; and support these universities by having their previous and current officers to work as faculty members at these schools. The local self-governing bodies will recommend the direction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ssistance (manpower support and project fund match) to supply quality talents; measures to develop the regional autonomous government offices; and collaboration of joint projects in their provinces.

To briefly summarize, the structure and plan of the regional consortiums led by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re as follows. Under the vision of “fostering trans-convergence public talents to establish an ecosystem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consortium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s planning to establish itself to produce quality talents; develop and operate the convergence curricula; support higher education customized for such demands; and assist lifelong education courses for the mutual survival and development in its province. The consortium of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is designing its software convergence curricula and extracurricular programs specifically made to meet the demands of the public fields; customized classes for public institutions; specialized courses for industries; and seminars to strengthen its provincial network of the “industries, universities, and government offices.”

To foster regional talents with its five main educational programs, the consortium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s planning to create the convergence majors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electric power energy, industry management support, test analysis, etc.) tailored for the demand of the relocated public institutions to strengthen the university’s support to promote quality talents and to help them find jobs; develop and operate extracurricular programs specifically made for such purposes; and provide NCS basic programs. Likewise, to offer extracurricular courses to increase employment capabilities, Busan National University is planning to mainly focus on “fostering quality talents customized for the demand of BRC(Busan Regional Consortium)” under the vision of “the balance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promoting innovative talents and creating an ecosystem for innovative growth of the metropolitan Busan area.” With its plan to establish a system of the virtuous circle to supply creative and innovative talents in the metro Busan area, the school will offer 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courses, team projects, training classes for employment, as well as programs to strengthen the field practicums. Through these plans, the Busan National University aims to implement the education programs specifically made to meet the demand of the public institutions and strategic industries in its reg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s honing into promoting talents of smart convergence, who will lead the regional communities in the fields such as those of energy, smart agriculture, urban revitalization, and ICT. By following its guideline to mutually

collaborate with its counterpart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establish a system to produce quality talents in its province by offering 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programs, expansion of field practicums, and customized educational courses. The consortium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ill also foster the quality experts in various fields by expanding the educational program designed for its demonstrative coursework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life science to those of research technology financing, electric safety, and space. The goal of Jeju National University’s consortium is to “promote great talents tailored for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plans to create a track customized for public institutions connecting to industry convergence; offer characterized training seminars for specific job duties; and provide extracurricular programs to assist employment.

Through its provincial network of “universities, autonomous government offices, public institutions, and industries,” th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nsortium plans to create coalition under the theme of “promoting talents of convergence customized for the demand in the leading sit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province. With its vision of “jointly fostering quality talents tailored for the regional communities of Chungbuk Innovation City 2.0!”, the consortium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ill also supply human resources of public service ICT, policy analysis, gas and energy safety, as well as food tasting tourism through establishing the regional network of “universities, autonomous government offices, public institutions, and industries.”

The decrease of school aged population and the increase of “brain drain” phenomena in the regions outside the metropolitan Seoul area have significantly been exacerbating the risks of diminishing regional capabilities caused by the ongoing provincial recessions. Until recently, various investments were made as measures to overcome such risks of these provinces, yet critiques have pointed out that such efforts generated insufficient impacts on fostering quality talents and improving the provincial economies since these attempts were carried out segmentally by department or by project. In response to this evaluation, a need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autonomous governance is being raised. Since the self-governing bodies, universities, and industries are the key subjects of the very innovation in each region, such governance should be centered around the respective province where these key subjects could all come together to cooperatively form their own coalition. In this aspect, the project of fostering the leading regional universities is the collaborative model of the governance system among the regional autonomous government offices, universities, industries, and public institutions.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now need to work together with one another more than ever before to jointly establish a so-called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by building such governance system.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정부출연연구소를 거점 국립대학과 공동운영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거점 국립대 정책이 필요하다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김상동
경북대학교 총장
Kim, Sang-Dong
Presid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은 고등 교육이 국가발전에 큰 바탕이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립대는 국가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국립대는 국가 균형 발전 및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의 역할까지 더해진다. 우리나라에는 41개의 국립대가 있다. 각각의 국립대는 기초학문 육성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의 균형 발전 및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지역에 직접적으로 환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와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교했고, 국가의 혁신적인 발전을 수행하는 전초 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거점 국립대가 나아갈 길이 분명해 보인다. 거점 국립대라 칭해지는 국립대는 통상 병원이 함께 설립되어 있고, 70여 년 전에 개교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거점’의 역할은 지금 이 시대에 유독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다. 최근 유네스코에 의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시대의 ‘서원’은 학업과 과거 합격이 주목적인 성균관이나 향교와 기능이 달랐다. 서원은 유학 성현들을 모시고 향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수행했지만, 지역민을 계도하는 교육기능을 넘어서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학문을 연구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개척한 서원의 역할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합학문 탐구와 인재양성 기능을 갖고 있

는 거점 국립대학은 국가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과 연구의 산업화 요구에 부응하는 것 역시 현재 대학의 책무이다.

많은 국외의 저명대학과 연구기관의 목표는 최첨단 연구와 혁신적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를 선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류의 삶을 향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거점 국립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세계를 앞서가는 전략을 깊이 생각하고 있지만, 전략 수행방법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세계 곳곳에서 수행되는 연구와 교육방식을 앞서가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다양한 전공에 바탕을 둔 융합연구와 그 연구를 기본으로 하는 혁신 교육도양을 갖춘 거점 국립대의 자원 활용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등 교육기관은 학생들을 받아들여 각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시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이다. 혁신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교육과정의 개발은 운영의 주체가 되는 교수 개인의 역량에 있다고 본다. 교수의 역량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많은 경험에서 나온다. 그런 경험이 교육과정과 수업 방법에 녹아 들어가야 교육혁신이 이뤄진다. 이런 교육혁신을 위해 정부는 국립대학에 특히 거점 국립대학에 교육기관 이상의 기능을 부여하여야 혁신 인재양성 교육이 수반된다고 믿는다. 주요 선진국은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국가의 발전 책무를 견인하기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주요 대학의 연구

와 연구 결과가 산업화 기능을 정책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처한 국내 상황은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정부출연연구소와 특수목적과학기술대학에 첨단 산업화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목적을 두고 운용해 왔지만, 오히려 현재 원천기술연구개발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했다. 이런 상황과 국외 의존 원천기술연구를 탈피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소를 거점 국립대학과 공동운영하고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거점 국립대 정책이 필요하다. 거점 국립대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세계적 연구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학을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역할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과학기술원처럼 전임교원 강의 시간을 매주 3시간 이상으로 두는 것은 아니더라도, 거점 국립대학의 강의 시수 경감을 고등교육법에 명문화하여 거점 국립대 역할을 연구중심대학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이런 법제화는 필연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명문대학과 연구 분야에서의 격차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소규모 강의를 정책적으로 늘려야 한다. 소규모 강의는 학생들의 사고력과 발표력 등에서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의 또 다른 효과는 학문 후속세대라 불리는 비전임 교원에게 강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접하는 것이다.

대학에 교육 기능만 강조함으로써 거점 대학이 지자체와 국가의 산업발전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지금까지 방향이었다. 대학의 역할은 체계적이지 못했다. 체계적 역할을 위하여 거점 국립대학은 지역의 산업발전과 문화 창달을 주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거점 국립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이 지역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인지하는 사실이다. 연구기술 분권의 주체로서 거점 국립대학의 플랫폼 역할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완성해 나가는 방법이 된다. 정부 정책은 대학의 연구와 인재양성이 지역의 산업화 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기술자립 그리고 독립을 이루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The saying that "University competitiveness is national competitiveness" underlines that higher education is an important foundation for national development. In particular, government-funded national universities are obliged to contribute to the nation's development. On top of this, national universities take on the additional role of being a hub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innovative growth. There are 41 national universities in South Korea. Each national university is doing its best to foster basic studies and ensur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But this is not enough. In order to perform its proper role as a hub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innovation in the nation, it becomes necessary to support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as well as redirecting the resources held by universities to the region. From this point of view, it seems clear that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which were opened with the goal of fostering the national and regional young talent, and which have faithfully played the role of an outpost for the nation's innovative development, will move forward. Some things thes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ave in common are that they were opened 73 years ago, and each one was established with a partner hospital.

The role of "Being Flagship" was not particularly required in this era. The Joseon Dynasty's "Seowon," which was recently designated as a cultural heritage site by UNESCO, was different in function from Sungkyunkwan or Hyanggyo (the Confucian temple and school) whose main purpose was to study and pass national exams. Although Seowon played a role in honoring academic sages and maintaining the order of the villages, it was also in charge of academic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the country beyond the educational function of guiding the local people. As the role of Seowon, which pioneered the difficult situations of the times, has show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hat adapt comprehensive academic exploration and talent cultivation functions are the only institutions that can thrive in the difficult environment of the nation. It is also incumbent on universities to meet the needs of fostering talent and industrializing research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goal of many prestigiou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outside the country is to develop the nation in a leading way and improve the lives of mankind through cutting-edge research and innovat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same is true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But it's not an easy

road. People are thinking deeply about a strategy to put ourselves in a leading position in the world. But if the method of carrying out this strategy is not efficient, it will be a long way from being ahead of the current research and education conducted around the world.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way to overcome this depends on the resource utilization of the regional hub national universities, which have a convergence study model based on various majors and an innovative education soil based on research.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accept students and educate them to become talented in various areas of society. The important thing here is the curriculum. Development of a curriculum that requires innovation and creativity lies in the ability of the given faculty, the main driver of the curriculum operation. Professors' competence comes from the experience they gained in conducting creative and innovative research. Only when such experience is incorporated into the curriculum and the resulting method of teaching is utilized, can education innovation be achieved. For such educational innovation, the government should impose functions on national universities, especially on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more than mere educational institutions to expect innovative talent cultivation. In many advanced countries, the research results of major universities strategically undertake the industrialization function in order to promote regional industries and to drive the country's development responsibilities.

The current domestic situation we face requires us to focus our energy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to original technology. So far, the government has operated o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for special purposed science and technology with the aim of developing and commercializing advanced industrialization technologies, but it has not exceeded the limi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original technologies at present. In order to escape this situation and the study of the original technology that relies on foreign countries,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should be jointly operated with the hub national universities, and the policies of the hub national universities to strengthen its research function.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hub national university should be readjusted.

In order for u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competition of global research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role of national

universities as research-oriented and education-oriented universities. Although full-time teaching hours are not allowed to be more than three hours a week, like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role of the hub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be transformed into being research-oriented by stipulating as such in the Higher Education Act that relieves the time of lectures at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uch legislation will inevitably be a way to gradually reduce the gap of research competitiveness with prestigious universities in highly advanced countries. In addition, small-scale lectures should be increased as a policy. Small-scale lectures will bring about dramatic improvements in students' thinking and speaking skills. Another effect of this will be to provide more teaching opportunities for non full-time lecturers, the subsequent generations of academics, and to help students gain access to a wider variety of subjects.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o far have responded passively to th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due to policies emphasizing only the function of education. The role of the university has not been systematic. To develop a systematic rol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serve as a platform leading the development of local industries and cultural development. It is a known fact that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leads to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local industry. As the main body of research and technology decentralizes, the platform role of hub national universities serves as a way to complet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Government policy should be changed to ensure tha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universities and talents achieve innovative development, technological independence, and independence from local industrialization technology.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2019년도 3차 협의회 개최

The 3rd Meeting of the 2019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eld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2019년 3차 협의회를 8월 9일 오후 전라북도 무주군 호텔 티롤(Hotel Tiro)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학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관련 보고 ▲거점 국립대 국제화를 위한 계절학기 및 국제 여름학교 영어강의 공동운영 방안 ▲리모델링 사업 전용 대체 공간 지원 요청 ▲국립대학법인 비과세 세법 개정 건의 등의 안건을 다루었다.

총장협의회는 대학 ISMS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SMS를 교육부의 '정보보호수준진단'으로 대체하고, 국립대학은 정보보호수준진단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ISMS 의무인증 대상기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거점 국립대 국제화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외국어 강의를 가능한 강사교류 및 관련 정보 공유 등 각 대학 국제교류본부장 협의체에서 실행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사업 전용 대체 공간 지원과 관련, 국립대의 경우 시설의 신축·증축 사업이 배제되고 리모델링(개축) 사업이 증가하는바, 교수연구실·행정실·공용공간 등은 대체 공간을 신축함으로써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국립대학법인 비과세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근거 법령(법인화법)이 기존 국립대학 지위의 포괄 승계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세법상 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로서, 관련 세법에 국립대학법인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국립대학에서의 세제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In the afternoon of August 9th, the 2019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P Korea NU10) held its third meeting at Hotel Tiro in Muju-gun, Jeollabuk-do.

The meeting's agenda included ▲a report on the university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measures to jointly provide programs of the seasonal semesters and English courses of the international summer school for globalization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orea NU10) ▲a request of assistance for alternative space while remodeling ▲suggestion on the legal amendment on the tax exempt status of the incorporated national universities.

Regarding the university ISMS, the CP Korea NU10 recommended that the Science and ICT Ministry's ISMS be replaced with the Education Ministry's "ISMS level diagnosis." Since the national universities have been implementing the ISMS level diagnosis, the CP Korea NU10 decided to request that Science and ICT Ministry exclude the Korea NU10s from the list of the organizations subject to its mandatory certification.

As for globalization of Korea NU10s, the council decided to have the coalition of Korea NU10s' international exchange department heads seek methods to implement sharing information and exchanging university instructors who can lecture in foreign languages.

With regards to support for alternative space while remodeling, the national universities tend to avoid new construction or extension but to prefer remodeling. Thus, newly built alternative space is required for the facilities currently being used by professors, administrators, or both faculty and staff. While remodeling is in progress, Korea NU10s requested that these individuals be able to continue to use such alternative space.

On the issue of the legal amendment on tax exempt status of the incorporated national universities, the base legal statute of the incorporated national universities prescribes general succession of the pre-existing national university status. Nonetheless, the separate tax laws have not been accompanied in practice. The status of the incorporated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be clearly set forth as that of tax exemption in all related tax laws respectively. CP NU10 proposed that the national universities be able to keep its pre-existing tax status.



대학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관련 보고



계절학기 및 여름학교 영어강의 공동운영



리모델링 사업 전용 대체 공간 신축



국립대학법인 비과세 세법 개정 건의

거점 국립대 세계대학평가 공동 심포지엄 개최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eld a Joint Symposium on World University Evaluation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전북 무주군 호텔 티롤에서 'K-NU9 세계대학평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거점 국립대(K-NU9; Korea-National University 9)의 세계대학평가 지표 향상과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THE'의 데이터분석 전문가를 초빙해 거점 국립대의 교육·연구 등 모든 분야의 보완할 점을 검토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에는 총장협의회 회원과 총장, 대학별 평가 관련 보직자·부서장·담당자, 평가업무 유관 교직원, 세계 대학 평가 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총장협의회는 7월 4일 영국 런던 THE 본사에서 거점 국립대(K-NU9)와 THE 간 공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협정에서 양측은 ▲K-NU9 심포지엄 등 각종 회담을 통한 소통 증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광고·홍보 방안 수립 ▲세계 대학평가 순위 향상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에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8월 9일 열리는 심포지엄은 이 협정에 따른 것이다.

이상경 총장협의회 회장은 "거점 국립대와 THE의 공동 심포지엄은 대학 역량 강화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신적인 창의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NU9 심포지엄 등
각종 회담을 통한 소통 증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광고·홍보 방안 수립



세계 대학평가
순위 향상을 위한 데이터 분석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eld a "K-NU9 Joint Symposium on World University Evaluation" at Hotel TiroL in Muju-gun, Jeollabuk-do on August 9th at 10 o'clock in the morning.

This symposium was provided to raise the world university evaluation index of the nin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NU9) and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by inviting an expert data analyst from Times Higher Education (THE). Participants examined K-NU9s' weak points throughout their education and research areas and discussed measures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More than 70 people attended this symposium, including the presidents from the members schools of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ppointees, department heads, and individuals in charge of duties associated with university evaluation; faculty and staff related to the evaluation; and representatives from THE, an organization of world university evaluation.

On July 4th,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executed an MOU between K-NU9s and THE for their joint collaboration at the headquarters of THE in London, United Kingdom. In this MOU, the both parties agreed to ▲increase communication through various conferences including K-NU9 symposiums ▲establish methods of joint advertisements and promotions to strengthen university competitiveness of K-NU9s ▲mutually provide various support, such as data analyses, to raise the world university evaluation ranking of K-NU9s. This August 9th symposium was also held according to their MOU.

The Chairman of the 2019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ang-Gyeong Lee said, "I expect that the joint symposium of K-NU9 and THE will be a great help in strengthening the universities' capabilities and in establishing a system to foster creative and innovative talents who will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거점 국립대 공동 대입설명회 개최



A Joint Presentation on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Admissions Held

A joint presentation on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admissions was held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on July 15th and again at Coex in Seoul from August 9th to 10th to recruit new students for their 2020 rolling admissions.

This university admission presentation was collaboratively sponsored by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o provide various information on their admission processes. Also, it was to strengthen and promote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by focusing on demand for university education, namely prospective applicants. In addition, it was to boost applicants' preference for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nd to expand their base to secure quality talents. This presentation was jointly made by nine schools: Kangwon, Kyungpook, Gyeongsang, Pusan, Chonnam, Jeonbuk, Jeju, Chungnam and Chungbuk National Universities.

The first one of such admission presentation jointly sponsored by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was held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on July 25, 2018. These schools are the top national universities representing each region outside the metropolitan Seoul area, who play the essential role of regional development by creating and providing knowledge and by producing quality talents who will lead their city or provincial regions.

Especially,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require relatively low tuitions and offer various national scholarships so that students can focus more on their study. With their distinguished faculty members, these universities actively put forth the "industry and university cooperation" to lead development of regional industries. Their accumulated asset is also notable, including their network of alumni who excel in various fields of the Korean society. Not only do these advantages help students, but the quota system of regional talents and hiring expansion of public agencies and companies moving away from the metropolitan Seoul area also give a great opportunity for entering freshmen to achieve their dreams.

2020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을 위한 거점 국립대 공동 대입설명회가 7월 15일 전북대에서, 8월 9~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잇따라 열렸다.

이번 대입전형 설명회는 거점 국립대들이 연계하여 다양한 대입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수험생 등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점 국립대가 가진 특징·장점 홍보를 강화하여 거점 국립대학교의 선호도 향상 및 우수인재 유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대학이 참가했다.

거점 국립대 공동 대입전형 설명회는 2018년 7월 25일 부산대에서 처음 열렸다. 거점 국립대는 각 지방권역을 대표하는 제일의 국립대학들

로 각 지역을 이끌어 나갈 우수인재 배출과 지식 생산·제공으로 각 지역과 도시 발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거점 국립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등록금과 각종 국가장학금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교원과 지역산업과의 활발한 산학협력,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졸업 동문 등 축적된 거점 국립대의 자산, 그리고 지역인재 할당제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으로 신입생들이 큰 꿈을 펼칠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부담이 적은 등록금 & 각종 국가장학금



우수한 교원과 활발한 산학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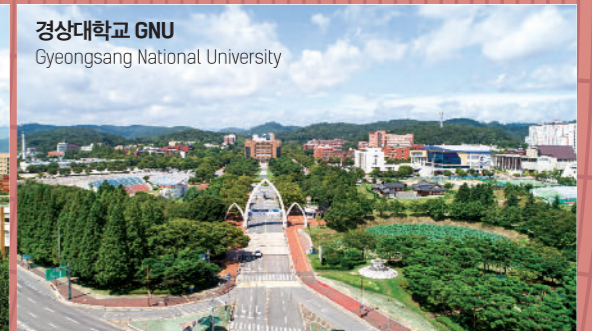
지역인재 할당제와 지역인재채용 확대



지역인재 배출을 통한 도시 발전 도모

회원대학 주요 이슈

Important Issues of Member Universities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 충남대학교

A Leading University of
Korea Leaping on to the
World Stag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www.cnu.ac.kr
www.facebook.com/CNUNOW



‘한국-이스라엘 대학총장 국제포럼’ 개최

충남대학교와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이 주관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가 주최한 ‘한국-이스라엘 총장 국제포럼(Korea-Israel University President International Forum)’이 7월 1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제포럼에 참석한 레우벤 리블린(Reuven Rivlin) 이스라엘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한국 대학과 이스라엘 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 오덕성 총장은 ‘Universities & Innovation Ecosystem’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거점 국립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생태계의 중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창조적 인재육성,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R&BD 지원, 지역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고등교육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The Planning and Budgeting Committee) 위원장인 야파 질베르샤츠(Yaffa Zilbershats) 교수는 ‘The Israeli Higher Education System’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이스라엘 고등교육시스템을 소개하고 첨단 분야의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충남대 오덕성 총장의 사회로 한국과 이스라엘 대학 총장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국제포럼에 이어 10개 국립대학, 11개 사립대학, 11개 이스라엘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주체로서 대학의 비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협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협의문은 ▲창의적이고 융·복합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스타트업 및 창업을 육성·지원하는 산학협력 실현 ▲산업의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재생 등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업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기업과 상호 연계된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날 국제포럼에 앞서 6개 대학(기관)과 이스라엘 5개 대학(기관)은 상호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특히, 충남대는 이스라엘 바르일란대학교(Bar-Ilan University)와 일반협정 및 학생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한국-이스라엘 대학(기관)은 학술교류 협정을 통한 상호 협력과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뜻을 함께했다.

‘Korea-Israel University President International Forum’

‘Korea-Israel University President International Forum’ arranged b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NU) and the Embassy of Israel in Seoul, and hosted by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y President Council was held at Grand Hyatt, Seoul on July 17th, 2019. Reuven RIVLIN, the Israeli President explained the importance of higher education system in opening speech and addressed that he would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Korea-Israel universities in various areas for cultivation of excellent individuals.

Dr. Deog-Seong Oh, the president of CNU emphasized that stronghold national university should play a central role as the innovative ecosyste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for which, we should support nurturing creative talented individuals, R&BD for the creation of social and economic value, revitalizing regions and sustainable growth in his keynote speech on ‘Universities & Innovation Ecosystem’. Professor Yaffa ZILBERSHATS, the Chairman of the Planning and Budgeting Committee introduced Israeli higher education system in his keynote speech on ‘The Israeli Higher Education System’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university role in cultivating excellent individuals in advancing fields and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After the keynote speeches, a comprehensive discussion was conducted by 6 Korea-Israel university presidents presided over by Deog-Seong Oh, the president of CNU.

Following the international forum, 10 national universities, 11 private universities and 11 Israeli universities announced the agreement that they will fulfill their vision and role as innovative agent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agreement contains the following four principles. Firstly, cultivation of excellent individuals who would lea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a creative education specialized in fusion and convergence. Secondly, realization of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to foster and support start-up business. Thirdly, collabo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developing industry, creating jobs and revitalizing regions. Lastly, endeavor to construct platform interconnect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local entrepreneur.

Before this forum, 6 Korean universities (institutions) and 5 Israeli universities (institutions) signed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mutual development. In particular, CNU signed MOU and MOA (Memorandum of Agreement) for student exchange with Bar-Ilan University, Israel. Korea-Israel universities (institutions) which have signed agreements joined together for mutual cooperation through academic exchange agreement and common effort to build innovative ecosystem.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충북대학교

A Dynamic Future that
We Will Open Togethe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ww.chungbuk.ac.kr
www.facebook.com/cbnu1

충북대, 미래 산업을 이끌 주역으로 도약!

스마트IT부품·시스템 및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에 앞장

충북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과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인재 양성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충북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충북 청주 강소연구 개발특구'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지역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교육·연구 기능을 새롭게 재편하고, 첨단 미래 산업을 이끌 융합형 인재 양성에 앞장선다. 강소연구 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강하게 연계된 자족형 소규모·고밀도 기술사업화 거점을 구축해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우수한 R&D역량을 갖춘 충북대가 기술핵심기관으로 참여하는 충북 청주 강소특구는 '스마트IT 부품·시스템'을 육성분야로 선정, 스마트전자부품, 스마트센서, 이동체통신시스템 등 세부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개신캠퍼스는 R&D(연구개발)지구로, 오창캠퍼스는 R&D(연구개발)특성화지구로 선정됐으며, 사업화지구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부를 지정받았다.

충북대는 산학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능형 반도체와 스마트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는 것은 물론, 2024년까지 특구 내 연구소기업 60여 개 설립과 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자율자동차 지역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오창 캠퍼스 일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차 지역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Chungbuk·Creative·Cooperative'의 의미를 내포한 충북대 오창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C-track'은 미래 자동차 산업 선도를 위한 창의 오픈형 이노베이션 협력단지 조성의 핵심 인프라로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과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친환경 자동차 중심의 도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안정성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심·야외·순환 구역 등 시험로와 시험동, 통합관제센터 등을 구축한다.

충북대는 스마트카연구센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성능시험장 운영 및 자율주행 기술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개발 인력과 실차 자율주행 플랫폼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충청북도는 자동차 부품에 필수적인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와 자동차 부품기업, 전기차 배터리 생산설비 등이 형성돼 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신산업 추진을 위한 산·학·연 기술협력 클러스터가 육성된 충북 오창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갈 주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CBNU Leads Future Industry!

A leader of Smart IT Parts & System and Self-driving Car Industries

CBNU has been playing a main role in training competent people, whom a local community need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CBNU was chosen for the projects of 'Chungbuk Cheongju Gangso R&D Special Zone' which led by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Self-driving car Regional Test Bed Building' which led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us CBNU will renew its education and research functions and take the initiative in training convergent and competent people to lead high-tech future industry.

The Gangso R&D Special Zone has been made for developing new technology, spreading R&D achievements, and promoting their commercialization. It tries to work as a platform of technology-based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by building a base for commercializing self-sufficient small-sized & high-density technologies, closely connected with a core technology institute which has advanced innovative capacity.

CBNU will participate in this project as a core technology institute based on its advanced R&D capacity. And the Ganso Special Zone will focus on 'smart IT parts and system' and try to develop smart electronic components, smart sensor,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etc. A Gaeshin campus was selected as a R&D zone, an Ochang campus as a R&D special zone, and part of Ochang high-tech industrial complex as a commercialization zone.

Based on the successful experiences in various fields through clos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CBNU will lead intelligent semi-conductor and smart energy research. And it will also try to achieve its goal, that is establishing about 60 enterprise institutes and creating job openings for about 400 people in the Special Zone by 2024.

In addition, CBNU was selected for a project of establishing a self-driving car regional test bed for the first time nationwide. Therefore, it will establish the test bed for environmentally-friendly self-driving service around Ochang campus area.

The test bed 'C-track' which includes the meaning of Chungbuk·Creative·Cooperative, is a key infrastructure to establish a creative and flexible innovation complex and it helps to seize the initiative of future auto industry. It will have test roads, test buildings, an integrated control center, etc. at various situations like downtown, outdoor, and circuit districts. It will cooperate with medium and small-sized companies, venture businesses, universities and colleges, research institutes, etc. and give them stability test services on self-driving technology.

Based on its smart car research center, CBNU operates a self-driving car test site and performs national R&D projects of self-driving technology. So it has a R&D pool, a self-driving platform for real cars, and the related technologies. And Chungcheongbuk-do has a system semi-conduct infrastructure, which is necessary for auto parts, auto parts companies, production facilities for electric car batteries, etc. These conditions can make effective business promotion possible. Therefore, at Ochang, Chungbuk, which has a technology cooperation cluster of industry, school, and research for promoting new industry, CBNU will be able to establish a firm and stable base to be a leader of future auto industry.



1. 자율주행차 연구 학생
The research student of driverless cars
2. 자율주행자동차 지역 테스트베드 구상도
The diagram of a self-driving car testbed
3. 강소특구 위치도(출처-충청북도 공식 블로그)
The diagram of Gangso R&D special zone
(Source-Chungcheongbuk-do Official blog)



통일한국의 중심대학 강원대학교

The Hub University
of the Unified Kore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ww.kangwon.ac.kr
www.facebook.com/knu.abs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DMZ 평화 국토대장정」 완주

‘통일한국의 중심대학’ 강원대학교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DMZ 평화 국토대장정」을 개최했다.

이번 국토대장정에는 김현영 총장과 조준형 대외협력부총장, 이주경 학생처장 등 주요 보직교수를 비롯한 교직원 39명과 학생 49명 등 총 88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철원군 백마고지부터 화천 평화의댐, 양구 두타연 등을 거쳐 고성군 통일전망대와 남북출입국사무소까지 강원도 내 DMZ 접경지역 4개 지자체 안 보유적지 등을 찾으며 총 600여km 구간을 가로질렀다.

특히, 참가자들은 첫날부터 폭염경보가 내릴 정도의 무더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몰아치는 날씨 속에서도 깨끗하게 한 명의 낙오자 없이 힘든 여정을 완주했다.

이번 국토대장정에 참가한 심우민 학생(문화인류학과 2학년)은 “폭염경보가 내릴 정도의 무더위와 소나기까지 내리는 와중에도 함께 참여한 친구들 덕분에 힘이 났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교를 벗어나 자연과 사람, 통일에 대해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준 총학생회장(통계학과 4학년)은 “무더위 속에서 땀을 쏟아내고 빗속을 걸을 땀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나 혼자만 나 혼자 아닌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걷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총학생회장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인생에 큰 이정표를 새길 수 있어서 기쁘다”고 웃어보였다.

특히, 강원대는 이번 국토대장정 기간 동안 대원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 역량을 키우고, 화합과 소통을 다지기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열어 의미를 더했다. 첫째 날인 13일과 둘째 날 14일에는 탐방일정을 마친 뒤 「통일한국을 대비한 강원대 학생으로서의 역할과 준비」라는 주제로 정지석 국경선 평화학교 대표와 김창환 교수(강원대 DMZ HELP센터장)가 각각 특강을 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토대장정 대원들은 자신들이 걸었던 DMZ의 의미를 되새기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소통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국토대장정을 이끈 이주경 학생처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완주해준 참가 대원들 모두 정말 수고 많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국토대장정의 값진 경험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영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소양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전정신인데, 그런 의미에서 국토대장정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미 나름의 성취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며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DMZ를 걸으며 느꼈던 생각들을 간직해 평화와 통일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는 데 앞장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DMZ Peace Road Korea” Race, Longing for Peaceful Reunifi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lso called the Central University of the Unified Korea, held a “DMZ Peace Road Korea” race longing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lasted for 3 nights and 4 days from August 13th (Tuesday) to 16th (Friday).

A total of 88 athletes including President Kim Heonyoung, Vice President of Overseas Cooperation Cho Joonhyeong, Dean of Student Affairs Lee Joogyong, 36 faculty processors and 49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year’s race.

The participants crossed the road that stretches around 600km, visiting 4 historical sites for national security near the DMZ border within Gangwondo; from Baengmagoji in Cheolwon-gun, the Peace Dam in Hwacheon, Dutayeon in Yanggu to Unification Observatory and Inter-Korea Transit Office in Goseong-gun.

The runners continued the race with a smile under the extreme heat wave on the first day and even when they encountered a sudden shower, not a single person dropped out from the race and finished a long, arduous journey.

Shim Woomin (Sophomore at the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who took part in the peace race gave a brief remark of the event. “We were under this scorching sun and it seemed natural to have a heat wave alert. At times, it showered, but we encouraged each other to finish the race. Although it was a short period of time, it was valuable because I could think about nature, people and reunification outside the school boundary.”

The student council president, Lee Sangjoon (Senior at the Department of Statistics) said, “My body felt heavy and sluggish when

walking under the hot sun and sudden rain, but it was meaningful because we all cherished for reunification; we were not alone.” He smiled and continued. “At times, the heat was intolerable, but I am pleased that I could engrave a large life milestone both personally and as school council president.”

KNU also organized programs to develop interest, strong will and competence in relation to reunification and to strengthen harmony and communication during the peace race, enhancing significantly the event.

On the first and second day after the scheduled visits, the president of Border Peace School (BPS) and Professor Kim Changhwan (Executive Director of KNU DMZ Help Center) gave a special lecture with the following theme: The Roles of KNU Students and Preparations to Make for the Unified Korea. The participants revived the meaning of the DMZ that they just visited and had a free discussion over what they thought about reunification.

The Dean of Student Affairs, Lee Joogyong, who led the peace race said, “I am grateful for all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peace race in such a hot weather and I am really proud of you. I truly hope that this invaluable experience will act as nourishment for you to continue challenging yourself and never give up.”

President Kim Heonyoung explained. “The spirit of challenge is necessar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at sense,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eace race might have accomplished something of their own. I look forward to your future rewriting the history of peace and reunification that you had thought of while walking along DMZ which reveals the tragic division of the country.”



세계를 주도하는 첨성인, 미래를 선도하는 경북대학교

Creating New Trends and
Setting New Standard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ww.knu.ac.kr

www.facebook.com/knustory



경북대, 학부모 대상 대학생활 설명회 개최

“학사일정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어 무척 좋았습니다.”
“아이들의 심리점검을 하고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듣고 무척 안심이 됐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강을 앞둔 8월 21일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효석홀에는 300명이 넘는 학부모로 가득 찼다.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온라인을 통해 참석 접수를 받은 결과 학부모 375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IT대학이 17.1%, 공과대학이 16.3% 등의 비율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부처장들이 직접 경북대의 성과와 강점 그리고 재학생들의 대학 생활과 진로 등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또 사전 접수 시 받은 질의서를 바탕으로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각 부처별 실무자들도 함께 자리해 설명회 중간중간 나오는 학부모들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취업자, 지역인재 7급 공무원 합격자 그리고 국제화 프로그램 참여자가 생생한 체험담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연사로 나선 동문과 재학생은 직접 만든 PPT로 발표를 진행하며, 학부모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냈다.

특히 교환학생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해외에서의 생활이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지만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는 재학생의 의견에 많은 학부모들이 수긍했다.

모든 발표 후에 개별 질의를 할 수 있는 부처별 부스를 마련한 경북대는 종료 예상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마지막 학부모까지 상담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참가한 학부모들은 “대학생인 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무척 깊어졌다”며 행사에 만족을 표했다. 경북대는 학부모들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고 난 뒤 궁금한 점은 많지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 대학과 학부모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 행사를 기획했다.

경북대는 이번 설명회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더욱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lds a University Life Information Session for Parents

“It was great to hear about the academic schedule and so on.”

“I was very relieved to hear that there were programs such as psychological checkups and counsel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eld a University Life Information Session for Parents of Students. Right before the start of the new semester on August 21, the Global Plaza Hyo Seok Hall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as filled with more than 300 parents. After receiving applications online for eight days from July 24-31, 375 parents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The College of IT Engineering had a 17.1 percent attendance rate and the College of Engineering 16.3.

At the event, the administrative Vice Deans personally presented the achievements and strengths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d the careers of its students by showing detailed data. Also, intensive guidance was given on what parents were most curious about based on the questionnaire they were given in advance. Working-level officials from each department also offered immediate answers to questions

from parents on site during a Q&A session.

Those employed in public institutions, those who passed the grade 7 civil service test through local talent program, and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program delivered their experiences as well. The alumni and students lecturers conducted the presentation with their own Powerpoint Presentation and won over the hearts of many parents. In particular, many parents agreed with the student opinion that life abroad was worth the challenge, although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and risks.

The information session was followed by time at an assortment of booths for each department to allow parents to ask individual questions even though the expected closing time had well passed. Parents said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event, saying they had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ir childre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signed this event to provide a venue for communication with universities and parents, considering that parents have many questions once their children go to college, but lack resources to resolve th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ev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make an effort to become a more loving and proud university for its students and their parents.





미래가 있는 대학, 다 함께 행복한 대학 SMART GNU 경상대학교

The University with a
Promising Future and Full of
Happiness! SMART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ww.gnu.ac.kr
www.facebook.com/likegnu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술핵심기관’ 지정 기술-창업-성장 선순환... 글로벌 항공우주 생태계 조성

경상대학교를 ‘항공우주 부품·소재 분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는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신규 지정됐다.

강소연구개발특구란, 대학·병원·공기업 중 R&D 보유 역량의 우수성을 검증받은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집적화된 소규모 공간 범위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연구기관·대학 등의 연구개발 촉진과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고 R&D 성과물의 사업화를 통해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 촉진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참여 기관은 기술핵심기관인 경상대를 비롯해 진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과 정촌산업단지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등이다. 경상대와 진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정촌면 일대에 조성 중인 항공국가산업단지를 특구 배후공간으로 하고 있다.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는 올해부터 매년 국가보조금과 지방비 매칭을 지원하여 항공우주 부품·소재 산업 기술이전 및 상용화 지원, 연구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특허·인증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경상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항공기계시스템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집중 육성해 왔다. 교육부의 1단계·2단계 두뇌한국(BK)21, 두뇌한국(BK)21 플러스, 공동연구센터(DRC)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항공임베디드 SW연구센터 등의 사업을 통해 항공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에 매진해 왔다.

또한 경상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공동으로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을 설립·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7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ERC)’에 선정돼 원천·응용연구연계가 가능한 고효율·안전 항공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상경 총장은 “기술핵심기관인 경상대는 유망기술 발굴, R&D, 인력양성을 통해 기술이전과 취업·창업 등 산학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2024년까지 강소특구를 통해 기업 270여 개 유치, 고용 창출 1,099명, 매출 증대 901억 원 등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생산 유발효과 1조 4,446억 원, 고용유발효과 7,123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signated as the “Technology Core Center” of the Jinju InnoTown

Creating the Global Aerospace Ecosystem with a Virtuous Cycle of Technology-Venture-Growth

The city of Jinju in the province of South Gyeongsang was newly designated as an InnoTown wher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was selected as its technology core center in “the field of aerospace parts and materials.”

An InnoTown is a small integrated zone centered around a designated core organization selected from universities, hospitals, or public companies whose R&D capability and quality have been verified. This special zone designated as an InnoTown aims to accelerate R&D of research centers and universities as well as to vitalize their mutual cooperation. It also aims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to accelerate the advancement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n each region by commercializing R&D outcomes.

Participating organizations in the Jinju InnoTown include Korea Testing Laboratory which was a public research center prior to the Jinju Innovation City; Korea Institute of Ceramic Engineering and Technology; Korea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Jinju Roots Technical Support Center) located in the Jeongchon Industrial Complex; in addition to GNU, the technology core center of the newly designated zone. The backdrop of this special zone is the Aviatio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currently being built in the vicinity of GNU, the cluster lot of “industry-university-institute” collaboration in Jinju Innovation City, and Jeongchon-myeon.

Starting from this year, the national government will provide its annual financial assistance and match the local fund for the InnoTowns. These special zones will carry out various support projects to transfer and commercialize technology of the aerospace parts and material industry; help small research enterprises; foster professional manpower; and assist application of patent and certification.

Since the mid-1990s, GNU has focused on fostering the aeromechanical system as the field of its characterization. It has striven to develop and foster expert technology and manpower in this field through various measures including the first and second phases of Brain Korea 21, Brain Korea 21 Plus, as well as the Degree and Research Center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addition to Korea Aviation Embedded Software Research Center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reover, GNU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its Aerospace Characterization Graduate School together with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nd Korea Aerospace Industries. In 2017, GNU was selected as the “Engineering Research Center of Aviation Core Technology”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GNU has put spurs into development of highly efficient and safe aviation core technology that can be linked to source and applied research.

The GNU President Sang-Gyeong Lee said, “GNU, the technology core center, will do its best to further vitalize ‘industry-education cooperation’ in technology transfer, employment, and venture by identifying prospective technology, advancing R&D, and fostering talents.” With its InnoTowns,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South Gyeongsang looks forward to direct and indirect economic ripple effects such as bringing 270 companies, creating 1099 jobs, and reaching a sales increase of 90 billion Won in the region by the year 2024. It also hopes for subsequent effects on production of 1.4 trillion Won and employment of 7,123 workers triggered by invigorating the economy of South Gyeongsang.





학생의 미래가 있는 대학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 부산대학교

A University Guided by
the Future of Students, A University
Loved by the People
**Pusan
National University**



www.pusan.ac.kr
www.facebook.com/PusanNationalUni

부산대, 세계 고등교육 도약 위한 국제 교류·협력 견인 한·중대학, 세계대학 총장포럼 등 각종 국제행사 잇달아 개최

세계 대학 총장단 등 국제사회 교육계 인사들이 지난 7월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의 부산을 대거 방문했다.

부산대는 7월 1일부터 「제11회 한·중대학 총장포럼」(7.1~7.2.)을 시작으로 「통일 통합공동심포지엄」(7.3.), 「세계대학 총장포럼」(7.10.) 등 세계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국제적 교류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각종 국제행사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학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 세계에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자 모인 50여 명의 세계 각국 대학 총장단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제11회 한·중대학 총장포럼」 한·중 함께 고등교육의 길 모색

지난 7월 1일과 2일 이틀간 부산대가 주최한 「제11회 한·중대학 총장포럼」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대학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청사진을 그려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글로벌 시대 한·중 고등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27개 한국대학 총장과 12개 중국대학 총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동북아 커뮤니티 구축’, ‘통일시대 대비 한·중대학의 역할’ 등 격동하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국과 중국 양국의 고등교육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그려보는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1995년 ‘한·중교육교류약정’이 체결된 이래 한국과 중국이 매년 번갈아 개최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부산대는 학술행사뿐만 아니라 한·중대학 총장단을 부산대 캠퍼스로 초청해 투어를 실시하고, 클래식과 한국전통음악 등 부산대 학생들의 공연을 마련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제7회 세계대학 총장포럼」 국제 교류·협력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이어 7월 10일에는 「세계대학 총장포럼」이 부산대 상남국제회관에서 열렸다. 「세계대학 총장포럼」은 현 대학 교육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고 국제적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성공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60여 개국 120여 명의 대학 총장 및 교육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행사는 전 세계 대학 총장들에게 국내 최초의 종합국립대학이자 민주화와 산업화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여정을 함께한 부산대를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양성과 대학교육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포럼은 ‘글로벌 인재의 성공적 마인드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시대의 인재양성에 필요한 교육의 방향성과 인성 교육의 역할과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7월 3일에는 「인천대통일통합연구원-연변대-거점국립대공동심포지엄(통일통합공동심포지엄)」도 부산대 상남국제회관에서 열렸다. 공동 심포지엄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 통일통합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PNU Drives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for the Advancement of World Higher Education

It holds various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the Korea-China University Presidents Forum and the World University Presidents Forum

In July, a number of important academic officials, including university presidents from around the world, visited Busan, South Korea to attend an international event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PNU).

Starting with the 11th Korea-China University Presidents Forum (July 1-2), a series of international events have been held at PNU to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around the world. These include the Unification & Integration Joint Symposium (July 3), and the World University Presidents Forum (July 10). The events were attended by more than 250 people, including about 50 university presidents from around the world. These officials gathered to promote changes that will encourage further development of universities and education.

The 11th Korea-China University President Forum Korea and China have joint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of higher education

The 11th Korea-China University Presidents Forum, hosted by PNU on July 1-2, was organized for South Korea and China to explore a cooperative blueprint for 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and education.

The theme of this forum was “The Future of Korea-China Higher Education in the Global Age.” It was attended by presidents of 27 Korean universities and high-ranking representatives from 12 Chinese universities. A variety of topic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were held on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such as “Building a Commun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Role of Korean and Chinese Universities in Preparation for the Era of Unification.” These discussions aimed to predict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and China in the midst of a turbulent global era.

Since the signing of the Korea-China Education Exchange Agreement in 1995, the forum has been held alternately by South Korea and China. This year’s event was more successful than ever. In addition to academic forums, PNU invited the presidents of Korean and Chinese universities to tour its campus, and PNU students performed classical music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to rousing responses from the forum participants.

The 7th World University President Forum The forum contributes to fostering global talent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On 10th July, the World University Presidents Forum was held at the Sangnam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of PNU. The Forum has been held annually since 2013 to examine problems in current university education, and to set the stage for meaningful changes through international networks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event aims to foster people with the right values and personality and share successful approaches to educational programs.

Attended by a total of 120 university presidents and education officials from 60 countries, the event was a chance to introduce PNU to university presidents from around the world. The South Korea’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integral to the course of modern Korean history, including the eras of democra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lso, PNU has become a venue to foster talent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share know-how in university education.

The forum was held with the theme: “Successful Education for the Minds of Global Talents.” Participants came to a consensus on the direction of education, the role of personality education and the need for introduction of personality education as necessities for fostering talent in the current era.

On 3rd July, INU-Yanbian University and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cooperatively held the Unification & Integration Joint Symposium at the Sangnam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at PNU. The joint symposium carries out joint research on establishing a sustainable system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Peninsula, and to address the unification integration tasks for the Korean Peninsula.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 서울대학교

A Community of Knowledge
and Creativ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www.snu.ac.kr
www.facebook.com/SeoulNationalUniversity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AI for All

한층 치열해지는 AI 주도권 쟁탈을 위한 국제 경쟁에 서울대학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AI 교육, 연구, 산학을 아우르는 국가 AI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서울대 AI위원회 발족이 그 일환이다.

AI는 대부분 학문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플랫폼)인 동시에 거의 모든 분야에 응용 가능하다. 서울대는 다양한 학문 분야를 넓게 아우르는 우수한 인재, 연구 환경과 AI를 결합시켜 획기적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AI 위원회는 'AI for All' 슬로건에 맞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지낸 최양희 공과대학 교수(위원장)를 주축으로 공학 분야를 포함해 의료, 인문, 사회, 경영, 법학, 예술 등 AI가 적용될 다양한 분야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이호수 전 SK텔레콤 사장과 벤처투자사 '캡스톤파트너스'의 송은강 대표 등 총 18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최양희 위원장은 "한국은 반도체나 의료, 보건 쪽에 이미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AI는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 연구, 산학이 협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와 낙성대 지역을 AI 관련 교육, 연구, 창업, 산학, 네트워크가 연계되는 대학 중심의 산업 생태계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나아가 서울대 AI밸리가 실리콘밸리처럼 한국 AI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 국내외 인재와 자금이 모여,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AI 연구원 설립

먼저 1단계(2019)에서 故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의 기부금으로 조성될 '해동AI기술원' 내에 서울대 AI연구원을 설립하고, AI에 관련된 서울대 교육, 연구, 산학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AI에 관련된 200명 이상의 서울대 교수진, 1,500명 이상의 대학원 연구진으로 구성된 AI연구원은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글로벌 연구진과의 협업, 스타트업 창업도 추진한다.

AI 밸리 조성

제2단계(2020~)에서는 서울대 캠퍼스와 인접한 낙성대 지역에 서울대와 협력하는 AI 연구, 산업 생태계 즉 AI 밸리를 조성한다. 서울대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 연구소, 투자·법률·마케팅 관련 회사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AI 글로벌 밸리 확장 조성

제3단계(2022~)에서는 추후 AI 에코시스템의 성장으로 낙성대 지역의 공간, 시설 부족 상황을 대비해 10만 평 규모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AI 글로벌 밸리'로 확장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

AI For All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 decided to step forward into the increasingly competitive international AI sector. To direct this initiative, the university created an AI council to coordinate developments in education, research, and cooperation with industry with respect to AI.

AI promises to revolutionize academic study and may find application to nearly all fields. The university seeks a breakthrough in development and growth, combining AI with existing talent and research environments across a wide range of disciplines.

Embodying the slogan "AI for All," 18 professors and experts from various fields with potential for AI-related development, such as engineering, medicine, the humanities, the social sciences, business administration, law, and art, including Lee Hosoo, a former president of SK Telecom, and Song Eunkang, Managing Partner at the venture investment company Capstone Partners.

Professor Choi Yanghee, chair of the committee, said, "Korea is already strong in semiconductor, medicine, and healthcare," adding, "Because AI is applicable to any field, we'll make sure to promote education, research, and academic-industry cooperation as we work."

President Oh Sejung of the university stated, "We plan to create an industrial ecosystem around the university to link AI-related education, research, startups, industries, and networks," explaining, "We'll develop Seoul National University AI Valley to serve as an AI innovation ecosystem where talents and funding from home and abroad can gather, free from regulation and full of entrepreneurship, like Silicon Valley."

Establish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I Institute

The first stage (2019) will s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I Institute established at Haedong AI Technology Institute, to be created from a donation by the late Kim Jungsik, Chairman of Dae Duck Electronics, to promote the university's AI-related education, research, and cooperation with industry. With 200 professors and 1,500 graduate-level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the AI Institute will collaborate with industry, engage in international research, and drive startup incubation.

Creation of AI Valley

During the second stage of the development of this project (2020-), AI Valley, an AI research and industrial ecosystem in Nakseongdae nea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campus, will be created for collaboration with the university. It will be designed to attract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ions, research centers, and investment, legal, and marketing companies, as well as housing intramural research cen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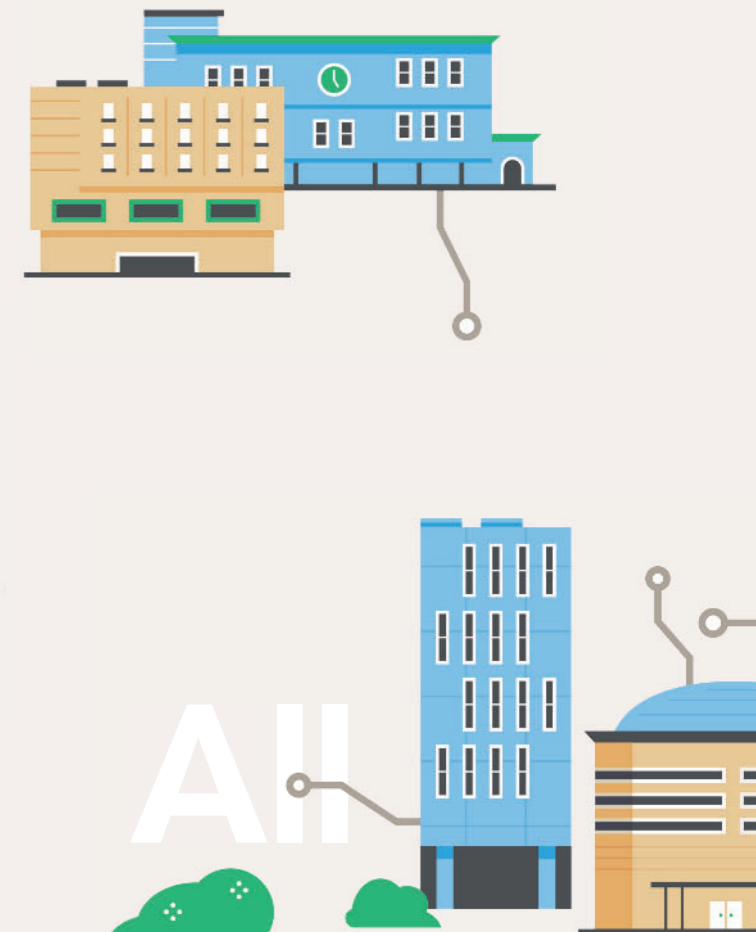
Expansion into AI Global Valley

During the third phase (2022-), AI Global Valley will be created by securing additional 330,000 square meters to prepare for the growth of the AI ecosystem in Nakseongdae and the resulting shortages of space and facilities.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명칭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개원 시기	2020년 봄학기
개설 과목	자율주행,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정원	석사과정 40명, 박사과정 15명





금지과 희망,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Pride & Hope, Cherish the Truth,
Enlighten the Worl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ww.jnu.ac.kr
www.facebook.com/ChonnamUniv

전남대, 기초과학 분야 국책사업 잇따라 선정

전남대학교가 기초과학 분야에서 대형 국책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150억 원 가량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되는 쾌거를 올렸다.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고정태 교수 연구팀이 선도연구센터사업 기초과학 분야(MRC)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7년간 10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연구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사업에 '경조직 바이오인터페이스 연구센터'의 이름으로 경조직 항상성 조절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질환의 예방, 진단치료를 위한 신개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에 나선다.

또 광주시와 (주)쿠보텍의 지원을 받아 경조직 질환 극복을 위한 실용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이로써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11년 바이오미네랄 장애연구센터에 이어 올해 또다시 경조직 바이오인터페이스 연구센터가 MRC 분야에 선정된데다 앞선 사업의 연구결과가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네이처'에 게재되는 등 정상급 연구역량을 과시하게 됐다.

고정태 교수는 "인체조직과 경조직 사이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경조직 질환의 새로운 병인과 제어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현대사회에 만연한 염증·대사질환 환자의 경조직 질환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융·복합 전문핵심 연구지원센터'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됐다.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은 대학의 유휴·저활용 연구장비를 연구분야별로 모아 성능을 보완하고 전담인력을 충원해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전남대 '에너지 융복합 전문핵심 연구지원센터'(Core Facility, 연구책임자 하준석 화학공학부 교수, 이하 핵심연구지원센터)는 4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올해 본 사업에까지 선정된 '핵심연구지원센터'는 앞으로 6년 동안 모두 38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분야에도 함께 선정돼 공동활용 장비의 운영과 더불어 연구역량 강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대 핵심연구지원센터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분야 연구 활성화 및 연구수요 증대에 대응하고자 초기 연구투자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핵심장비를 공동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구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조성됐다.

이에 따라 특화 연구분야 연구핵심장비 수요조사를 통해 장비사용료를 신규장비 도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유관연구분야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문핵심 연구지원체계 구축 및 선도형 원천기술 창의연구를 지원하는 등 연구기반을 다지게 된다.

센터 관계자는 "특화 연구분야 연구핵심장비 수요조사를 통해 장비사용료를 신규 장비 도입에 사용토록 해 유관 연구분야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문핵심 연구지원체계 구축과 선도형 원천기술 창의연구를 지원하는 등 연구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elected for Government Research Projects in Basic Sciences

CNU has been selected to participate in two large-scale national research projects in the field of basic sciences, receiving 15 billion KRW in government grants.

A CNU Research Team led by Professor Koh Jeongtae (School of Dentistry) has been selected for the Advanced Research Center Program's Medical Research Center (MRC) Project and will receive a total of 10.5 billion KRW in grants over the next seven years.

The Advanced Research Center Program is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Professor Koh's research team, the "Hard Tissue Biointerfaces Research Center," will conduct research concerning foundational proprietary technology, enhancing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hard tissue homeostasis and contributing to the prevention, the diagnosis, and the treatment of various diseases.

In addition, the research team will cooperate with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Kwotech, Inc. to commercialize the results that will foster development of treatments for hard tissue diseases.

CNU School of Dentistry, headed by its dean Professor Kim Byunggook, selected the Hard Tissue Biointerfaces Research Center to join the existing "Research Center for Biomineralization Disorders," which was selected as an MRC in 2011. The Biomineralization Research Center has published its research findings in world-renowned scientific journals including Nature.

Professor Koh stated, "The Hard Tissue Biointerfaces Research Center aims to clarify the interactions between soft and hard tissues, presenting new pathogenesis findings and a new control method related to hard tissue diseases. This is expected to bring about a completely new treatment method for hard tissue diseases found in patients with inflammations and metabolic disorders."

In addition to the above, the CNU's "Core Facility for Energy Convergence Research Team," whose principal research fellow is Professor Ha Junseok of the School of Chemical Engineering, has been selected a recipien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s "Support Program for the Advancement of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This program, implemented this year, aims to promote core technology support centers by creating a research ecosystem that shares idle research equipment, enhancing the capacity for efficient use by specialized workforces.

The CNU Core Facility for Energy Convergence Research was selected after four stages of scre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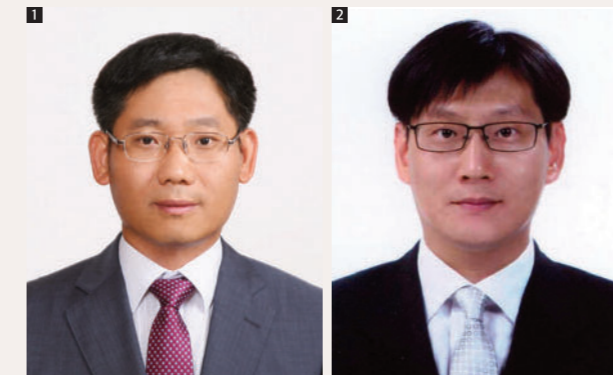
Having begun as a pilot project in 2018, the CNU Core Facility for Energy Convergence Research in its full operation will receive 38.5 billion KRW over six years. Its selection for the above research support project is expected to produce a synergistic effect, as efficient equipment sharing fosters improved research capacities for all participants.

The CNU Core Facility for Energy Convergence Research was established to foster research centers in the fields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and energy convergence, reducing initial costs through sharing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in order to meet the demands for new accomplishments in research.

The Core Facility will conduct basic research on equipment demand via surveys and advise research facilities to purchase only research equipment not available in the shared inventory. It is expected to create a friendly environment for research centers and efficiently build a fundamental and professional support system that will foster creative leading research in basic proprietary technologies.

A center official stated, "It will be beneficial for the research laboratories to use their equipment budgets only for new equipment, which is not available via the sharing system. This sharing system has been made possible by the surveys of core equipment usage within and across specific research fields. By enabling the sharing of equipment and facilities for research, this program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beneficial research ecosystem for related fields and creative research for source proprietary technologies."

1. 고정태 교수 Professor Koh Jeongtae
2. 하준석 교수 Professor Ha Junseok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 전북대학교

The Best Glocal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 산학협력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공로

전북대학교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장화영 팀장이 산학연 기술협력 유공자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전북대가 단체와 개인상을 모두 받는 겹경사를 누렸다. 시상식은 8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20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열렸다.

전북대의 이번 대통령 표창은 대학의 연구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산학협력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전북대는 1993년 현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의 전신인 산학연지역 컨소시엄센터 설치 이후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산학협력중점사업 호남권역 주관기관 선정, 연구마을지원사업 주관기관 2회 연속 선정,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호남-제주권역 주관기관 2회 연속 선정 등 다수의 협력과제를 수행하며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또한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우수기관 선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2회 연속),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등 대학 내 산학협력 체제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산학협력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최근 3년간 1,391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541건의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등 우수 연구 기반 사업 수행과 기술사업화 성과 확산을 위해 산학연 연계교육, 지원 사업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화영 팀장은 산학협력과 기술개발사업 지원 등을 주도해왔다. 장 팀장은 대학 내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정착시키고, 교내 전문 인력풀을 활용, 기업과의 산학협력 R&D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촉진 및 기술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

김동원 총장은 "우리 전북대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대학 내에 집적화해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신산업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과 인프라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 성장 지원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학이 가진 인프라가 기업의 혁신적 성장과 청년 일자리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www.jbnu.ac.kr
www.facebook.com/cbnu1947

Jeonbuk National University, best Institute for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and recipient of 'Presidential Citation'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ntributing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Jeonbuk National University(JBNU) received a Presidential commendation for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for their contributing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In addition, The team leader of the Industry University & Institute Partnership Division Center of JBNU, Jang Hwa Young, was awarded for her contribution to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b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JBNU received both group and individual awards. The award ceremony was held at the 20th Innovative Technology Show at COEX in Seoul on August 26, 2019.

JBNU was chosen for the Presidential commendation as the best institution for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 2019, in recognition of its contribution to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y utilizing the university's research competence.

Since the establishment of a consortium center in the industrial-academic region in 1993, which is the predecessor of the current Industry University & Institute Partnership Division Center, JBNU has made an effort to revitalize the industry-academy cooperation by conducting many businesses such as the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the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project for Honam region as a selected host organization, the research-village support project selected twice, and the customized

technology partner support project of Honam and Jeju areas.

JBNU was also recognized for its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local industries by revitalizing the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projects by upgrading the system of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of the university. It has been possible because the university was selected as an excellent institutions for LINC (Learning College for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and social-tailored Industry Cooperation (LINC+), a leading business incubator to nurture start-up universities selected twice in a row, and the best institution of start-up center.

In particular, over the past three years, the JBNU has carried out 1,391 governmental research projects and applied for 541 related patents, and has continuously conducted industry-academic education and supported business briefing sessions to carry out best research-based projects and to spread the achievements to the industrial area.

During this time, team leader Jang Hwa Young has led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and supported for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She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of innovation growth and security of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y activating R&D for industry-academic cooperations and by establishing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for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in universities.

President Kim Dongwon said: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ave made an effort to foster global-star companies and to create ecosystems by consolidating infrastructure to help companies grow. With this, we will take the lead in establishing an innovative ecosystem for creating an innovation cluster base for new industries of our region. Moreover, we will do our best to support technology growth and the innovative growth of companies and to create new jobs for the young through the infrastructure of the university."

1. 전북대 산학협력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Jeonbuk National University, best Institute for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and recipient of 'Presidential Citation'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은 장화영 팀장(우측에서 세 번째) Jang Hwa Young(team leader) received the Minister's award by the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MSS)





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제주대학교

To the Basic, For the Fu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www.jeju.ac.kr
www.facebook.com/
제주대학교-1536145756655629

정부지원 중점연구소 3곳 동시 선정 생명과학분야 최초...국비 217억 원 확보

제주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2019년 이공분야생명과학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서 3개 연구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생명과학분야 중점연구소 3개 사업 동시 선정은 전국 대학 최초다. 이에 따라 제주대는 9년간 국비 217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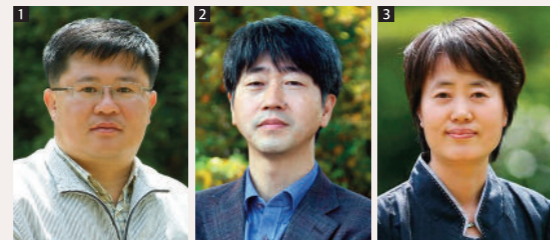
이번에 선정된 중점연구소는 해양과학연구소(소장 이재희), 기초과학연구소(소장 김명숙),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소장 이효연)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대학부설연구소의 인프라를 지원해 대학의 연구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대학 연구역량 강화 및 우수 연구인력 육성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이다. 제주대는 이번 3개의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해양바이오와 아열대원예산업, 제주 청정자원에 기반한 기초과학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과학연구소는 '양식생물 생체방어 연구'라는 주제로 향후 9년간 약 6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해양바이오 특화 연구 및 인력양성을 목표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과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셈이다. 특히 이 사업은 제주대 해양과학대학 연구진뿐만 아니라 제주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양식시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와 제임스큘대학(호주), 아이다호대학(미국), 오하이오대학(미국), 애리조나대학(미국) 등 해외 대학 및 연구소도 참여해 협력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는 지난 9년간의 중점연구소사업 실적과 향후 연구 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학중점연구소 후속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아열대작물육종분야 특성화 대학중점연구소'로서 향후 6년간 정부로부터 42억 원을 지원받는다.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는 지금까지 감귤 선발 기술 확립 및 잔디 신품종 육성 등의 연구를 통해 기술이전 4건(기술이전료 6,550만 원), 전문학술논문 126편, 학술발표 359건, 특허출원·등록 21건, 품종출원·등록 11건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기초과학연구소는 '청정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기초과학 통합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제주 생물권 보전 및 청정환경 연구의 메카'라는 연구비전을 제시해 '2019 이공분야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됐다. 향후 9년간 약 99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송석연 총장은 "이번 연구소 유치는 대학의 기본인 '연구'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우리 대학의 연구자들이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 제주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대학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 이효연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장 Hyo-yeon Lee, Director, Subtropical Horticulture Research Institute
2. 이재희 해양과학연구소장 Je-hee Lee, Director, Marine Science Institute
3. 김명숙 기초과학연구소장 Kim Myung-sook, Director, Research Institute For Basic Science

Three National Core Research Institutes funded; First life science center established... Winning 21.7 billion KRW grants

Jeju National University has succeeded in winning grants to establish three research institutes under the '2019 Science and Engineering (life science) University Core Research Institute Project'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he grants came with a total funding of 21.7 billion krw for 9 years. Jeju National University was the only one in the nation having succeeded in getting three research institutes simultaneously.

The newly funded core institutes are Marine Science Institute (Je-hee Lee, Director), Research Institute For Basic Science (Kim Myung-sook, Director) and Subtropical Horticulture Research Institute (Hyo-yeon Lee, Director).

The university core research institute project aims at establishing the research program to consolidate the institutional research potentials as well as to train superior research scientists and engineers.

As a result of the three core research institutes funded, the university has excellent opportunities to invigorate research in the areas of marine bio-industry, subtropical horticulture industry and the basic science research based on Jeju's clean environmental resources.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Marine Science Research Institute with its main mission of studies in "Biological Defence Mechanism in Cultured Organisms" received a 9-year grant totalling 6,000,000,000 KRW from the governmental funding agency. The institute aims at specialized research and scientific training to develop sustainable fisheries industry and tackle the region's pending issues.

Noteworthy, the project not only involves the JNU institute's researchers, but also collaborates with those from the Jeju Institute for Marine and Fisheries Industry, the Jeju Association of Fish Farming Industries,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Jeju Laboratory, James Cook University (Australia), the University of Idaho (U.S.), Ohio University (U.S.), and the University of Arizona (U.S.).

Subtropical Horticulture Research Institute has been selected for inclusion in the "University Flagship Research Institute Follow-Up Studies Project" based on its past 9-year records of research performance and the meritorious research proposal for the next 6 years with a renewal grant totalling 4200,000,000 KRW.

The subtropical horticulture institute has established the mandarine citrus screening technology and developed new turfgrass breeds, resulting in technology transfer revenue (65,500,000 KRW), 126 scientific publications, 359 conference presentations, 21 patents, and 11 newly breed cultivars.

The JNU Basic Science Institute with its mission to establish the consolidated basic science platform for environmentally clean Jeju and its conservation was selected for funding based on the proposal to conserve the Jeju's bio-sphere and become a mecca for environmental research. The institute has been funded for its project with a 9-year grant totalling 9,900,000,000 KRW.

JNU President Seok-Eon Song stated that "successful grant funding resulted from our faculty's research accomplishments," and promised to provide enthusiastic support for the research that positively contributes to the future of the country.



Korea NU10 Introduction to Korea NU10

충북대학교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수갑 President Kim Sukab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 1951년 초급농과대학으로 시작, 2018년 신수도권 중심대학으로 도약 원년
- 2014~2018 학생만족도 1위(NCSI 조사),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설립 운영
- 조화, 품격, 미래를 바탕으로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를 그리는 충북대학교

- Beginning as a junior agriculture college in 1951, CBNU has leapt to its current status as a major university in the new capital area
- Standing as the No. 1 university in Student Satisfaction (NCSI Survey), from 2014 to 2018, CBNU has established and ran the Sejo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olicy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raws a Dynamic future based on the three core values of Harmony, Dignity and Future

전북대학교 JBN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동원 President Kim Dongwon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Korea

- 1947년 인가된 도립 이리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군산대학관을 모태로 개교
-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창의인재 양성
-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2012, 2015, 2017년 학생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 Founded as Iri Provincial College of Agriculture (1947), consolidated with Myeongnyun College (Jeonju) and Gunsan College (1952)
- Creative talents cultivated by innovative education platform
-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tudent service satisfaction by KS-SQI (2012, 2015, 2017)

제주대학교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총장 송석인 President Seok-Eon Song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로 102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243, Korea

- 1952년 도립 초급대학으로 시작, 도립 제주대학 승격 후 국립대학 기관
-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 통합,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교육기관 발돋움
- 경쟁력 있는 지식창출로 국가발전 선도

- In 1952, Jeju Provincial Junior College was founded. It became the four-year Jeju Provincial College in 1955 and designated as a National University in 1962
- Merged with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08. Become a world-class university alongside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with competitive knowledge creation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총장 오세정 President Oh Sejung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 1946년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을 갖춘 국내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교로 출범
- 1975년 관악캠퍼스 설립으로 캠퍼스 종합화 달성
-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선도

- Established a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with 9 Colleges and 1 Graduate School
- Centralized dispersed campuses in Gwanak
- Played centr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충남대학교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오덕성 President Deog-Seong Oh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99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 1952년 도민의 일두일미(一斗一米) 운동으로 설립, 대덕연구단지에 위치
-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성장 목표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착수, 세종특별자치시에 캠퍼스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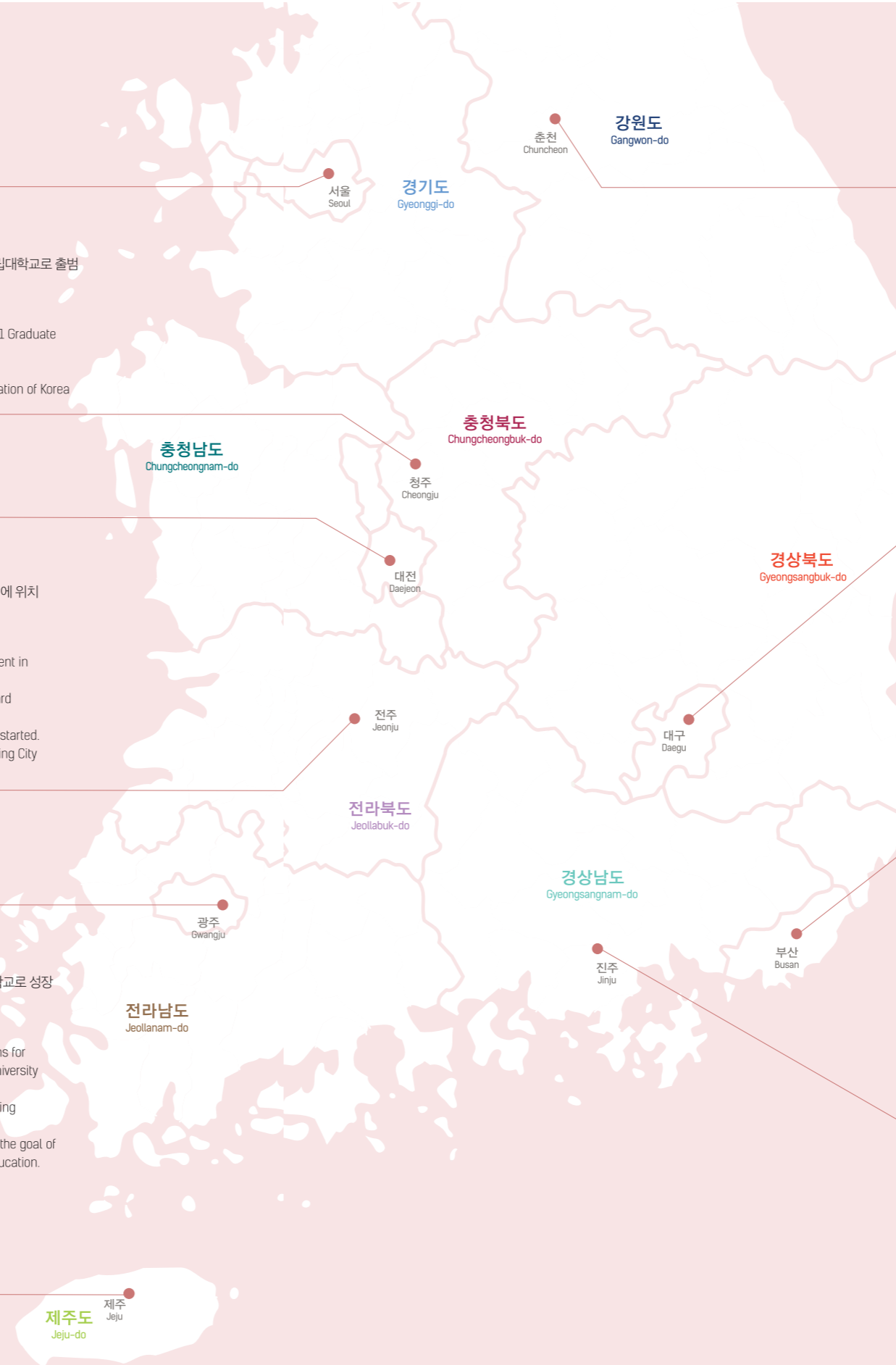
- Established through the rice donation campaign by every resident in 1952 in Daedeok Science Town
- The goal is to be the leading university of Korea spreading towar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sidents
- Construction of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tarted. The campus will be constructed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전남대학교 CN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정병석 President Jeong Byungseok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77 Yongbong-ro, Buk-gu, Gwangju, 61186, Korea

- 1952년 도민 고등교육 열망으로 설립, 호남 제일의 거점 국립대학교로 성장
- 자유와 평화 민주 인권 수호, 한국 민주주의 발전 주도
- 어젠다 2021 수립, 미래형 창의 융합교육 선도

- Since its foundation in 1952 upon the desire of the local citizens for higher education, CNU has become the top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n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 CNU has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safeguarding the nation's freedom,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 CNU recently promulgated and announced 'Agenda 2021' with the goal of leading innovative convergence with a focus on creativity in education.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현영 President Kim Heonyoung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Korea

- 1947년 춘천농업대학 출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학 이념
- 춘천-삼척-도계 3곳의 멀티캠퍼스 체제 구축
- 거점 국립대 취업률 1위(2018년 1월 정보공시 기준)

- Established Chuncheon Agricultural College in 1947, with the founding spirit of the quest for truth based on practical science
- Integrated three campuses in Chuncheon, Samcheok and Dogye into a multi-campus system
- Achieved No.1 employment rate among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Based on the information notice in January 2018)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상동 President Kim, Sang-Dong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 1946년 9월 국립대학 승격(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 '진리·금지·봉사' 교시로 글로벌창의인재 '첨성인(瞻星人)' 양성
- QS 세계 대학 취업능력 랭킹 국내 6위

- Upgraded to National College in September 1946 (comprised of the Colleges of Education, Medicine, and Agriculture)
- KNU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talented, globally creative student, or 'Cheom-seong-in' (瞻星人), under KNU's Educational philosophy of 'Truth, Pride, Service'
- KNU ranks 6th in Korea in the QS World University Employability Rankings

부산대학교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총장 전호환 President Ho-Hwan Chun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로63번길 2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

- 1946년 5월 15일 국내 최초 종합 국립대학으로 출범
- 진리·자유·봉사의 건학 이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 6개 학문분야 QS평가 세계 101~200위권, 융합과 통섭형 엘리트교육

-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on May 15th, 1946
- Guided by the university's founding values of truth-freedom-service to become a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 Six departments are ranked in the top 101~200th by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Elite education through the fusion and convergence of disciplines

경상대학교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총장 이상경 President Sang-Gyeong Lee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501, Jinju-daero, Jinju, Gyeongnam, 52828 Korea

- 1948년 경남 도립 진주농과대학 개교, 1972년 '경상대학'으로 교명 변경
- 식물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 분야 국내 최고 경쟁력
- 중국 상하이자오통대학 발표 '세계대학 학술순위' 국내 11위(2018)

- Founded in 1948 as Jinju Agricultural College, it was accredited as a national university and renamed a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1972
- GNU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top-tier universities in three academic fields in Korea such as life science, aerospace and mechanical systems, and nano and advanced materials
- According to the 2018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ARWU), GNU was ranked within the 11 top universities in Korea

Table 1. Chronicle models of the renovated platform of national universities
[Source: Prospective and role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in conjunction with regionally balanced development (B.S. Kang et al. 2017.12)]

Types	Past	Current	Future
	Localized Single Platform	Competitive Individual Platform	Connected convergence platform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mited opportunity for higher education (Low admission rate) - Abundant job opportunity after graduation (Diverse job market) - Limited academic majors (focused on basic studies) - One way knowledge transfer (Faculty oriented, Single major on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eralizing/ Expanding opportunities for higher (High admission rate) - Reducing job-market (limited opportunity, prefer stable jobs) - Operating pragmatic majors - Diversification of educational needs (multiple majors, specialized graduate schools, industry-linked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versifying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Connected to lifelong learning) - Diversifying career choices after graduation (Stabilization vs. Challenge vs. Innovation) - Operating of basic studies and convergence majors - Demean-oriented educational program (MOOC, practical education type, lifelong education, etc.)
Resea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arning overseas' advanced research subjects (Development Research) - Insufficient research environments (funding, students, infrastructure, etc.) - Focusing on individual research - Supporting personal program, related to the local industry (university basis specialized engineering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cused on overseas' advanced research program & Partially forced on a basic research program - Pursuing quantity based research infrastructure and performance evaluation - Focusing on fostering excellent research groups (BK21, research universities, etc.) - Supporting competition based research grant (university level, group, individual units, etc.) - Supporting local industry-university corporation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anding basic research & Investigating promising new technology - Research on various convergence field (humanity and engineering/science convergence) - Pursuing qualitative research achievements - Strengthening collaborative research network (multiple majors, other universities, etc.) - Promoting commercialization and entrepreneurship
Public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mited conne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 Demanding a leader role on local issues (lack of resources such as human, organization, etc.) - Limited supply of lifelong education - Increasing demand for lifelong lea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dependent agencies by local governments (Policy, Industrial Strategic Institute, etc.) - Competitive relationship among other local institution (other universities, local professional organizations,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le of regional lifelong education hub (Lifelong Education Center, online and offline media use, etc.) - Sharing local infrastructure to improve quality of life (library, gym, cultural facilities, etc.) - Expanding cooperation with local professional organizations (issue by issue and case by case)

communities have tied together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the country.

Recently, the steep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changes in the industrial ecosystem accelerated the biased academic preferences and metropolitan (in particular, Seoul and the suburb of Seoul) centralization. Also, there is anxiety about whether universities can provide enough human resources and competitiveness to sustain the growth momentum in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In particular, the future industrial structure is moving beyond mass production to a new paradigm of customized production. Social structures are also evolving into an age of diversity that respects individual personalities and characteristics, rather than creating core values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Raising talented young persons who can adapt to these changes is a significant challenge for the country, and the university is at the center of its solution. However, universities also face various challenges. In particular, some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are struggling to maintain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for education. On the other hand,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lso do not take full

advantage of the benefits of the population bias. This is because there are serious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the function of the university required by society and the value that the university seeks.

Everything changes by time. Universities cannot resist changes. National universities also need to find new functions and roles to meet these changes even though the government and community have a responsibility to provide equal opportunity for higher education among fellow citizens. Nonetheless, it is not advisable to leave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university to market demand. Founded by local people for the sake of rebuilding the country, National universities have made great efforts to cultivate workforces to the nation utilizing various platforms to meet the challenges while maintaining fundamental values of education, research, and public service (Table 1). However,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world, existing platforms such as isolated, localized, competition-based platforms can no longer be accommodated. In particular,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society, all possible resources and means must be utilized. Therefore,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remodel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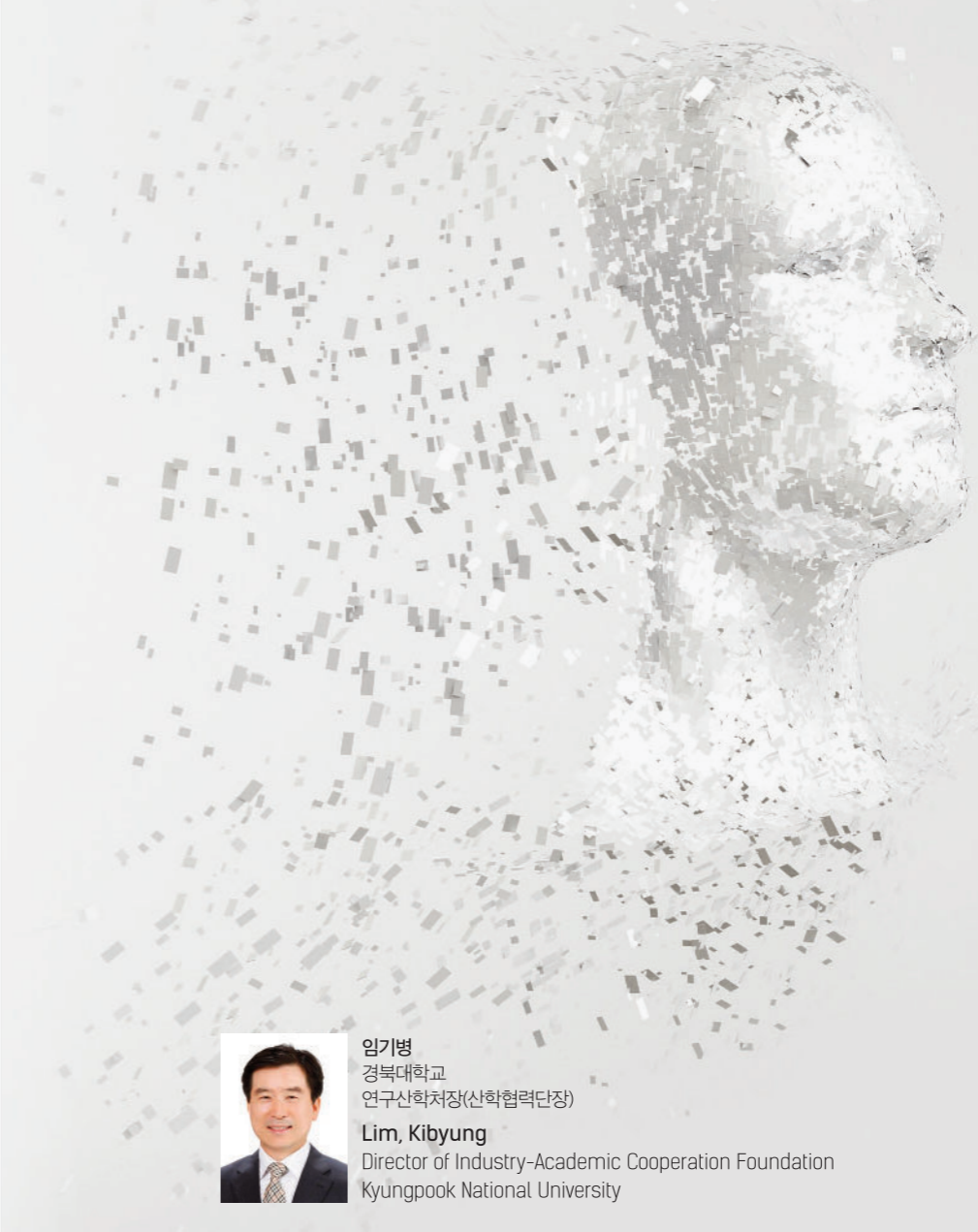
existing platforms to a new one connected convergence platforms, Figure along with local communities as they did in the 1950s to foster human resources that can lead the world. Through this new platform, the national universities can provide the opportunity to learn, communicate, and share knowledge and information without limitation of location, time to the people in Korea. Also, the new platform, initiated by the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be able to complete the missions such as balancing regional development, providing equal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completing innovative cities,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rough the sharing of sociocultural intellectual life.

Let's go back to the platform and the train station. The train station may be one of the first facilities to be built as a city was created. For example, train stations and platforms in Europe are continually evolving with time, and are the center of the city's culture. Furthermore, it was and is a passageway connecting the past and the future, regions, countries, and nations. Unless the city disappears, the train station should always be able to the job and to be able to work. National universities also need to make every effort to cultivate future human resources that the country and society needs like train stations. Furthermore, national universities and local communities should work together to create and lead the new cultures and industries. In Korea, there are already nine geographically well-distributed train stations (e.g., national universities). Although they are old and needed many works, it still functions and retains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Now let us remodel the national universities so that they can be playgroups to foster the next-generation human resources needed for us and the world. As a result, Korea will become a hyper-connected country in every aspect, such as education, culture, economy, etc.



지역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전국 최초 산·학·연·관 협력모델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HuStar)

Fostering Talents Tailored for the Regional Corporate Demand The Nation's First Cooperation Model of "Industry, Academy, Research, and Public Institutions"
HuStar : A Project to Foster Innovative Talents in the Daegu-Gyeongbuk Area



임기병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장(산학협력단장)
Lim, Kibyoung
Director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지역 인재를 지역에서 키우는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휴스타(HuStar) 사업이 제1기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하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지역기업이 함께 기업 수요에 맞는 혁신인재를 키우는 프로젝트다. 지역 고급 인력의 역외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휴스타 사업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지역이 주목한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 인재를 키우기 위해 2027년까지 1,600억 원을 투자하여 혁신지도자 50명과 인재 3,000명을 길러낼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휴스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난 1년간 기업과 대학 등 사업 주체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재양성 협업선포식을 개최하여 사업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키웠다. 또한 최종 공모 전 지역의 관계자 350여 명이 모인 공청회를 개최, 최종 논의를 거친 후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확정, 사업단을 선정했다. 기존의 인력양성 사업들이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 주도로만 이루어진 반면 휴스타 사업은 기업과 대학이 기획에서부터 교육생 선발, 교육과정 설계, 실습 등 교육과정 운영까지 함께 진행한다. 휴스타 사업은 최종적으로 취업과 연계하는 상호 협력 방식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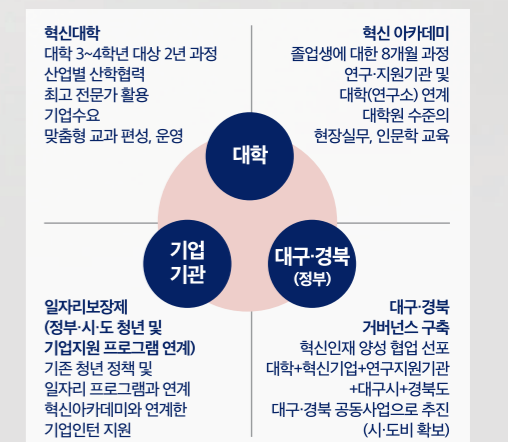


표 1. 프로그램별 교육과정 및 주요 내용

구분	교육과정(개강시기)	주요 내용
혁신대학	2년 과정 *학부 3-4학년 (20년 3월 개강)	•기업 맞춤형 커리큘럼 구성 운영 •기업 수요 대응 공동 프로젝트 추진 •분야별 40명 정도
혁신아카데미	8개월 과정 *졸업생 대상 과정 (19년 10월 개강)	•대학원 수준 현장실무교육(5개월) 및 기업 인턴(3개월) •참여기업 재직자 교육 포함 •분야별 50-60명 정도
일자리보장제	참여기업 및 취·창업자 인센티브	•아카데미 교육생 기업 인턴비 지원 •(참여기업) 사·도 지원정책 프로그램 연계한 인센티브 지원 •(취·창업자) 정규직 취업 기회 보장, 창업 프로그램 및 청년지원정책 연계

휴스타 사업은 혁신대학 사업과 혁신아카데미 사업으로 크게 구분지어 볼 수 있다. 혁신대학 사업은 5개 산업 분야에 학부생 3, 4학년 대상으로 하는 2년의 교육과정이고, 혁신아카데미 사업은 대구 4개 산업 분야, 경북 5개 산업 분야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8개월 교육과정(교육 5개월, 기업 인턴 3개월)으로 구성된다.

혁신아카데미는 숙련된 실력을 갖춘 청년이 지역 기업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현장실습 장비와 시설을 갖춘 16개 대구·경북 연구·지원기관과 대학 연구소가 채용수요가 있는 참여기업과 협약을 맺고 대학원 수준의 현장실습 교육을 5개월간 운영한 후 참여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 과정을 거친다.

혁신대학은 지역기업의 혁신인재 채용을 연계해 기업 수요 맞춤형 대학체계 개편과 협력 모델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로봇, 물, 미래차, 의료, ICT 등 5개 분야로 2020년부터 학부생(3-4학년) 대상 2년 과정으로 분야별 40명 정도를 선발해 교육이 진행된다.

산업별 최고의 전문지식을 가진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개의 중심학과와 2

개 이상의 관련학과 간 연합해 사업단을 구성한다. 또한 기업 요구에 부합하도록 대학 교과과정을 신설, 개편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기업 수요에 대응하는 대학교육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경북대학교는 혁신아카데미 ICT 분야 주관 기관으로, 로봇과 의료 분야 참여기관에 선정됐고, 혁신대학 로봇 분야 중심학부로 기계공학부, 참여학과로 정밀기계공학과 및 전자공학부, ICT 분야 중심학부로 전자공학부, 참여학과로 컴퓨터학부 및 소프트웨어 학과가 선정됐다. 현대로보틱스, 위니텍 등 로봇분야 24개 기업, ICT 분야 25개 기업들과 함께 인재를 키워나갈 예정이다.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청년이 머물러야 한다. 청년들이 많은 우리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기존 환경으로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대구·경북의 인재양성사업인 휴스타 사업은 지역산업을 성장·발전시키는 중요한 프로젝트임이 틀림없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금석

으로 기업체-대학-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협력을 통해서만이 성공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육성하여 공급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시발점이 되며, 그것이 지역 대학의 책무이자 소임이다. 대경혁신인재양성 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산업 현장 맞춤형 인력 공급을 주도해 외부로부터의 인력 공급에서 지역 중심의 우수 인력 공급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 선순환 구조가 지역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이 되리라 기대한다.

As it began the recruitment process for its first cohort of the Innovation Academy program, the recently launched project "HuStar" is now in full swing. HuStar is a project to foster innovative talents in the Daegu-Gyeongbuk area, aiming to cultivate local workforce within the region. HuStar is led by our regional government offices, and its objective is to produce innovative workers customized for local corporate demands together with regional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industrial corporations. We expect that this project, which is the first one of its kind in our nation, will establish a model of virtuous cycle to prevent quality local workforce from leaving the region and to attract talented young workers to settle down in the region to develop the local communities. Through HuStar, the Daegu city and G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plan to invest 160 billion Won to produce 50 innovative leaders and 3,000 quality workers by 2027. This is to produce workforce suitable for the current industrial revolution era in the

prospective industrial fields of new growth, which our region is seriously focusing on.

To make HuStar successful, the Daegu city and G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collected various opinions over the past year from corporations and universities by subprogram. And, these government offices recently held a ceremony to declare embarkation of their / cooperative project to foster regional workforce. They have been raising the local communities' interests in and affections for HuStar as well as their city and province. They also held a public hearing prior to this ceremony by inviting 350 community leaders so that they could have the final discussion to confirm their methods to properly cultivate talented individuals needed by their regions the most. The government offices of the Daegu city and Gyeongbuk province also formed the committees to implement these methods.

While existing projects to cultivate innovative workforce have exclusively been led by universities in charge of education and research, HuStar operates its programs together with the university and corporations for all tasks ranging from making plans, selecting students, as well as designing courses and practicums. In its final stage, HuStar mutually cooperates with the employers to connect students with their future jobs.

HuStar can be divided into two major programs of the Innovation University and of the Innovation Academy. The Innovation University program is a two-year educational course for third- and fourth-year undergraduate students in five different industrial fields. The Innovation Academy program is for recent graduates and is eight months long, consisting of a five-month coursework and a three-month internship in the four industrial fields in the Daegu area as well as five in the Gyeongbuk area.

The Innovation Academy program aims to help young skilled workers settle down in our city and province by finding permanent jobs at corporations in the area. To make this possible, an agreement was made by the university research centers; 16 research and support institutions equipped with practicum conditions and facilities; as well as participating corporations requiring new employees in the Daegu and Gyeongbuk region. In this program, students will receive a graduate school level practicum training

for five months and go through an internship at one of the participating corporations for three months.

The goal of the Innovation University program is to provide courses more specifically tailored for corporate demands by restructuring the university system and to firmly establish the cooperation model by connecting quality innovative workforce with the corporations requiring such manpower. In the five technological fields of robotic, hydraulic, future automobile, medical, and ICT, this two-year program will select and educate 40 of third- and fourth-year undergraduate students for each field starting in 2020.

To produce quality regional workforce with the best expertise, an advisory committee in each industrial field has been collaboratively formed with one core and at least two related academic disciplines. In addition, the program has newly established or restructured its university curricula to meet the corporate demands so that it can focus not only on fostering quality workers, but also on creating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to fulfill requirements of these corporation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as selected as the main body who will operate the Innovation Academy program in the field of ICT; and chosen as a participating organization in the fields of robotic and medical technologies. For the Innovation University program in the field of robotic technology, our university's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was selected as the core academic discipline; and our Department of Precision Mechanical Engineering and School of Electronics Engineering as its participating majors. In the ICT field, our School of Electronics Engineering was selected as the core academic discipline; as well as our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as a participating major along with the

Department of Computer Softwa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s planning to foster regional talents together with 25 corporations of ICT and 24 corporations of robotic technology, such as Hyundai Robotics and Winitech.

To revitalize a region, the youth workforce must stay. To increase the youth population in our regional communities, we have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will make young people want to settle down in our local area. If this is not possible with the existing environment, then we must create a new one. From this standpoint, there is no doubt that HuStar, which is designed to cultivate quality talents in the Daegu-Gyeongbuk area, is an important project to develop and improve the regional industries. Since HuStar is a crucial test to find out whether we can build the base described above to cultivate quality talents in the region, its success can be obtained only by true contemplation and cooperation in good faith among all related entities including regional industries, universities, and autonomous government offices.

The cornerstone that will lead our country to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to entrust our regional universities to cultivate and supply local workforce for the industries within our own region. This is not only a duty, but also a mission of our regional universities. HuStar will offer a chance to transform the existing system of recruiting talented workers from outside areas other than our own region to the self-sufficient system of fostering and supplying them within our region by taking the lead in providing the necessary manpower customized for each industrial field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We look forward to this virtuous cycle that will make our region healthier and our foundation stronger in order to further advance the regionally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Main Curriculum by Program

Category	Program(First Day of Class)	Description
Innovation University	2-year program *3rd-4th year undergraduate students (Mar 2020)	• Design and operate the curriculum customized for each corporation • Offer a joint program to meet corporate demands • Select about 40 students per field
Innovation Academy	8-month program *Recent graduates (Oct 2019)	• Offer a graduate school level practicum (5 months) and a corporate internship (3 months) • Open the program to the current employees of the participating corporations • Select about 50-60 students per field
Employment Security System	*Incentive for job seekers, venture owners, and employees of the participating corporations	• Offer financial support of corporate internship for students in the Innovation Academy • Provide incentives by connecting students with the support programs of the city and provincial government policies for participating corporations • Secure full-time job opportunities by connecting students with programs of venture and youth support policies for job seekers and venture owners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거점 국립대의 상생

Coexistence of the Public Institutions and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Innovation Cities

지역균형발전으로 대표되는 지방화 시대에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과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지역의 산업 생태계에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공급해야 하고, 지역의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특색화를 선도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에 따라 정부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시범사업을 통해 그 기반을 구축하였고, 2019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5년간 사업이 이루어지며, 예산은 매년 100억 원씩 총 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방대학이 지자체-지방 소재 공공기관-산업계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상호 연계해 지역인재를 공동 양성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2022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 30%를 달성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지자체(광역·기초)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스스로 역량과 특성을 분석하고 협업을 통해 운영모형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에 산·학·연·관 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배출인력에 대한 대학-공공기관 간 지역인재 채용의 매칭 역할을 이끌도록 하고 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역인재의 공동양성 및 취업 후 정주를 목적으로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 간 협력을 통한 지역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각 참여 주체에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이 부여된다. 지방대학은 공공기관, 산업계 인력 수요에 맞는 융합전공, 별도 트랙 운영 등 맞춤형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대학 간 동반성장을 위한 연계·협력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및 산업계는 수요 인력에 대한 직무능력 관련 정보를 지역대학에 제시하고,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며, 전·현직 임원을 교수요원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는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인력지원, 사업비 매칭), 지자체 발전 방안과 연계한 사업추진 방향 등을 제시하게 된다.

거점 국립대학이 선도하고 있는 각 지역별 컨소시엄의 구성 및 계획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원대 컨소시엄은 「지역균형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강원 초(超)융합 공공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컨소시엄 구축, 융합 교육과정 개발·운영, 수요

자 맞춤형 고등교육 지원,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대 컨소시엄은 공공분야 맞춤형 SW융합 교과과정을 비롯해 비교과 프로그램, 공공기관 특화 프로그램, 산업체 특화 프로그램, 산학관 네트워킹 강화 프로그램 등 5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경상대 컨소시엄은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융합전공(주택도시개발·전력에너지·산업경영지원·시험분석) 개설, 맞춤형 교과 교육과정 개발·운영, NCS 기초 교과목 운영, 취업역량 강화 비교과 교육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BRC(Busan Regional Consortium) 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혁신인재양성 및 혁신성장 생태계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부산지역 창의 혁신인재 공급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교과과 비교과 과정, 팀 프로젝트, 취업 교육, 현장실무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공기관 및 지역전략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대는 에너지, 스마트농업, 도시재생, ICT 등 지역사회를 선도할 스마트 융합인재를 집중 양성하게 된다. 전남대는 참여 주체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교과+비교과 교육, 현장실습 확대,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대 컨소시엄은 시범사업에서 농생명 분야에 적용하던 교육과정을 연극, 전기 안전, 공간 분야 등의 분야로 확대해 분야별 전문우수인재 양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대 컨소시엄의 사업 목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맞춤형 GREAT 인재양성'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맞춤형 트랙 및 산업연계 융합트랙 개설, 직무특화 교육 운영, 취업지원 비교과 교육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충남대 컨소시엄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 수요 맞춤형 융합 인재 양성'을 주제로, 지역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및 산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연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대 컨소시엄은 '충북혁신도시 20! 지역사회 맞춤형 우수인재 공동 양성'이라는 비전에 대해 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 연계 컨소시엄의 구축을 통해 공공서비스 ICT 인력, 정책분석 인력, 가스·에너지 안전 인력, 미식 관광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 유출 등으로 지역경제의 침체에 기반한 지역소멸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그간 추진한 지역투자자는 부처별, 사업별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성장을 위한 효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지자체, 대학, 지역산업체 등 다양한 지역의 혁신 주체가 연계·협력하는 지역 중심의 자율적 거버넌스의 구축·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자체, 지방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간 협력형 거버넌스 체계로서 이른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과 연계하여 거점 국립대학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사업이다.



In this era represented by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role and the statu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re becoming increasingly more imperative. As their main duty, thes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ave to foster and supply quality talents needed by the ecosystem of regional industries and also have to lead regional characterizations by forming a coalition with the public institutions in the innovation cities of their regions. According such needs in this era, the national government has been propelling its project of promoting the leading regional universities since July 2019. The national government built the foundation of this project through its demonstrative pilot in 2018 and is planning to continue to do so until February 2024. The national government is also planning to infuse its annual budget of 10 billion Won into this project, totaling 50 billion Won over this five-year period.

The project of fostering the leading regional universities plans to have a selected regional university in each province to act as the hub of regional development by creating a consortium of the autonomous government offices, public institutions, and industries in that region. It also plans to have these leading regional universities to jointly foster local talents by mutually connecting the capabilities of the communities in their regions and of themselves. By doing so, this project ultimately aims to help the public institutions relocated to the innovation cities meet their mandatory local hire rate of 30% by the year 2022. This is to support the regional government offices, universities, and public institutions to create a consortium to analyze their own capabilities and characterizations so that they can collaboratively develop a joint operation model. Especially, the project will allow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to take the lead in creating a cooperative network among the "regional industries, universities, research centers, and public institutions." This is also to help the autonomous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play a matchmaker between the regional universities and public institutions so that the first can produce quality talents whom the latter can employ.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of promoting the leading regional universities is to jointly foster local talents and support them to find jobs and settle down in their regions. Its objective is also to establish the system of producing quality manpower tailored for the regional demands through cooperation among the local universities, autonomous government offices, public institutions, and industries. To make this possible, all participants of such



민병익
경상대학교 기획처장
Min Byeongik
Director of Plann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nsortiums are expected to assume the following roles. The regional universities will push forward the cooperative coalition to grow together with other universities; design and operate customized educational curricula such as convergence majors suitable for the manpower demand of the public institutions and industries in their regions; and offer separate tracks in these particular fields. The local public institutions and industries will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job qualification of the required manpower to the regional universities; offer opportunities of field practicums; and support these universities by having their previous and current officers to work as faculty members at these schools. The local self-governing bodies will recommend the direction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ssistance (manpower support and project fund match) to supply quality talents; measures to develop the regional autonomous government offices; and collaboration of joint projects in their provinces.

To briefly summarize, the structure and plan of the regional consortiums led by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re as follows. Under the vision of “fostering trans-convergence public talents to establish an ecosystem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consortium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s planning to establish itself to produce quality talents; develop and operate the convergence curricula; support higher education customized for such demands; and assist lifelong education courses for the mutual survival and development in its province. The consortium of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is designing its software convergence curricula and extracurricular programs specifically made to meet the demands of the public fields; customized classes for public institutions; specialized courses for industries; and seminars to strengthen its provincial network of the “industries, universities, and government offices.”

To foster regional talents with its five main educational programs, the consortium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s planning to create the convergence majors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electric power energy, industry management support, test analysis, etc.) tailored for the demand of the relocated public institutions to strengthen the university’s support to promote quality talents and to help them find jobs; develop and operate extracurricular programs specifically made for such purposes; and provide NCS basic programs. Likewise, to offer extracurricular courses to increase employment capabilities, Busan National University is planning to mainly focus on “fostering quality talents customized for the demand of BRC(Busan Regional Consortium)” under the vision of “the balance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promoting innovative talents and creating an ecosystem for innovative growth of the metropolitan Busan area.” With its plan to establish a system of the virtuous circle to supply creative and innovative talents in the metro Busan area, the school will offer 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courses, team projects, training classes for employment, as well as programs to strengthen the field practicums. Through these plans, the Busan National University aims to implement the education programs specifically made to meet the demand of the public institutions and strategic industries in its reg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s honing into promoting talents of smart convergence, who will lead the regional communities in the fields such as those of energy, smart agriculture, urban revitalization, and ICT. By following its guideline to mutually

collaborate with its counterpart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establish a system to produce quality talents in its province by offering 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programs, expansion of field practicums, and customized educational courses. The consortium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ill also foster the quality experts in various fields by expanding the educational program designed for its demonstrative coursework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life science to those of research technology financing, electric safety, and space. The goal of Jeju National University’s consortium is to “promote great talents tailored for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plans to create a track customized for public institutions connecting to industry convergence; offer characterized training seminars for specific job duties; and provide extracurricular programs to assist employment.

Through its provincial network of “universities, autonomous government offices, public institutions, and industries,” th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nsortium plans to create coalition under the theme of “promoting talents of convergence customized for the demand in the leading sit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province. With its vision of “jointly fostering quality talents tailored for the regional communities of Chungbuk Innovation City 2.0!”, the consortium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ill also supply human resources of public service ICT, policy analysis, gas and energy safety, as well as food tasting tourism through establishing the regional network of “universities, autonomous government offices, public institutions, and industries.”

The decrease of school aged population and the increase of “brain drain” phenomena in the regions outside the metropolitan Seoul area have significantly been exacerbating the risks of diminishing regional capabilities caused by the ongoing provincial recessions. Until recently, various investments were made as measures to overcome such risks of these provinces, yet critiques have pointed out that such efforts generated insufficient impacts on fostering quality talents and improving the provincial economies since these attempts were carried out segmentally by department or by project. In response to this evaluation, a need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autonomous governance is being raised. Since the self-governing bodies, universities, and industries are the key subjects of the very innovation in each region, such governance should be centered around the respective province where these key subjects could all come together to cooperatively form their own coalition. In this aspect, the project of fostering the leading regional universities is the collaborative model of the governance system among the regional autonomous government offices, universities, industries, and public institutions.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now need to work together with one another more than ever before to jointly establish a so-called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by building such governance system.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정부출연연구소를 거점 국립대학과 공동운영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거점 국립대 정책이 필요하다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김상동
경북대학교 총장
Kim, Sang-Dong
Presid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은 고등 교육이 국가발전에 큰 바탕이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립대는 국가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국립대는 국가 균형 발전 및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의 역할까지 더해진다. 우리나라에는 41개의 국립대가 있다. 각각의 국립대는 기초학문 육성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의 균형 발전 및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지역에 직접적으로 환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와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교했고, 국가의 혁신적인 발전을 수행하는 전초 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거점 국립대가 나아갈 길이 분명해 보인다. 거점 국립대라 칭해지는 국립대는 통상 병원이 함께 설립되어 있고, 70여 년 전에 개교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거점’의 역할은 지금 이 시대에 유독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다. 최근 유네스코에 의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시대의 ‘서원’은 학업과 과거 합격이 주목적인 성균관이나 향교와 기능이 달랐다. 서원은 유학 성현들을 모시고 향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수행했지만, 지역민을 계도하는 교육기능을 넘어서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학문을 연구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개척한 서원의 역할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합학문 탐구와 인재양성 기능을 갖고 있

는 거점 국립대학은 국가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과 연구의 산업화 요구에 부응하는 것 역시 현재 대학의 책무이다.

많은 국외의 저명대학과 연구기관의 목표는 최첨단 연구와 혁신적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를 선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류의 삶을 향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거점 국립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세계를 앞서가는 전략을 깊이 생각하고 있지만, 전략 수행방법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세계 곳곳에서 수행되는 연구와 교육방식을 앞서가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다양한 전공에 바탕을 둔 융합연구와 그 연구를 기본으로 하는 혁신 교육도양을 갖춘 거점 국립대의 자원 활용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등 교육기관은 학생들을 받아들여 각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시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이다. 혁신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교육과정의 개발은 운영의 주체가 되는 교수 개인의 역량에 있다고 본다. 교수의 역량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많은 경험에서 나온다. 그런 경험이 교육과정과 수업 방법에 녹아 들어가야 교육혁신이 이뤄진다. 이런 교육혁신을 위해 정부는 국립대학에 특히 거점 국립대학에 교육기관 이상의 기능을 부여하여야 혁신 인재양성 교육이 수반된다고 믿는다. 주요 선진국은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국가의 발전 책무를 견인하기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주요 대학의 연구

와 연구 결과가 산업화 기능을 정책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처한 국내 상황은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정부출연연구소와 특수목적과학기술대학에 첨단 산업화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목적을 두고 운용해 왔지만, 오히려 현재 원천기술연구개발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했다. 이런 상황과 국외 의존 원천기술연구를 탈피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소를 거점 국립대학과 공동운영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거점 국립대 정책이 필요하다. 거점 국립대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세계적 연구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학을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역할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과학기술원처럼 전임교원 강의 시간을 매주 3시간 이상으로 두는 것은 아니더라도, 거점 국립대학의 강의 시수 경감을 고등교육법에 명문화하여 거점 국립대 역할을 연구중심대학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이런 법제화는 필연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명문대학과 연구 분야에서의 격차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소규모 강의를 정책적으로 늘려야 한다. 소규모 강의는 학생들의 사고력과 발표력 등에서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의 또 다른 효과는 학문 후속세대라 불리는 비전임 교원에게 강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접하는 것이다.

대학에 교육 기능만 강조함으로써 거점 대학이 지자체와 국가의 산업발전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지금까지 방향이었다. 대학의 역할은 체계적이지 못했다. 체계적 역할을 위하여 거점 국립대학은 지역의 산업발전과 문화 창달을 주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거점 국립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이 지역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인지하는 사실이다. 연구기술 분권의 주체로서 거점 국립대학의 플랫폼 역할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완성해 나가는 방법이 된다. 정부 정책은 대학의 연구와 인재양성이 지역의 산업화 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기술자립 그리고 독립을 이루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The saying that "University competitiveness is national competitiveness" underlines that higher education is an important foundation for national development. In particular, government-funded national universities are obliged to contribute to the nation's development. On top of this, national universities take on the additional role of being a hub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innovative growth. There are 41 national universities in South Korea. Each national university is doing its best to foster basic studies and ensur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But this is not enough. In order to perform its proper role as a hub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innovation in the nation, it becomes necessary to support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as well as redirecting the resources held by universities to the region. From this point of view, it seems clear that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which were opened with the goal of fostering the national and regional young talent, and which have faithfully played the role of an outpost for the nation's innovative development, will move forward. Some things thes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ave in common are that they were opened 73 years ago, and each one was established with a partner hospital.

The role of "Being Flagship" was not particularly required in this era. The Joseon Dynasty's "Seowon," which was recently designated as a cultural heritage site by UNESCO, was different in function from Sungkyunkwan or Hyanggyo (the Confucian temple and school) whose main purpose was to study and pass national exams. Although Seowon played a role in honoring academic sages and maintaining the order of the villages, it was also in charge of academic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the country beyond the educational function of guiding the local people. As the role of Seowon, which pioneered the difficult situations of the times, has show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hat adapt comprehensive academic exploration and talent cultivation functions are the only institutions that can thrive in the difficult environment of the nation. It is also incumbent on universities to meet the needs of fostering talent and industrializing research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goal of many prestigiou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outside the country is to develop the nation in a leading way and improve the lives of mankind through cutting-edge research and innovat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same is true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But it's not an easy

road. People are thinking deeply about a strategy to put ourselves in a leading position in the world. But if the method of carrying out this strategy is not efficient, it will be a long way from being ahead of the current research and education conducted around the world.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way to overcome this depends on the resource utilization of the regional hub national universities, which have a convergence study model based on various majors and an innovative education soil based on research.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accept students and educate them to become talented in various areas of society. The important thing here is the curriculum. Development of a curriculum that requires innovation and creativity lies in the ability of the given faculty, the main driver of the curriculum operation. Professors' competence comes from the experience they gained in conducting creative and innovative research. Only when such experience is incorporated into the curriculum and the resulting method of teaching is utilized, can education innovation be achieved. For such educational innovation, the government should impose functions on national universities, especially on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more than mere educational institutions to expect innovative talent cultivation. In many advanced countries, the research results of major universities strategically undertake the industrialization function in order to promote regional industries and to drive the country's development responsibilities.

The current domestic situation we face requires us to focus our energy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to original technology. So far, the government has operated o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for special purposed science and technology with the aim of developing and commercializing advanced industrialization technologies, but it has not exceeded the limi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original technologies at present. In order to escape this situation and the study of the original technology that relies on foreign countries,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should be jointly operated with the hub national universities, and the policies of the hub national universities to strengthen its research function.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hub national university should be readjusted.

In order for u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competition of global research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role of national

universities as research-oriented and education-oriented universities. Although full-time teaching hours are not allowed to be more than three hours a week, like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role of the hub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be transformed into being research-oriented by stipulating as such in the Higher Education Act that relieves the time of lectures at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uch legislation will inevitably be a way to gradually reduce the gap of research competitiveness with prestigious universities in highly advanced countries. In addition, small-scale lectures should be increased as a policy. Small-scale lectures will bring about dramatic improvements in students' thinking and speaking skills. Another effect of this will be to provide more teaching opportunities for non full-time lecturers, the subsequent generations of academics, and to help students gain access to a wider variety of subjects.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o far have responded passively to th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due to policies emphasizing only the function of education. The role of the university has not been systematic. To develop a systematic rol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serve as a platform leading the development of local industries and cultural development. It is a known fact that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leads to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local industry. As the main body of research and technology decentralizes, the platform role of hub national universities serves as a way to complet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Government policy should be changed to ensure tha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universities and talents achieve innovative development, technological independence, and independence from local industrialization technology.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2019년도 3차 협의회 개최

The 3rd Meeting of the 2019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eld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2019년 3차 협의회를 8월 9일 오후 전라북도 무주군 호텔 티롤(Hotel Tiro)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학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관련 보고 ▲거점 국립대 국제화를 위한 계절학기 및 국제 여름학교 영어강의 공동운영 방안 ▲리모델링 사업 전용 대체 공간 지원 요청 ▲국립대학법인 비과세 세법 개정 건의 등의 안건을 다루었다.

총장협의회는 대학 ISMS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SMS를 교육부의 '정보보호수준진단'으로 대체하고, 국립대학은 정보보호수준진단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ISMS 의무인증 대상기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거점 국립대 국제화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외국어 강의를 가능한 강사교류 및 관련 정보 공유 등 각 대학 국제교류본부장 협의체에서 실행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사업 전용 대체 공간 지원과 관련, 국립대의 경우 시설의 신축·증축 사업이 배제되고 리모델링(개축) 사업이 증가하는바, 교수연구실·행정실·공용공간 등은 대체 공간을 신축함으로써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국립대학법인 비과세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근거 법령(법인화법)이 기존 국립대학 지위의 포괄 승계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세법상 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로서, 관련 세법에 국립대학법인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국립대학에서의 세제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In the afternoon of August 9th, the 2019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P Korea NU10) held its third meeting at Hotel Tiro in Muju-gun, Jeollabuk-do.

The meeting's agenda included ▲a report on the university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measures to jointly provide programs of the seasonal semesters and English courses of the international summer school for globalization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orea NU10) ▲a request of assistance for alternative space while remodeling ▲suggestion on the legal amendment on the tax exempt status of the incorporated national universities.

Regarding the university ISMS, the CP Korea NU10 recommended that the Science and ICT Ministry's ISMS be replaced with the Education Ministry's "ISMS level diagnosis." Since the national universities have been implementing the ISMS level diagnosis, the CP Korea NU10 decided to request that Science and ICT Ministry exclude the Korea NU10s from the list of the organizations subject to its mandatory certification.

As for globalization of Korea NU10s, the council decided to have the coalition of Korea NU10s' international exchange department heads seek methods to implement sharing information and exchanging university instructors who can lecture in foreign languages.

With regards to support for alternative space while remodeling, the national universities tend to avoid new construction or extension but to prefer remodeling. Thus, newly built alternative space is required for the facilities currently being used by professors, administrators, or both faculty and staff. While remodeling is in progress, Korea NU10s requested that these individuals be able to continue to use such alternative space.

On the issue of the legal amendment on tax exempt status of the incorporated national universities, the base legal statute of the incorporated national universities prescribes general succession of the pre-existing national university status. Nonetheless, the separate tax laws have not been accompanied in practice. The status of the incorporated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be clearly set forth as that of tax exemption in all related tax laws respectively. CP NU10 proposed that the national universities be able to keep its pre-existing tax status.



대학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관련 보고



계절학기 및 여름학교 영어강의 공동운영



리모델링 사업 전용 대체 공간 신축



국립대학법인 비과세 세법 개정 건의

거점 국립대 세계대학평가 공동 심포지엄 개최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eld a Joint Symposium on World University Evaluation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전북 무주군 호텔 티롤에서 'K-NU9 세계대학평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거점 국립대(K-NU9; Korea-National University 9)의 세계대학평가 지표 향상과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THE'의 데이터분석 전문가를 초빙해 거점 국립대의 교육·연구 등 모든 분야의 보완할 점을 검토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에는 총장협의회 회원과 총장, 대학별 평가 관련 보직자·부서장·담당자, 평가업무 유관 교직원, 세계 대학 평가 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총장협의회는 7월 4일 영국 런던 THE 본사에서 거점 국립대(K-NU9)와 THE 간 공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협정에서 양측은 ▲K-NU9 심포지엄 등 각종 회담을 통한 소통 증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광고·홍보 방안 수립 ▲세계 대학평가 순위 향상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에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8월 9일 열리는 심포지엄은 이 협정에 따른 것이다.

이상경 총장협의회 회장은 "거점 국립대와 THE의 공동 심포지엄은 대학 역량 강화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신적인 창의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NU9 심포지엄 등
각종 회담을 통한 소통 증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광고·홍보 방안 수립



세계 대학평가
순위 향상을 위한 데이터 분석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eld a "K-NU9 Joint Symposium on World University Evaluation" at Hotel TiroL in Muju-gun, Jeollabuk-do on August 9th at 10 o'clock in the morning.

This symposium was provided to raise the world university evaluation index of the nin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NU9) and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by inviting an expert data analyst from Times Higher Education (THE). Participants examined K-NU9s' weak points throughout their education and research areas and discussed measures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More than 70 people attended this symposium, including the presidents from the members schools of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ppointees, department heads, and individuals in charge of duties associated with university evaluation; faculty and staff related to the evaluation; and representatives from THE, an organization of world university evaluation.

On July 4th,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executed an MOU between K-NU9s and THE for their joint collaboration at the headquarters of THE in London, United Kingdom. In this MOU, the both parties agreed to ▲increase communication through various conferences including K-NU9 symposiums ▲establish methods of joint advertisements and promotions to strengthen university competitiveness of K-NU9s ▲mutually provide various support, such as data analyses, to raise the world university evaluation ranking of K-NU9s. This August 9th symposium was also held according to their MOU.

The Chairman of the 2019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ang-Gyeong Lee said, "I expect that the joint symposium of K-NU9 and THE will be a great help in strengthening the universities' capabilities and in establishing a system to foster creative and innovative talents who will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거점 국립대 공동 대입설명회 개최



A Joint Presentation on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Admissions Held

A joint presentation on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admissions was held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on July 15th and again at Coex in Seoul from August 9th to 10th to recruit new students for their 2020 rolling admissions.

This university admission presentation was collaboratively sponsored by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o provide various information on their admission processes. Also, it was to strengthen and promote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by focusing on demand for university education, namely prospective applicants. In addition, it was to boost applicants' preference for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nd to expand their base to secure quality talents. This presentation was jointly made by nine schools: Kangwon, Kyungpook, Gyeongsang, Pusan, Chonnam, Jeonbuk, Jeju, Chungnam and Chungbuk National Universities.

The first one of such admission presentation jointly sponsored by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was held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on July 25, 2018. These schools are the top national universities representing each region outside the metropolitan Seoul area, who play the essential role of regional development by creating and providing knowledge and by producing quality talents who will lead their city or provincial regions.

Especially,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require relatively low tuitions and offer various national scholarships so that students can focus more on their study. With their distinguished faculty members, these universities actively put forth the "industry and university cooperation" to lead development of regional industries. Their accumulated asset is also notable, including their network of alumni who excel in various fields of the Korean society. Not only do these advantages help students, but the quota system of regional talents and hiring expansion of public agencies and companies moving away from the metropolitan Seoul area also give a great opportunity for entering freshmen to achieve their dreams.

2020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을 위한 거점 국립대 공동 대입설명회가 7월 15일 전북대에서, 8월 9~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잇따라 열렸다.

이번 대입전형 설명회는 거점 국립대들이 연계하여 다양한 대입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수험생 등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점 국립대가 가진 특징·장점 홍보를 강화하여 거점 국립대학교의 선호도 향상 및 우수인재 유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대학이 참가했다.

거점 국립대 공동 대입전형 설명회는 2018년 7월 25일 부산대에서 처음 열렸다. 거점 국립대는 각 지방권역을 대표하는 제일의 국립대학들

로 각 지역을 이끌어 나갈 우수인재 배출과 지식 생산·제공으로 각 지역과 도시 발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거점 국립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등록금과 각종 국가장학금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교원과 지역산업과의 활발한 산학협력,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졸업 동문 등 축적된 거점 국립대의 자산, 그리고 지역인재 할당제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으로 신입생들이 큰 꿈을 펼칠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부담이 적은 등록금 & 각종 국가장학금



우수한 교원과 활발한 산학협력



지역인재 할당제와 지역인재채용 확대



지역인재 배출을 통한 도시 발전 도모

회원대학 주요 이슈

Important Issues of Member Universities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 충남대학교

A Leading University of
Korea Leaping on to the
World Stag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www.cnu.ac.kr
www.facebook.com/CNUNOW



‘한국-이스라엘 대학총장 국제포럼’ 개최

충남대학교와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이 주관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가 주최한 ‘한국-이스라엘 총장 국제포럼(Korea-Israel University President International Forum)’이 7월 1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제포럼에 참석한 레우벤 리블린(Reuven Rivlin) 이스라엘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한국 대학과 이스라엘 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 오덕성 총장은 ‘Universities & Innovation Ecosystem’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거점 국립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생태계의 중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창조적 인재육성,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R&BD 지원, 지역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고등교육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The Planning and Budgeting Committee) 위원장인 야파 질베르샤츠(Yaffa Zilbershats) 교수는 ‘The Israeli Higher Education System’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이스라엘 고등교육시스템을 소개하고 첨단 분야의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충남대 오덕성 총장의 사회로 한국과 이스라엘 대학 총장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국제포럼에 이어 10개 국립대학, 11개 사립대학, 11개 이스라엘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주체로서 대학의 비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협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협의문은 ▲창의적이고 융·복합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스타트업 및 창업을 육성·지원하는 산학협력 실현 ▲산업의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재생 등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업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기업과 상호 연계된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날 국제포럼에 앞서 6개 대학(기관)과 이스라엘 5개 대학(기관)은 상호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특히, 충남대는 이스라엘 바르일란대학교(Bar-Ilan University)와 일반협정 및 학생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한국-이스라엘 대학(기관)은 학술교류 협정을 통한 상호 협력과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뜻을 함께했다.

‘Korea-Israel University President International Forum’

‘Korea-Israel University President International Forum’ arranged b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NU) and the Embassy of Israel in Seoul, and hosted by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y President Council was held at Grand Hyatt, Seoul on July 17th, 2019. Reuven RIVLIN, the Israeli President explained the importance of higher education system in opening speech and addressed that he would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Korea-Israel universities in various areas for cultivation of excellent individuals.

Dr. Deog-Seong Oh, the president of CNU emphasized that stronghold national university should play a central role as the innovative ecosyste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for which, we should support nurturing creative talented individuals, R&BD for the creation of social and economic value, revitalizing regions and sustainable growth in his keynote speech on ‘Universities & Innovation Ecosystem’. Professor Yaffa ZILBERSHATS, the Chairman of the Planning and Budgeting Committee introduced Israeli higher education system in his keynote speech on ‘The Israeli Higher Education System’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university role in cultivating excellent individuals in advancing fields and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After the keynote speeches, a comprehensive discussion was conducted by 6 Korea-Israel university presidents presided over by Deog-Seong Oh, the president of CNU.

Following the international forum, 10 national universities, 11 private universities and 11 Israeli universities announced the agreement that they will fulfill their vision and role as innovative agent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agreement contains the following four principles. Firstly, cultivation of excellent individuals who would lea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a creative education specialized in fusion and convergence. Secondly, realization of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to foster and support start-up business. Thirdly, collabo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developing industry, creating jobs and revitalizing regions. Lastly, endeavor to construct platform interconnect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local entrepreneur.

Before this forum, 6 Korean universities (institutions) and 5 Israeli universities (institutions) signed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mutual development. In particular, CNU signed MOU and MOA (Memorandum of Agreement) for student exchange with Bar-Ilan University, Israel. Korea-Israel universities (institutions) which have signed agreements joined together for mutual cooperation through academic exchange agreement and common effort to build innovative ecosystem.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충북대학교

A Dynamic Future that
We Will Open Togethe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ww.chungbuk.ac.kr
www.facebook.com/cbnu1

충북대, 미래 산업을 이끌 주역으로 도약!

스마트IT부품·시스템 및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에 앞장

충북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과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인재 양성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충북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충북 청주 강소연구 개발특구'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지역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교육·연구 기능을 새롭게 재편하고, 첨단 미래 산업을 이끌 융합형 인재 양성에 앞장선다. 강소연구 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강하게 연계된 자족형 소규모·고밀도 기술사업화 거점을 구축해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우수한 R&D역량을 갖춘 충북대가 기술핵심기관으로 참여하는 충북 청주 강소특구는 '스마트IT 부품·시스템'을 육성분야로 선정, 스마트전자부품, 스마트센서, 이동체통신시스템 등 세부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개신캠퍼스는 R&D(연구개발)지구로, 오창캠퍼스는 R&D(연구개발)특성화지구로 선정됐으며, 사업화지구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부를 지정받았다.

충북대는 산학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능형 반도체와 스마트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는 것은 물론, 2024년까지 특구 내 연구소기업 60여 개 설립과 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자율자동차 지역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오창 캠퍼스 일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차 지역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Chungbuk·Creative·Cooperative'의 의미를 내포한 충북대 오창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C-track'은 미래 자동차 산업 선도를 위한 창의 오픈형 이노베이션 협력단지 조성의 핵심 인프라로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과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친환경 자동차 중심의 도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안정성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심·야외·순환 구역 등 시험로와 시험동, 통합관제센터 등을 구축한다.

충북대는 스마트카연구센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성능시험장 운영 및 자율주행 기술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개발 인력과 실차 자율주행 플랫폼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충청북도는 자동차 부품에 필수적인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와 자동차 부품기업, 전기차 배터리 생산설비 등이 형성돼 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신산업 추진을 위한 산·학·연 기술협력 클러스터가 육성된 충북 오창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갈 주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CBNU Leads Future Industry!

A leader of Smart IT Parts & System and Self-driving Car Industries

CBNU has been playing a main role in training competent people, whom a local community need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CBNU was chosen for the projects of 'Chungbuk Cheongju Gangso R&D Special Zone' which led by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Self-driving car Regional Test Bed Building' which led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us CBNU will renew its education and research functions and take the initiative in training convergent and competent people to lead high-tech future industry.

The Gangso R&D Special Zone has been made for developing new technology, spreading R&D achievements, and promoting their commercialization. It tries to work as a platform of technology-based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by building a base for commercializing self-sufficient small-sized & high-density technologies, closely connected with a core technology institute which has advanced innovative capacity.

CBNU will participate in this project as a core technology institute based on its advanced R&D capacity. And the Ganso Special Zone will focus on 'smart IT parts and system' and try to develop smart electronic components, smart sensor,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etc. A Gaeshin campus was selected as a R&D zone, an Ochang campus as a R&D special zone, and part of Ochang high-tech industrial complex as a commercialization zone.

Based on the successful experiences in various fields through clos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CBNU will lead intelligent semi-conductor and smart energy research. And it will also try to achieve its goal, that is establishing about 60 enterprise institutes and creating job openings for about 400 people in the Special Zone by 2024.

In addition, CBNU was selected for a project of establishing a self-driving car regional test bed for the first time nationwide. Therefore, it will establish the test bed for environmentally-friendly self-driving service around Ochang campus area.

The test bed 'C-track', which includes the meaning of Chungbuk·Creative·Cooperative, is a key infrastructure to establish a creative and flexible innovation complex and it helps to seize the initiative of future auto industry. It will have test roads, test buildings, an integrated control center, etc. at various situations like downtown, outdoor, and circuit districts. It will cooperate with medium and small-sized companies, venture businesses, universities and colleges, research institutes, etc. and give them stability test services on self-driving technology.

Based on its smart car research center, CBNU operates a self-driving car test site and performs national R&D projects of self-driving technology. So it has a R&D pool, a self-driving platform for real cars, and the related technologies. And Chungcheongbuk-do has a system semi-conduct infrastructure, which is necessary for auto parts, auto parts companies, production facilities for electric car batteries, etc. These conditions can make effective business promotion possible. Therefore, at Ochang, Chungbuk, which has a technology cooperation cluster of industry, school, and research for promoting new industry, CBNU will be able to establish a firm and stable base to be a leader of future auto industry.



1. 자율주행차 연구 학생
The research student of driverless cars
2. 자율주행자동차 지역 테스트베드 구상도
The diagram of a self-driving car testbed
3. 강소특구 위치도(출처-충청북도 공식 블로그)
The diagram of Gangso R&D special zone
(Source-Chungcheongbuk-do Official blog)



통일한국의 중심대학 강원대학교

The Hub University
of the Unified Kore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ww.kangwon.ac.kr
www.facebook.com/knu.abs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DMZ 평화 국토대장정」 완주

‘통일한국의 중심대학’ 강원대학교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DMZ 평화 국토대장정」을 개최했다.

이번 국토 대장정에는 김현영 총장과 조준형 대외협력부총장, 이주경 학생처장 등 주요 보직교수를 비롯한 교직원 39명과 학생 49명 등 총 88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철원군 백마고지부터 화천 평화의댐, 양구 두타연 등을 거쳐 고성군 통일전망대와 남북출입국사무소까지 강원도 내 DMZ 접경지역 4개 지자체 안 보유적지 등을 찾으며 총 600여km 구간을 가로질렀다.

특히, 참가자들은 첫날부터 폭염경보가 내릴 정도의 무더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몰아치는 날씨 속에서도 깨끗하게 한 명의 낙오자 없이 힘든 여정을 완주했다.

이번 국토대장정에 참가한 심우민 학생(문화인류학과 2학년)은 “폭염경보가 내릴 정도의 무더위와 소나기까지 내리는 와중에도 함께 참여한 친구들 덕분에 힘이 났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교를 벗어나 자연과 사람, 통일에 대해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준 총학생회장(통계학과 4학년)은 “무더위 속에서 땀을 쏟아내고 빗속을 걸을 땀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나 혼자만 나 혼자 아닌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걷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총학생회장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인생에 큰 이정표를 새길 수 있어서 기쁘다”고 웃어보였다.

특히, 강원대는 이번 국토대장정 기간 동안 대원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 역량을 키우고, 화합과 소통을 다지기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열어 의미를 더했다. 첫째 날인 13일과 둘째 날 14일에는 탐방일정을 마친 뒤 「통일한국을 대비한 강원대 학생으로서의 역할과 준비」라는 주제로 정지석 국경선 평화학교 대표와 김창환 교수(강원대 DMZ HELP센터장)가 각각 특강을 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토대장정 대원들은 자신들이 걸었던 DMZ의 의미를 되새기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소통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국토대장정을 이끈 이주경 학생처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완주해준 참가 대원들 모두 정말 수고 많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국토대장정의 값진 경험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영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소양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전정신인데, 그런 의미에서 국토대장정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미 나름의 성취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며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DMZ를 걸으며 느꼈던 생각들을 간직해 평화와 통일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는 데 앞장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DMZ Peace Road Korea” Race, Longing for Peaceful Reunifi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lso called the Central University of the Unified Korea, held a “DMZ Peace Road Korea” race longing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lasted for 3 nights and 4 days from August 13th (Tuesday) to 16th (Friday).

A total of 88 athletes including President Kim Heonyoung, Vice President of Overseas Cooperation Cho Joonhyeong, Dean of Student Affairs Lee Joogyong, 36 faculty processors and 49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year’s race.

The participants crossed the road that stretches around 600km, visiting 4 historical sites for national security near the DMZ border within Gangwondo; from Baengmagoji in Cheolwon-gun, the Peace Dam in Hwacheon, Dutayeon in Yanggu to Unification Observatory and Inter-Korea Transit Office in Goseong-gun.

The runners continued the race with a smile under the extreme heat wave on the first day and even when they encountered a sudden shower, not a single person dropped out from the race and finished a long, arduous journey.

Shim Woomin (Sophomore at the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who took part in the peace race gave a brief remark of the event. “We were under this scorching sun and it seemed natural to have a heat wave alert. At times, it showered, but we encouraged each other to finish the race. Although it was a short period of time, it was valuable because I could think about nature, people and reunification outside the school boundary.”

The student council president, Lee Sangjoon (Senior at the Department of Statistics) said, “My body felt heavy and sluggish when

walking under the hot sun and sudden rain, but it was meaningful because we all cherished for reunification; we were not alone.” He smiled and continued. “At times, the heat was intolerable, but I am pleased that I could engrave a large life milestone both personally and as school council president.”

KNU also organized programs to develop interest, strong will and competence in relation to reunification and to strengthen harmony and communication during the peace race, enhancing significantly the event.

On the first and second day after the scheduled visits, the president of Border Peace School (BPS) and Professor Kim Changhwan (Executive Director of KNU DMZ Help Center) gave a special lecture with the following theme: The Roles of KNU Students and Preparations to Make for the Unified Korea. The participants revived the meaning of the DMZ that they just visited and had a free discussion over what they thought about reunification.

The Dean of Student Affairs, Lee Joogyong, who led the peace race said, “I am grateful for all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peace race in such a hot weather and I am really proud of you. I truly hope that this invaluable experience will act as nourishment for you to continue challenging yourself and never give up.”

President Kim Heonyoung explained. “The spirit of challenge is necessar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at sense,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eace race might have accomplished something of their own. I look forward to your future rewriting the history of peace and reunification that you had thought of while walking along DMZ which reveals the tragic division of the country.”



세계를 주도하는 첨성인, 미래를 선도하는 경북대학교

Creating New Trends and
Setting New Standard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ww.knu.ac.kr
www.facebook.com/knustory



경북대, 학부모 대상 대학생활 설명회 개최

“학사일정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어 무척 좋았습니다.”
“아이들의 심리점검을 하고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듣고 무척 안심이 됐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강을 앞둔 8월 21일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효석홀에는 300명이 넘는 학부모로 가득 찼다.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온라인을 통해 참석 접수를 받은 결과 학부모 375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IT대학이 17.1%, 공과대학이 16.3% 등의 비율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부처장들이 직접 경북대의 성과와 강점 그리고 재학생들의 대학 생활과 진로 등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또 사전 접수 시 받은 질의서를 바탕으로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각 부처별 실무자들도 함께 자리해 설명회 중간중간 나오는 학부모들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취업자, 지역인재 7급 공무원 합격자 그리고 국제화 프로그램 참여자가 생생한 체험담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연사로 나선 동문과 재학생은 직접 만든 PPT로 발표를 진행하며, 학부모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냈다.

특히 교환학생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해외에서의 생활이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지만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는 재학생의 의견에 많은 학부모들이 수긍했다.

모든 발표 후에 개별 질의를 할 수 있는 부처별 부스를 마련한 경북대는 종료 예상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마지막 학부모까지 상담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참가한 학부모들은 “대학생인 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무척 깊어졌다”며 행사에 만족을 표했다. 경북대는 학부모들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고 난 뒤 궁금한 점은 많지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 대학과 학부모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 행사를 기획했다.

경북대는 이번 설명회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더욱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lds a University Life Information Session for Parents

“It was great to hear about the academic schedule and so on.”

“I was very relieved to hear that there were programs such as psychological checkups and counsel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eld a University Life Information Session for Parents of Students. Right before the start of the new semester on August 21, the Global Plaza Hyo Seok Hall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as filled with more than 300 parents. After receiving applications online for eight days from July 24-31, 375 parents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The College of IT Engineering had a 17.1 percent attendance rate and the College of Engineering 16.3.

At the event, the administrative Vice Deans personally presented the achievements and strengths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d the careers of its students by showing detailed data. Also, intensive guidance was given on what parents were most curious about based on the questionnaire they were given in advance. Working-level officials from each department also offered immediate answers to questions

from parents on site during a Q&A session.

Those employed in public institutions, those who passed the grade 7 civil service test through local talent program, and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program delivered their experiences as well. The alumni and students lecturers conducted the presentation with their own Powerpoint Presentation and won over the hearts of many parents. In particular, many parents agreed with the student opinion that life abroad was worth the challenge, although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and risks.

The information session was followed by time at an assortment of booths for each department to allow parents to ask individual questions even though the expected closing time had well passed. Parents said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event, saying they had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ir childre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signed this event to provide a venue for communication with universities and parents, considering that parents have many questions once their children go to college, but lack resources to resolve th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ev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make an effort to become a more loving and proud university for its students and their parents.





미래가 있는 대학, 다 함께 행복한 대학 SMART GNU 경상대학교

The University with a
Promising Future and Full of
Happiness! SMART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ww.gnu.ac.kr
www.facebook.com/likegnu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술핵심기관’ 지정 기술-창업-성장 선순환... 글로벌 항공우주 생태계 조성

경상대학교를 ‘항공우주 부품·소재 분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는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신규 지정됐다.

강소연구개발특구란, 대학·병원·공기업 중 R&D 보유 역량의 우수성을 검증받은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집적화된 소규모 공간 범위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연구기관·대학 등의 연구개발 촉진과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고 R&D 성과물의 사업화를 통해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 촉진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참여 기관은 기술핵심기관인 경상대를 비롯해 진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과 정촌산업단지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등이다. 경상대와 진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정촌면 일대에 조성 중인 항공국가산업단지를 특구 배후공간으로 하고 있다.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는 올해부터 매년 국가보조금과 지방비 매칭을 지원하여 항공우주 부품·소재 산업 기술이전 및 상용화 지원, 연구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특허·인증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경상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항공기계시스템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집중 육성해 왔다. 교육부의 1단계·2단계 두뇌한국(BK)21, 두뇌한국(BK)21 플러스, 공동연구센터(DRC)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항공임베디드 SW연구센터 등의 사업을 통해 항공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에 매진해 왔다.

또한 경상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공동으로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을 설립·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7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ERC)’에 선정돼 원천·응용연구연계가 가능한 고효율·안전 항공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상경 총장은 “기술핵심기관인 경상대는 유망기술 발굴, R&D, 인력양성을 통해 기술이전과 취업·창업 등 산학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2024년까지 강소특구를 통해 기업 270여 개 유치, 고용 창출 1,099명, 매출 증대 901억 원 등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생산 유발효과 1조 4,446억 원, 고용유발효과 7,123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signated as the “Technology Core Center” of the Jinju InnoTown

Creating the Global Aerospace Ecosystem with a Virtuous Cycle of Technology-Venture-Growth

The city of Jinju in the province of South Gyeongsang was newly designated as an InnoTown wher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was selected as its technology core center in “the field of aerospace parts and materials.”

An InnoTown is a small integrated zone centered around a designated core organization selected from universities, hospitals, or public companies whose R&D capability and quality have been verified. This special zone designated as an InnoTown aims to accelerate R&D of research centers and universities as well as to vitalize their mutual cooperation. It also aims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to accelerate the advancement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n each region by commercializing R&D outcomes.

Participating organizations in the Jinju InnoTown include Korea Testing Laboratory which was a public research center prior to the Jinju Innovation City; Korea Institute of Ceramic Engineering and Technology; Korea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Jinju Roots Technical Support Center) located in the Jeongchon Industrial Complex; in addition to GNU, the technology core center of the newly designated zone. The backdrop of this special zone is the Aviatio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currently being built in the vicinity of GNU, the cluster lot of “industry-university-institute” collaboration in Jinju Innovation City, and Jeongchon-myeon.

Starting from this year, the national government will provide its annual financial assistance and match the local fund for the InnoTowns. These special zones will carry out various support projects to transfer and commercialize technology of the aerospace parts and material industry; help small research enterprises; foster professional manpower; and assist application of patent and certification.

Since the mid-1990s, GNU has focused on fostering the aeromechanical system as the field of its characterization. It has striven to develop and foster expert technology and manpower in this field through various measures including the first and second phases of Brain Korea 21, Brain Korea 21 Plus, as well as the Degree and Research Center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addition to Korea Aviation Embedded Software Research Center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reover, GNU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its Aerospace Characterization Graduate School together with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nd Korea Aerospace Industries. In 2017, GNU was selected as the “Engineering Research Center of Aviation Core Technology”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GNU has put spurs into development of highly efficient and safe aviation core technology that can be linked to source and applied research.

The GNU President Sang-Gyeong Lee said, “GNU, the technology core center, will do its best to further vitalize ‘industry-education cooperation’ in technology transfer, employment, and venture by identifying prospective technology, advancing R&D, and fostering talents.” With its InnoTowns,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South Gyeongsang looks forward to direct and indirect economic ripple effects such as bringing 270 companies, creating 1099 jobs, and reaching a sales increase of 90 billion Won in the region by the year 2024. It also hopes for subsequent effects on production of 1.4 trillion Won and employment of 7,123 workers triggered by invigorating the economy of South Gyeongsang.





학생의 미래가 있는 대학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 부산대학교

A University Guided by
the Future of Students, A University
Loved by the People
**Pusan
National University**



www.pusan.ac.kr
www.facebook.com/PusanNationalUni

부산대, 세계 고등교육 도약 위한 국제 교류·협력 견인 한·중대학, 세계대학 총장포럼 등 각종 국제행사 잇달아 개최

세계 대학 총장단 등 국제사회 교육계 인사들이 지난 7월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의 부산을 대거 방문했다.

부산대는 7월 1일부터 「제11회 한·중대학 총장포럼」(7.1~7.2.)을 시작으로 「통일 통합공동심포지엄」(7.3.), 「세계대학 총장포럼」(7.10.) 등 세계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국제적 교류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각종 국제행사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학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 세계에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자 모인 50여 명의 세계 각국 대학 총장단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제11회 한·중대학 총장포럼」 한·중 함께 고등교육의 길 모색

지난 7월 1일과 2일 이틀간 부산대가 주최한 「제11회 한·중대학 총장포럼」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대학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청사진을 그려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글로벌 시대 한·중 고등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27개 한국대학 총장과 12개 중국대학 총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동북아 커뮤니티 구축’, ‘통일시대 대비 한·중대학의 역할’ 등 격동하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국과 중국 양국의 고등교육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그려보는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1995년 ‘한·중교육교류약정’이 체결된 이래 한국과 중국이 매년 번갈아 개최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부산대는 학술행사뿐만 아니라 한·중대학 총장단을 부산대 캠퍼스로 초청해 투어를 실시하고, 클래식과 한국전통음악 등 부산대 학생들의 공연을 마련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제7회 세계대학 총장포럼」 국제 교류·협력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이어 7월 10일에는 「세계대학 총장포럼」이 부산대 상남국제회관에서 열렸다. 「세계대학 총장포럼」은 현 대학 교육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고 국제적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성공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60여 개국 120여 명의 대학 총장 및 교육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행사는 전 세계 대학 총장들에게 국내 최초의 종합국립대학이자 민주화와 산업화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여정을 함께한 부산대를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양성과 대학교육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포럼은 ‘글로벌 인재의 성공적 마인드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시대의 인재양성에 필요한 교육의 방향성과 인성 교육의 역할과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7월 3일에는 「인천대통일통합연구원-연변대-거점국립대공동심포지엄(통일통합공동심포지엄)」도 부산대 상남국제회관에서 열렸다. 공동 심포지엄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 통일통합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PNU Drives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for the Advancement of World Higher Education

It holds various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the Korea-China University Presidents Forum and the World University Presidents Forum

In July, a number of important academic officials, including university presidents from around the world, visited Busan, South Korea to attend an international event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PNU).

Starting with the 11th Korea-China University Presidents Forum (July 1-2), a series of international events have been held at PNU to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around the world. These include the Unification & Integration Joint Symposium (July 3), and the World University Presidents Forum (July 10). The events were attended by more than 250 people, including about 50 university presidents from around the world. These officials gathered to promote changes that will encourage further development of universities and education.

The 11th Korea-China University President Forum Korea and China have joint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of higher education

The 11th Korea-China University Presidents Forum, hosted by PNU on July 1-2, was organized for South Korea and China to explore a cooperative blueprint for 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and education.

The theme of this forum was “The Future of Korea-China Higher Education in the Global Age.” It was attended by presidents of 27 Korean universities and high-ranking representatives from 12 Chinese universities. A variety of topic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were held on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such as “Building a Commun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Role of Korean and Chinese Universities in Preparation for the Era of Unification.” These discussions aimed to predict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and China in the midst of a turbulent global era.

Since the signing of the Korea-China Education Exchange Agreement in 1995, the forum has been held alternately by South Korea and China. This year’s event was more successful than ever. In addition to academic forums, PNU invited the presidents of Korean and Chinese universities to tour its campus, and PNU students performed classical music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to rousing responses from the forum participants.

The 7th World University President Forum The forum contributes to fostering global talent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On 10th July, the World University Presidents Forum was held at the Sangnam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of PNU. The Forum has been held annually since 2013 to examine problems in current university education, and to set the stage for meaningful changes through international networks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event aims to foster people with the right values and personality and share successful approaches to educational programs.

Attended by a total of 120 university presidents and education officials from 60 countries, the event was a chance to introduce PNU to university presidents from around the world. The South Korea’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integral to the course of modern Korean history, including the eras of democra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lso, PNU has become a venue to foster talent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share know-how in university education.

The forum was held with the theme: “Successful Education for the Minds of Global Talents.” Participants came to a consensus on the direction of education, the role of personality education and the need for introduction of personality education as necessities for fostering talent in the current era.

On 3rd July, INU-Yanbian University and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cooperatively held the Unification & Integration Joint Symposium at the Sangnam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at PNU. The joint symposium carries out joint research on establishing a sustainable system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Peninsula, and to address the unification integration tasks for the Korean Peninsula.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 서울대학교

A Community of Knowledge
and Creativ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www.snu.ac.kr
www.facebook.com/SeoulNationalUniversity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AI for All

한층 치열해지는 AI 주도권 쟁탈을 위한 국제 경쟁에 서울대학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AI 교육, 연구, 산학을 아우르는 국가 AI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서울대 AI위원회 발족이 그 일환이다.

AI는 대부분 학문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플랫폼)인 동시에 거의 모든 분야에 응용 가능하다. 서울대는 다양한 학문 분야를 넓게 아우르는 우수한 인재, 연구 환경과 AI를 결합시켜 획기적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AI 위원회는 'AI for All' 슬로건에 맞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지낸 최양희 공과대학 교수(위원장)를 주축으로 공학 분야를 포함해 의료, 인문, 사회, 경영, 법학, 예술 등 AI가 적용될 다양한 분야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이호수 전 SK텔레콤 사장과 벤처투자사 '캡스톤파트너스'의 송은강 대표 등 총 18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최양희 위원장은 "한국은 반도체나 의료, 보건 쪽에 이미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AI는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 연구, 산학이 협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와 낙성대 지역을 AI 관련 교육, 연구, 창업, 산학, 네트워크가 연계되는 대학 중심의 산업 생태계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나아가 서울대 AI밸리가 실리콘밸리처럼 한국 AI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 국내외 인재와 자금이 모여,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AI 연구원 설립

먼저 1단계(2019)에서 故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의 기부금으로 조성될 '해동AI기술원' 내에 서울대 AI연구원을 설립하고, AI에 관련된 서울대 교육, 연구, 산학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AI에 관련된 200명 이상의 서울대 교수진, 1,500명 이상의 대학원 연구진으로 구성된 AI연구원은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글로벌 연구진과의 협업, 스타트업 창업도 추진한다.

AI 밸리 조성

제2단계(2020~)에서는 서울대 캠퍼스와 인접한 낙성대 지역에 서울대와 협력하는 AI 연구, 산업 생태계 즉 AI 밸리를 조성한다. 서울대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 연구소, 투자·법률·마케팅 관련 회사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AI 글로벌 밸리 확장 조성

제3단계(2022~)에서는 추후 AI 에코시스템의 성장으로 낙성대 지역의 공간, 시설 부족 상황을 대비해 10만 평 규모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AI 글로벌 밸리'로 확장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

AI For All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 decided to step forward into the increasingly competitive international AI sector. To direct this initiative, the university created an AI council to coordinate developments in education, research, and cooperation with industry with respect to AI.

AI promises to revolutionize academic study and may find application to nearly all fields. The university seeks a breakthrough in development and growth, combining AI with existing talent and research environments across a wide range of disciplines.

Embodying the slogan "AI for All," 18 professors and experts from various fields with potential for AI-related development, such as engineering, medicine, the humanities, the social sciences, business administration, law, and art, including Lee Hosoo, a former president of SK Telecom, and Song Eunkang, Managing Partner at the venture investment company Capstone Partners.

Professor Choi Yanghee, chair of the committee, said, "Korea is already strong in semiconductor, medicine, and healthcare," adding, "Because AI is applicable to any field, we'll make sure to promote education, research, and academic-industry cooperation as we work."

President Oh Sejung of the university stated, "We plan to create an industrial ecosystem around the university to link AI-related education, research, startups, industries, and networks," explaining, "We'll develop Seoul National University AI Valley to serve as an AI innovation ecosystem where talents and funding from home and abroad can gather, free from regulation and full of entrepreneurship, like Silicon Valley."

Establish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I Institute

The first stage (2019) will s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I Institute established at Haedong AI Technology Institute, to be created from a donation by the late Kim Jungsik, Chairman of Dae Duck Electronics, to promote the university's AI-related education, research, and cooperation with industry. With 200 professors and 1,500 graduate-level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the AI Institute will collaborate with industry, engage in international research, and drive startup incubation.

Creation of AI Valley

During the second stage of the development of this project (2020-), AI Valley, an AI research and industrial ecosystem in Nakseongdae nea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campus, will be created for collaboration with the university. It will be designed to attract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ions, research centers, and investment, legal, and marketing companies, as well as housing intramural research cen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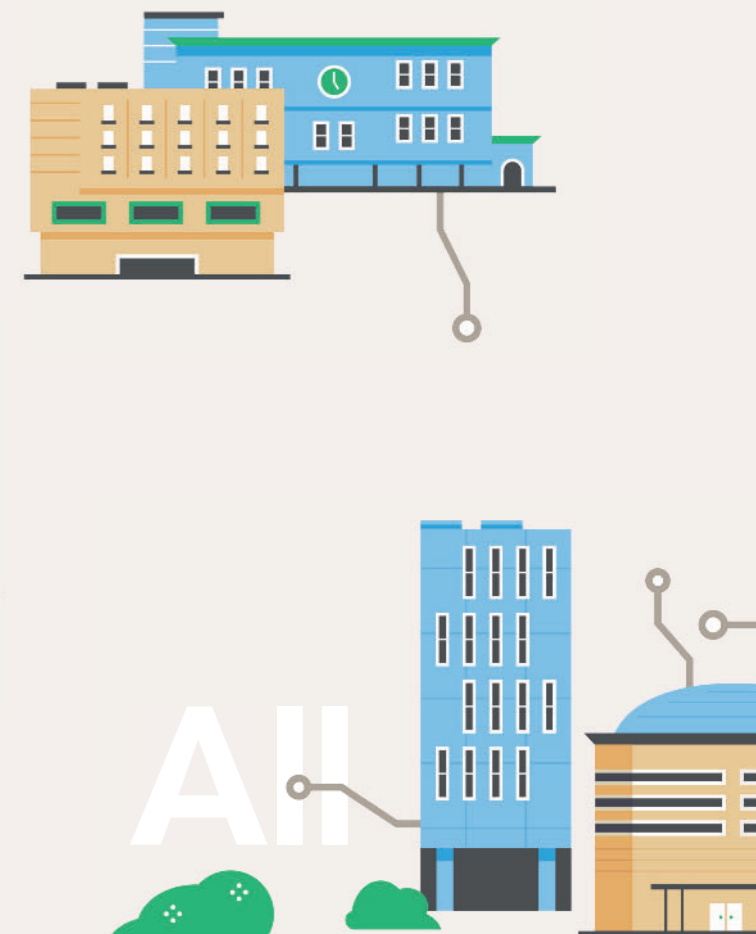
Expansion into AI Global Valley

During the third phase (2022-), AI Global Valley will be created by securing additional 330,000 square meters to prepare for the growth of the AI ecosystem in Nakseongdae and the resulting shortages of space and facilities.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명칭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개원 시기	2020년 봄학기
개설 과목	자율주행,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정원	석사과정 40명, 박사과정 15명





금지과 희망,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Pride & Hope, Cherish the Truth,
Enlighten the Worl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ww.jnu.ac.kr
www.facebook.com/ChonnamUniv

전남대, 기초과학 분야 국책사업 잇따라 선정

전남대학교가 기초과학 분야에서 대형 국책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150억 원 가량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되는 쾌거를 올렸다.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고정태 교수 연구팀이 선도연구센터사업 기초과학 분야(MRC)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7년간 10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연구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사업에 '경조직 바이오인터페이스 연구센터'의 이름으로 경조직 항상성 조절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질환의 예방, 진단치료를 위한 신개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에 나선다.

또 광주시와 (주)쿠보텍의 지원을 받아 경조직 질환 극복을 위한 실용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이로써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11년 바이오미네랄 장애연구센터에 이어 올해 또다시 경조직 바이오인터페이스 연구센터가 MRC 분야에 선정된데다 앞선 사업의 연구결과가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네이처'에 게재되는 등 정상급 연구역량을 과시하게 됐다.

고정태 교수는 "인체조직과 경조직 사이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경조직 질환의 새로운 병인과 제어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현대사회에 만연한 염증·대사질환 환자의 경조직 질환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융·복합 전문핵심 연구지원센터'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됐다.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은 대학의 유휴·저활용 연구장비를 연구분야별로 모아 성능을 보완하고 전담인력을 충원해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전남대 '에너지 융복합 전문핵심 연구지원센터'(Core Facility, 연구책임자 하준석 화학공학부 교수, 이하 핵심연구지원센터)는 4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올해 본 사업에까지 선정된 '핵심연구지원센터'는 앞으로 6년 동안 모두 38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분야에도 함께 선정돼 공동활용 장비의 운영과 더불어 연구역량 강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대 핵심연구지원센터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분야 연구 활성화 및 연구수요 증대에 대응하고자 초기 연구투자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핵심장비를 공동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구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조성됐다.

이에 따라 특화 연구분야 연구핵심장비 수요조사를 통해 장비사용료를 신규장비 도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유관연구분야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문핵심 연구지원체계 구축 및 선도형 원천기술 창의연구를 지원하는 등 연구기반을 다지게 된다.

센터 관계자는 "특화 연구분야 연구핵심장비 수요조사를 통해 장비사용료를 신규 장비 도입에 사용토록 해 유관 연구분야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문핵심 연구지원체계 구축과 선도형 원천기술 창의연구를 지원하는 등 연구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elected for Government Research Projects in Basic Sciences

CNU has been selected to participate in two large-scale national research projects in the field of basic sciences, receiving 15 billion KRW in government grants.

A CNU Research Team led by Professor Koh Jeongtae (School of Dentistry) has been selected for the Advanced Research Center Program's Medical Research Center (MRC) Project and will receive a total of 10.5 billion KRW in grants over the next seven years.

The Advanced Research Center Program is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Professor Koh's research team, the "Hard Tissue Biointerfaces Research Center," will conduct research concerning foundational proprietary technology, enhancing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hard tissue homeostasis and contributing to the prevention, the diagnosis, and the treatment of various dis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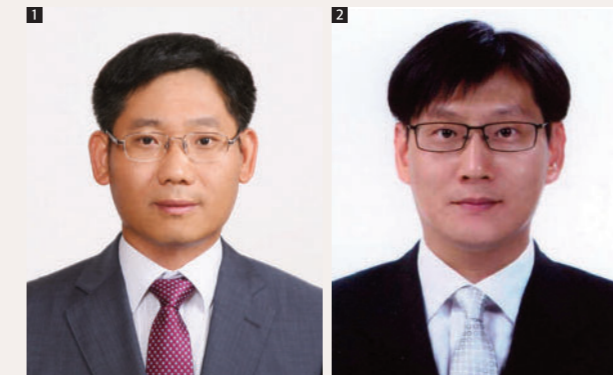
In addition, the research team will cooperate with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Kwotech, Inc. to commercialize the results that will foster development of treatments for hard tissue diseases.

CNU School of Dentistry, headed by its dean Professor Kim Byunggook, selected the Hard Tissue Biointerfaces Research Center to join the existing "Research Center for Biomineralization Disorders," which was selected as an MRC in 2011. The Biomineralization Research Center has published its research findings in world-renowned scientific journals including Nature.

Professor Koh stated, "The Hard Tissue Biointerfaces Research Center aims to clarify the interactions between soft and hard tissues, presenting new pathogenesis findings and a new control method related to hard tissue diseases. This is expected to bring about a completely new treatment method for hard tissue diseases found in patients with inflammations and metabolic disorders."

In addition to the above, the CNU's "Core Facility for Energy Convergence Research Team," whose principal research fellow is Professor Ha Junseok of the School of Chemical Engineering, has been selected a recipien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s "Support Program for the Advancement of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1. 고정태 교수 Professor Koh Jeongtae
2. 하준석 교수 Professor Ha Junseok



This program, implemented this year, aims to promote core technology support centers by creating a research ecosystem that shares idle research equipment, enhancing the capacity for efficient use by specialized workforces.

The CNU Core Facility for Energy Convergence Research was selected after four stages of screening.

Having begun as a pilot project in 2018, the CNU Core Facility for Energy Convergence Research in its full operation will receive 38.5 billion KRW over six years. Its selection for the above research support project is expected to produce a synergistic effect, as efficient equipment sharing fosters improved research capacities for all participants.

The CNU Core Facility for Energy Convergence Research was established to foster research centers in the fields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and energy convergence, reducing initial costs through sharing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in order to meet the demands for new accomplishments in research.

The Core Facility will conduct basic research on equipment demand via surveys and advise research facilities to purchase only research equipment not available in the shared inventory. It is expected to create a friendly environment for research centers and efficiently build a fundamental and professional support system that will foster creative leading research in basic proprietary technologies.

A center official stated, "It will be beneficial for the research laboratories to use their equipment budgets only for new equipment, which is not available via the sharing system. This sharing system has been made possible by the surveys of core equipment usage within and across specific research fields. By enabling the sharing of equipment and facilities for research, this program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beneficial research ecosystem for related fields and creative research for source proprietary technologies."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 전북대학교

The Best Glocal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 산학협력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공로

전북대학교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장화영 팀장이 산학연 기술협력 유공자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전북대가 단체와 개인상을 모두 받는 겹경사를 누렸다. 시상식은 8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20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열렸다.

전북대의 이번 대통령 표창은 대학의 연구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산학협력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전북대는 1993년 현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의 전신인 산학연지역 컨소시엄센터 설치 이후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산학협력중점사업 호남권역 주관기관 선정, 연구마을지원사업 주관기관 2회 연속 선정,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호남-제주권역 주관기관 2회 연속 선정 등 다수의 협력과제를 수행하며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또한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우수기관 선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2회 연속),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등 대학 내 산학협력 체제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산학협력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최근 3년간 1,391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541건의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등 우수 연구기반 사업 수행과 기술사업화 성과 확산을 위해 산학연 연계교육, 지원 사업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화영 팀장은 산학협력과 기술개발사업 지원 등을 주도해왔다. 장 팀장은 대학 내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정착시키고, 교내 전문 인력풀을 활용, 기업과의 산학협력 R&D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촉진 및 기술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

김동원 총장은 "우리 전북대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대학 내에 집적화해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신산업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과 인프라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 성장 지원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학이 가진 인프라가 기업의 혁신적 성장과 청년 일자리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www.jbnu.ac.kr
www.facebook.com/cbnu1947

Jeonbuk National University, best Institute for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and recipient of 'Presidential Citation'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ntributing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Jeonbuk National University(JBNU) received a Presidential commendation for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for their contributing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In addition, The team leader of the Industry University & Institute Partnership Division Center of JBNU, Jang Hwa Young, was awarded for her contribution to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b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JBNU received both group and individual awards. The award ceremony was held at the 20th Innovative Technology Show at COEX in Seoul on August 26, 2019.

JBNU was chosen for the Presidential commendation as the best institution for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 2019, in recognition of its contribution to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y utilizing the university's research competence.

Since the establishment of a consortium center in the industrial-academic region in 1993, which is the predecessor of the current Industry University & Institute Partnership Division Center, JBNU has made an effort to revitalize the industry-academy cooperation by conducting many businesses such as the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the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project for Honam region as a selected host organization, the research-village support project selected twice, and the customized

technology partner support project of Honam and Jeju areas.

JBNU was also recognized for its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local industries by revitalizing the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projects by upgrading the system of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of the university. It has been possible because the university was selected as an excellent institutions for LINC (Learning College for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and social-tailored Industry Cooperation (LINC+), a leading business incubator to nurture start-up universities selected twice in a row, and the best institution of start-up center.

In particular, over the past three years, the JBNU has carried out 1,391 governmental research projects and applied for 541 related patents, and has continuously conducted industry-academic education and supported business briefing sessions to carry out best research-based projects and to spread the achievements to the industrial area.

During this time, team leader Jang Hwa Young has led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and supported for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She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of innovation growth and security of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y activating R&D for industry-academic cooperations and by establishing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for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in universities.

President Kim Dongwon said: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ave made an effort to foster global-star companies and to create ecosystems by consolidating infrastructure to help companies grow. With this, we will take the lead in establishing an innovative ecosystem for creating an innovation cluster base for new industries of our region. Moreover, we will do our best to support technology growth and the innovative growth of companies and to create new jobs for the young through the infrastructure of the university."

1. 전북대 산학협력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Jeonbuk National University, best Institute for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and recipient of 'Presidential Citation'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은 장화영 팀장(우측에서 세 번째) Jang Hwa Young(team leader) received the Minister's award by the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MSS)





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제주대학교

To the Basic, For the Fu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www.jeju.ac.kr
www.facebook.com/
제주대학교-1536145756655629

정부지원 중점연구소 3곳 동시 선정 생명과학분야 최초...국비 217억 원 확보

제주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2019년 이공분야생명과학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서 3개 연구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생명과학분야 중점연구소 3개 사업 동시 선정은 전국 대학 최초다. 이에 따라 제주대는 9년간 국비 217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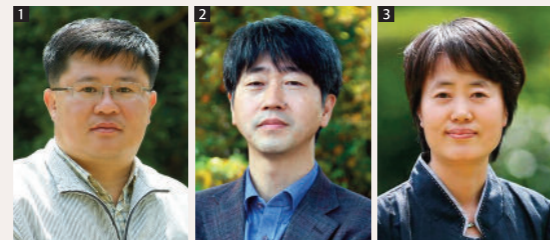
이번에 선정된 중점연구소는 해양과학연구소(소장 이재희), 기초과학연구소(소장 김명숙),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소장 이효연)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대학부설연구소의 인프라를 지원해 대학의 연구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대학 연구역량 강화 및 우수 연구인력 육성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이다. 제주대는 이번 3개의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해양바이오와 아열대원예산업, 제주 청정자원에 기반한 기초과학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과학연구소는 '양식생물 생체방어 연구'라는 주제로 향후 9년간 약 6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해양바이오 특화 연구 및 인력양성을 목표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과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셈이다. 특히 이 사업은 제주대 해양과학대학 연구진뿐만 아니라 제주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양식시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와 제임스쿱대학(호주), 아이다호대학(미국), 오하이오대학(미국), 애리조나대학(미국) 등 해외 대학 및 연구소도 참여해 협력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는 지난 9년간의 중점연구소사업 실적과 향후 연구 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학중점연구소 후속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아열대작물육종분야 특성화 대학중점연구소'로서 향후 6년간 정부로부터 42억 원을 지원받는다.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는 지금까지 감귤 선발 기술 확립 및 잔디 신품종 육성 등의 연구를 통해 기술이전 4건(기술이전료 6,550만 원), 전문학술논문 126편, 학술발표 359건, 특허출원·등록 21건, 품종출원·등록 11건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기초과학연구소는 '청정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기초과학 통합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제주 생물권 보전 및 청정환경 연구의 메카'라는 연구비전을 제시해 '2019 이공분야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됐다. 향후 9년간 약 99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송석연 총장은 "이번 연구소 유치는 대학의 기본인 '연구'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우리 대학의 연구자들이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 제주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대학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 이효연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장 Hyo-yeon Lee, Director, Subtropical Horticulture Research Institute
2. 이재희 해양과학연구소장 Je-hee Lee, Director, Marine Science Institute
3. 김명숙 기초과학연구소장 Kim Myung-sook, Director, Research Institute For Basic Science

Three National Core Research Institutes funded; First life science center established... Winning 21.7 billion KRW grants

Jeju National University has succeeded in winning grants to establish three research institutes under the '2019 Science and Engineering (life science) University Core Research Institute Project'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he grants came with a total funding of 21.7 billion krw for 9 years. Jeju National University was the only one in the nation having succeeded in getting three research institutes simultaneously.

The newly funded core institutes are Marine Science Institute (Je-hee Lee, Director), Research Institute For Basic Science (Kim Myung-sook, Director) and Subtropical Horticulture Research Institute (Hyo-yeon Lee, Director).

The university core research institute project aims at establishing the research program to consolidate the institutional research potentials as well as to train superior research scientists and engineers.

As a result of the three core research institutes funded, the university has excellent opportunities to invigorate research in the areas of marine bio-industry, subtropical horticulture industry and the basic science research based on Jeju's clean environmental resources.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Marine Science Research Institute with its main mission of studies in "Biological Defence Mechanism in Cultured Organisms" received a 9-year grant totalling 6,000,000,000 KRW from the governmental funding agency. The institute aims at specialized research and scientific training to develop sustainable fisheries industry and tackle the region's pending issues.

Noteworthy, the project not only involves the JNU institute's researchers, but also collaborates with those from the Jeju Institute for Marine and Fisheries Industry, the Jeju Association of Fish Farming Industries,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Jeju Laboratory, James Cook University (Australia), the University of Idaho (U.S.), Ohio University (U.S.), and the University of Arizona (U.S.).

Subtropical Horticulture Research Institute has been selected for inclusion in the "University Flagship Research Institute Follow-Up Studies Project" based on its past 9-year records of research performance and the meritorious research proposal for the next 6 years with a renewal grant totalling 4200,000,000 KRW.

The subtropical horticulture institute has established the mandarine citrus screening technology and developed new turfgrass breeds, resulting in technology transfer revenue (65,500,000 KRW), 126 scientific publications, 359 conference presentations, 21 patents, and 11 newly breed cultivars.

The JNU Basic Science Institute with its mission to establish the consolidated basic science platform for environmentally clean Jeju and its conservation was selected for funding based on the proposal to conserve the Jeju's bio-sphere and become a mecca for environmental research. The institute has been funded for its project with a 9-year grant totalling 9,900,000,000 KRW.

JNU President Seok-Eon Song stated that "successful grant funding resulted from our faculty's research accomplishments," and promised to provide enthusiastic support for the research that positively contributes to the future of the country.



Korea NU10 Introduction to Korea NU10

충북대학교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수갑 President Kim Sukab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 1951년 초급농과대학으로 시작, 2018년 신수도권 중심대학으로 도약 원년
- 2014~2018 학생만족도 1위(NCSI 조사),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설립 운영
- 조화, 품격, 미래를 바탕으로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를 그리는 충북대학교
- Beginning as a junior agriculture college in 1951, CBNU has leapt to its current status as a major university in the new capital area
- Standing as the No. 1 university in Student Satisfaction (NCSI Survey), from 2014 to 2018, CBNU has established and ran the Sejo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olicy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raws a Dynamic future based on the three core values of Harmony, Dignity and Future

전북대학교 JBN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동원 President Kim Dongwon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Korea

- 1947년 인가된 도립 이리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군산대학관을 모태로 개교
-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창의인재 양성
-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2012, 2015, 2017년 학생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 Founded as Iri Provincial College of Agriculture (1947), consolidated with Myeongnyun College (Jeonju) and Gunsan College (1952)
- Creative talents cultivated by innovative education platform
-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tudent service satisfaction by KS-SQI (2012, 2015, 2017)

제주대학교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총장 송석인 President Seok-Eon Song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로 102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243, Korea

- 1952년 도립 초급대학으로 시작, 도립 제주대학 승격 후 국립대학 기관
-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 통합,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교육기관 발돋움
- 경쟁력 있는 지식창출로 국가발전 선도
- In 1952, Jeju Provincial Junior College was founded. It became the four-year Jeju Provincial College in 1955 and designated as a National University in 1962
- Merged with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08. Become a world-class university alongside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with competitive knowledge creation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총장 오세정 President Oh Sejung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 1946년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을 갖춘 국내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교로 출범
- 1975년 관악캠퍼스 설립으로 캠퍼스 종합화 달성
-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선도
- Established a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with 9 Colleges and 1 Graduate School
- Centralized dispersed campuses in Gwanak
- Played centr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충남대학교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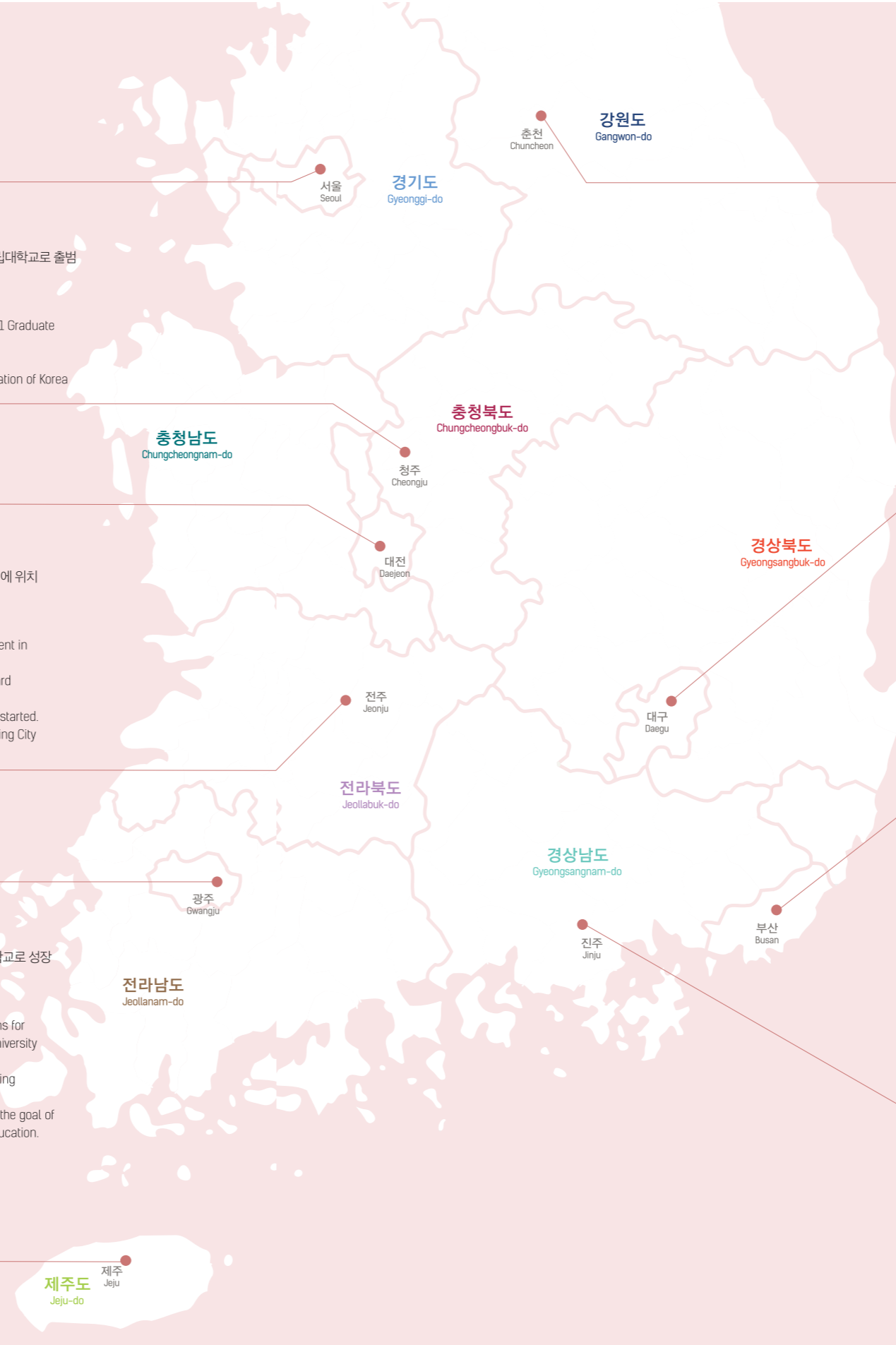
총장 오덕성 President Deog-Seong Oh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99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 1952년 도민의 일두일미(一斗一米) 운동으로 설립, 대덕연구단지에 위치
-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성장 목표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착수, 세종특별자치시에 캠퍼스 설립
- Established through the rice donation campaign by every resident in 1952 in Daedeok Science Town
- The goal is to be the leading university of Korea spreading towar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sidents
- Construction of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tarted. The campus will be constructed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전남대학교 CN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정병석 President Jeong Byungseok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77 Yongbong-ro, Buk-gu, Gwangju, 61186, Korea

- 1952년 도민 고등교육 열망으로 설립, 호남 제일의 거점 국립대학교로 성장
- 자유와 평화 민주 인권 수호, 한국 민주주의 발전 주도
- 어젠다 2021 수립, 미래형 창의 융합교육 선도
- Since its foundation in 1952 upon the desire of the local citizens for higher education, CNU has become the top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n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 CNU has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safeguarding the nation's freedom,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 CNU recently promulgated and announced 'Agenda 2021' with the goal of leading innovative convergence with a focus on creativity in education.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현영 President Kim Heonyoung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Korea

- 1947년 춘천농업대학 출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학 이념
- 춘천-삼척-도계 3곳의 멀티캠퍼스 체제 구축
- 거점 국립대 취업률 1위(2018년 1월 정보공시 기준)
- Established Chuncheon Agricultural College in 1947, with the founding spirit of the quest for truth based on practical science
- Integrated three campuses in Chuncheon, Samcheok and Dogye into a multi-campus system
- Achieved No.1 employment rate among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Based on the information notice in January 2018)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상동 President Kim, Sang-Dong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 1946년 9월 국립대학 승격(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 '진리·금지·봉사' 교시로 글로벌창의인재 '첨성인(瞻星人)' 양성
- QS 세계 대학 취업능력 랭킹 국내 6위
- Upgraded to National College in September 1946 (comprised of the Colleges of Education, Medicine, and Agriculture)
- KNU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talented, globally creative student, or 'Cheom-seong-in' (瞻星人), under KNU's Educational philosophy of 'Truth, Pride, Service'
- KNU ranks 6th in Korea in the QS World University Employability Rankings

부산대학교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총장 전호환 President Ho-Hwan Chun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로63번길 2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

- 1946년 5월 15일 국내 최초 종합 국립대학으로 출범
- 진리·자유·봉사의 건학 이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 6개 학문분야 QS평가 세계 101~200위권, 융합과 통섭형 엘리트교육
-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on May 15th, 1946
- Guided by the university's founding values of truth-freedom-service to become a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 Six departments are ranked in the top 101~200th by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Elite education through the fusion and convergence of disciplines

경상대학교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총장 이상경 President Sang-Gyeong Lee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501, Jinju-daero, Jinju, Gyeongnam, 52828 Korea

- 1948년 경남 도립 진주농과대학 개교, 1972년 '경상대학'으로 교명 변경
- 식물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 분야 국내 최고 경쟁력
- 중국 상하이자오통대학 발표 '세계대학 학술순위' 국내 11위(2018)
- Founded in 1948 as Jinju Agricultural College, it was accredited as a national university and renamed a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1972
- GNU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top-tier universities in three academic fields in Korea such as life science, aerospace and mechanical systems, and nano and advanced materials
- According to the 2018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ARWU), GNU was ranked within the 11 top universities in Korea